



미·중 경쟁이 중남미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홍성우 · 윤여준 · 김진오 · 임지운 · 남지민



미·중 경쟁이 중남미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홍성우 · 윤여준 · 김진오 · 임지운 · 남지민

세계지역전략연구 20-01

미·중 경쟁이 중남미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인 쇄 2020년 12월 23일
발 행 2020년 12월 31일
발행인 김흥종
발행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전 화 044) 414-1179
팩 스 044) 414-1144
인쇄처 아름다운사람들 (02-6948-9650)

©202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가 7,000원
ISBN 978-89-322-9016-4 94320
978-89-322-9000-3(세트)



무역·통상 부문에서부터 정치·외교 분야에 이르기까지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은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다자주의 체제가 위협을 받고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양국 간 갈등은 더욱 격화될 개연성이 있다.

중남미 지역도 미·중 갈등의 이슈에서 예외가 아니다. 더욱이 중남미 지역과 미국의 지리적 근접성을 고려한다면, 안보 측면에서도 미국은 중남미 지역 내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중남미 지역 내에서 미·중 경쟁 또는 갈등의 양상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중남미 지역에서 나타나는 미·중 경쟁의 양상을 조사하고 이것이 중남미 국가들에 미치는 영향을 다방면에서 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대중남미 정책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살펴보고 트럼프 정부에서 추진한 구체적인 대중남미 정책을 정리하였다. 미국 대중남미 정책의 기본방향은 소위 당근과 채찍을 통해 중남미 지역 패권국으로서의 위치를 점하는 것이었다. 그에 따라 트럼프 정부 출범 후 다양한 부문에서 중남미를 압박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반면 중국의 대중남미 정책은 구체적 내용이 부재한 상태에서 중남미 국가들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었다.

제3장에서는 중남미 지역에서 관찰되는 미·중 갈등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갈등은 주로 인프라 부문에서 두드러졌는데, 갈등 상황에서 미국은 중남미 국가들을 압박하고 중국을 관련 프로젝트에서 배제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는데, 2018년에 일어난 미·중 통상갈등, 즉 양국 사이의 보복관세 조치에 초점을 맞추어 이것이 중남미 주요국의 대미국 및 대중국 수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CGE: Computational General Equilibrium)을 통해 동 통상갈등이 중남미 국가들의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보완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브라질의 대중 수출액은 관세부과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한 후 시간이 지나면서 그 효과가 사라지는 추세를 보였다. 반면 브라질 이외 다른 국가들의 경우 일관된 추세가 나타나지 않았다. CGE를 활용하여 분석한 미·중 통상갈등이 중남미 주요국 후생수준에 미치는 영향도 그 크기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남미 내에서 발생하는 미·중 간 갈등은 우리나라 기업에 중남미 진출의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 미국의 압박에 직면한 중남미 국가들이 해당 분야, 특히 인프라 부문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의도하지 않았던 기회가 주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중남미 국가들의 정치적 입장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향후 중남미 진출 기회를 모색하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국문요약 3

제1장 서론 11

제2장 미국과 중국의 대중남미 정책 15

 1. 미국의 대중남미 정책 16

 가. 과거 미국의 대중남미 정책 16

 나. 트럼프 정부의 대중남미 정책 18

 1) 불법이민 차단을 위한 이민정책 19

 2) 불법이민 차단을 위한 이민정책 외 추가 조치 23

 3) 대중남미 투자 및 교류 확대 25

 2. 중국의 대중남미 정책 32

 가. 중국의 대외전략과 중남미 32

 나. 중국의 대중남미 전략방침과 수단 37

 3. 중남미 지역 내 미·중 경쟁의 양상 45

제3장 중남미 지역 내 미·중 경쟁의 사례 47

 1. 멕시코의 테우안테펙 횡단열차 프로젝트 외자 배제 49

 2. 주파나마 중국대사관 부지를 둘러싼 미·중 갈등 51

 3. 파나마-다비드 철도 프로젝트 취소 53

 4. 파나마·중국 FTA 협상 중단 56

 5. 칠레 해저 광케이블 프로젝트 58

 6. 아르헨티나 네우켄 주 우주기지 61

 7. 멕시코 통신 인프라 공유 네트워크와 AT&T 63

8. 브라질 5G 구축사업 국제입찰 연기	67
제4장 미·중 통상갈등이 중남미 주요국에 미친 영향	69
1. 미·중 통상갈등	71
2. 미·중 통상갈등이 중남미 주요국의 대미·대중 수출에 미친 영향	73
가. 데이터와 중남미 주요국의 대미·대중 수출 통계	74
나. 추정방법	93
다. Event study의 추정결과	95
3. 미·중 통상갈등이 중남미 주요국의 후생에 미친 영향	102
가. 모형 및 데이터	103
나. 미·중 상호 관세	106
다. 미·중 관세가 중남미 주요국의 후생에 미치는 영향	107
라. 미·중 관세가 중남미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 멕시코를 중심으로 ..	110
마. 미·중 관세가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에 미치는 영향	114
4. 소결	115
제5장 결론	117
참고문헌	122
Executive Summary	132



표 차례

표 2-1. USIDFC/OPIC의 프로젝트 규모 추이	28
표 2-2. 중국의 대중남미 FDI 추이	39
표 4-1. 미·중 간 상호 관세부과 조치 경과	72
표 4-2. 아르헨티나의 연도별/품목별 대미국 수출액	75
표 4-3. 아르헨티나의 연도별/품목별 대중국 수출액	76
표 4-4. 브라질의 연도별/품목별 대미국 수출액	78
표 4-5. 브라질의 연도별/품목별 대중국 수출액	79
표 4-6. 칠레의 연도별/품목별 대미국 수출액	80
표 4-7. 칠레의 연도별/품목별 대중국 수출액	81
표 4-8. 멕시코의 연도별/품목별 대미국 수출액	82
표 4-9. 멕시코의 연도별/품목별 대중국 수출액	83
표 4-10. 페루의 연도별/품목별 대미국 수출액	84
표 4-11. 페루의 연도별/품목별 대중국 수출액	85
표 4-12. 산업분류	104
표 4-13. 미·중 관세가 중남미 주요국의 후생에 미치는 영향	108
표 4-14. 미·중 관세의 양자간 무역효과	109
표 4-15. 미·중 관세로 인한 산업별 수출변화	111
표 4-16. 미·중 관세로 인한 멕시코의 산업별 대미 수출변화	113
표 4-17. 미·중 관세로 인한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변화	114
표 4-18. 미·중 관세로 인한 한국의 대멕시코 수출변화	114



그림 차례

그림 2-1.	중국의 대중남미 교역 추이(1995~2018년)	38
그림 2-2.	중국 개발금융기관의 대중남미 분야별 금융 지원 추이(2010~19년)	40
그림 3-1.	테우안테펙 횡단열차 프로젝트	49
그림 3-2.	파나마-다비드 철도 프로젝트	54
그림 3-3.	일본과 중국 측에서 제안한 칠레 해저 광케이블 루트	60
그림 3-4.	멕시코 공유 네트워크 프로젝트 지역구분	64
그림 4-1.	아르헨티나의 월별 대미국 수출액 분포	88
그림 4-2.	아르헨티나의 월별 대중국 수출액 분포	88
그림 4-3.	브라질의 월별 대미국 수출액 분포	89
그림 4-4.	브라질의 월별 대중국 수출액 분포	89
그림 4-5.	칠레의 월별 대미국 수출액 분포	90
그림 4-6.	칠레의 월별 대중국 수출액 분포	91
그림 4-7.	멕시코의 월별 대미국 수출액 분포	91
그림 4-8.	멕시코의 월별 대중국 수출액 분포	92
그림 4-9.	페루의 월별 대미국 수출액 분포	92
그림 4-10.	페루의 월별 대중국 수출액 분포	93
그림 4-11.	Event study 결과: 아르헨티나의 대미·대중 수출	97
그림 4-12.	Event study 결과: 브라질의 대미·대중 수출	98
그림 4-13.	Event study 결과: 칠레의 대미·대중 수출	99
그림 4-14.	Event study 결과: 멕시코의 대미·대중 수출	100
그림 4-15.	미·중 통상갈등에 따른 품목별 관세율 비교	107
그림 5-1.	한국의 대멕시코 수출에서 중간재와 자본재의 비중	121



글상자 차례

글상자 1. 중국 지도부의 대외정책 목표와 원칙	33
----------------------------------	----

제1장

K

PMW

서론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전 세계의 관심사이자 가장 중요한 이슈는 단연 미국과 중국의 갈등과 경쟁이라고 할 수 있다. 양국간의 이러한 갈등은 비단 경제부문에서만 아니라 정치, 외교, 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촉발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그 정도가 점차 심화되는 추세이다.

중국기업인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전방위적 제재와 압박, 그리고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미·중 경쟁의 대표적 사례 중 하나이다. 미국은 화웨이에 대한 자체적 제재를 넘어서 자신들의 동맹국 또는 주변 국가에 각 국가들의 5G 구축 사업에서 화웨이를 배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압박에 대응하여 중국은 미국을 배제하고 자신들만의 보안기준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주변국들의 참여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2018년에 일어난 미국과 중국 사이의 보복관세 조치는 무역·통상 부문에서 나타난 또 하나의 갈등 사례이다. 이러한 관세부과 조치는 양 국가의 경제는 물론이거니와, 두 국가의 경제규모를 감안할 때 다른 국가들의 경제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중남미 국가들의 대미국, 대중국 수출 및 수입 의존도를 고려하면 중남미 국가들도 양국간 통상갈등으로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미·중 경쟁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WTO와 같은 다자주의 체계가 위협을 받고 지역주의 및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과거에 비해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미·중 경쟁에 대한 각국의 입장과 그것이 각 국가들에 미치는 영향들을 살펴보는 것은 해당 지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동시에, 향후에 격화될 수 있는 미·중 경쟁 상황에서 우리에게 유용한 정보 내지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중남미 지역 내에서도 미·중 경쟁 또는 갈등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들어 그것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오랜 기간 미국은 중남미 지역을 소위 자신의 ‘뒷마당’으로 인식하며 지역 패권국의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0년대부터 중국의 중남미 진출이 활발해지고, 특히 중국의 일대일로

(BRI: Belt and Road Initiative) 이니셔티브에 중남미가 편입되면서 중남미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자 이에 위협을 느낀 미국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양상을 보이는 등 양국간 갈등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중남미 지역에서 나타나는 미·중 경쟁의 양상과 이것이 중남미 국가들에 미치는 영향을 다방면에서 분석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고 있다. 특히 실증분석에서는 2018년 미·중 통상갈등에 초점을 맞추어 양국간 관세부과가 중남미 주요국의 대미, 대중 수출과 후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중남미 지역을 대상으로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한 기존연구들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기여도와 학술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미·중 통상갈등이 중남미 주요국들의 대미, 대중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실증분석 방법론으로서 Event study를 이용하고, CGE 모형을 통해 후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2018년 미·중 간 관세는 HS 코드별로 서너 차례에 걸쳐 다른 시점에서 부과되었기 때문에 서로 다른 관세부과 시점을 고려하여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Event study를 이용한다. 그리고 CGE 모형을 통해서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미·중 통상갈등이 중남미 주요국의 후생에 미친 영향을 보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전체적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대중남미 정책을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과거 미국과 중국의 대중남미 정책들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조사하고, 트럼프 정부에서 추진한 구체적인 대중남미 정책들을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중남미 주요국들에서 나타나는 미·중 갈등의 사례를 제시한다. 이 장에서는 중남미 국가들이 추진하던 여러 프로젝트들 중에서 미국이 중남미 국가를 압박하고 해당 프로젝트에서 중국을 배제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던 사례를 제시한다. 제4장에서는 무역 데이터를 가지고 실증분석 방법론으로서 Event study를 이용하여 미·중 통상갈등이 중남미 주요국들의 대미·대중 수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이후 CGE 모형을 활용하여 통상갈등이

중남미 국가들의 후생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결론을 맺음으로써 보고서를 마무리한다.

제2장



미국과 중국의 대중남미 정책

1. 미국의 대중남미 정책
2. 중국의 대중남미 정책
3. 중남미 지역 내 미·중 경쟁의 양상



1. 미국의 대중남미 정책

가. 과거 미국의 대중남미 정책¹⁾

역사적으로 미국의 대중남미 정책은 중남미로 진입하려는 외부세력을 차단하고 미국의 패권을 약화시키는 역내의 반대 세력을 억제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미국은 1823년 먼로주의를 선포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중남미에서 세력을 형성해왔다. 냉전시기에 미국은 중남미에서 소련의 세력을 저지하기 위해 반공주의 정책을 펼쳤으나 한계를 드러내며 중남미 내에서 반미 시위를 확산시키기도 하였다.

하지만 1980년대 말 냉전이 종식된 후에도 미국은 서반구에서 여전히 지역 패권국으로서의 지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었다. 특히 미국은 멕시코를 중심으로 대중남미 무역과 투자를 확대해나갔으며, 1990년대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미국 주도하에 중남미 시장은 개방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2000년대에 들어서며 중국이 중남미 지역 내에서 경쟁국으로 부상하기 전까지 어느 국가도 미국의 지역 패권국 지위에 위협이 되지 못하였다.

중남미 지역에서 중국의 부상은 2000년대 초 미국의 부시 정부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미국의 대외정책이 반테러 및 대중동 정책에 집중하게 되면서 가시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때 미국에서 중남미의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려난 반면, 중국-중남미의 교역은 점차 확대되었고 중국의 대중남미 투자는 증가하였다. 또한 미국이 2000년대부터 중남미와 관련된 국내의 이슈를 돌보지 않는 동안 베네수엘라, 브라질, 칠레, 우루과이 등에서 좌파 세력이 차례로 집권하는 핑크 타이드(Pink Tide)가 나타나면서 중남미에서 미국의 입지가 약화되어 2005년 미주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대중남미 경제통합 정책인 미주자

1) 트럼프 정부 이전 미국의 대중남미 정책은 손혜현(2019)을 참고하여 정리하였음.

유무역지대(FTAA: 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 추진을 어렵게 만들었다.²⁾

2000년대 중남미에서 좌파 정부가 강성하고 반미주의가 확산됨과 함께 FTAA 협상 결렬은 중남미 국가들로 하여금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대안을 찾도록 만들었다. 이 시기에 중남미 지역의 인프라 개발을 앞세운 중국의 대규모 거래, 투자, 차관 등은 중남미 국가들에 매력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후 중국의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중남미는 미·중 간 새로운 격전지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미국의 대중남미 전략은 2008년 금융위기와 2009년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을 통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가장 큰 외교정책의 변화는 미국이 반테러 및 대중동 정책으로부터 후퇴를 선언한 것과 미국의 외교정책에서 후순위로 밀려 있던 중남미가 그 중요도 면에서 점차 증가 추세로 전환한 것을 들 수 있다. 오바마 정부 이전 미국의 대중남미 정책들이 일방주의의 일환이었다면, 2009년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 이후로는 일방주의와 다자주의가 혼재되어 나타났다. 즉 콜롬비아와 7개 군사기지 건설 협정을 맺은 것과 같은 과거의 일방주의적인 모습도 나타난 반면, 미주 지역 공동의 이익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며 외교를 통한 중남미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 노력을 기울이는 다자주의의 면모들도 함께 나타났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8년 대선과정에서 세 가지의 자유정책(민주주의, 안보, 번영)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미주 파트너십을 선언했다. 또한 취임 이후인 2009년 미주정상회의에서 미주협력과 쿠바와의 새로운 시대를 약속하며 쿠바에 대한 여행과 송금, 무역 및 투자규제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는 미국과 중남미 간에 존중과 평등을 강조하는 새로운 동맹관계 구축을 의미했다. 그러나 오바마 정부 1기에서 쿠바 정책과 이민정책 추진의 지체, 미국과 베네수엘라 및 볼리비아와의 관계 악화, 국내 정치에 중남미 이슈를

2) Smith(2010).

이용한 것으로 인하여 오바마 정부의 대중남미 정책은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오바마 정부 2기에서는 쿠바에 대한 정책 전환을 통해 중남미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지역 패권국으로서 중남미에 대한 주도권 회복을 시도하였다. 미주기구(OAS: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연설에서 존 케리 국무장관의 먼로독트린 폐기 선언(2013), 미·쿠바 관계정상화 합의(2014), 국제테러리즘 명단에서 쿠바 삭제(2015), 오바마 대통령의 쿠바 방문(2016) 등은 미국의 정책적 변화를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나. 트럼프 정부의 대중남미 정책

트럼프 정부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입각하여 미국의 안보와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아 중남미 원조와 같은 과거의 정책들을 이어가는 동시에 과거와 달리 중남미에 대한 다양한 압박성 정책을 펼치고 있다.

표면적으로 미국은 중남미의 사회적, 경제적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미국의 안보와 자국민 보호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동시에 중남미 국가들에 대한 미국기업의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미국의 대중미(Central America) 전략으로서 미국 국무부는 중미 국가들의 번영(Prosperity)과 안보(Security) 강화, 통치구조(Governance)의 개선이라는 세 가지 큰 틀을 제시하고 있다. 이른바 A4P(Alliance for Prosperity Initiative)로 불리는 미국의 대중미 전략은 2014년 오바마 정부에서 도입되어 트럼프 정부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트럼프 정부는 미국의 이익이 최우선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과거 정부에 비해 다방면에서 중남미 국가들에 압박을 가하는 정책들을 거침없이 펼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정책적 압박은 중남미 지역으로부터의 불법이민을 차단하고 무역·통상 부문에서 미국의 이익을 증대하려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불법이민과 관련해서 트럼프 정부는 무관용 원칙

(Zero Tolerance)을 강력하게 앞세워 국경지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법 이민자에 대한 법 집행의 강도를 높여왔다.

한편 트럼프 정부에서 이와 같은 대중남미 압박 정책이 펼쳐지는 와중에 중국의 중남미 진출이 점차 가시화되면서 더 이상 미국도 중남미 국가들을 ‘미국의 뒷마당’으로 인식하여 강경 일변도의 정책만을 취하기가 어려워졌다. 중남미를 둘러싼 이러한 환경 변화는 미국으로 하여금 중남미 국가들에 소위 당근을 제시하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절에서는 트럼프 정부에서 추진한 구체적인 대중남미 주요 정책 및 관련 법안들과 함께 중국의 중남미 진출 확대에 따른 미국의 견제로서 미국이 취한 대중남미 정책과 조치들을 살펴본다.

1) 불법이민 차단을 위한 이민정책

트럼프 정부에서는 불법이민자의 유입을 막기 위한 이민정책의 변화와 다양한 조치들의 시행 또는 시도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미국 국토안보부의 불법이민자 통계³⁾에 따르면 2015년 미국 내 불법이민자는 총 1,196만 명으로 추정되었다. 이 중에서 멕시코의 불법이민자가 658만 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엘살바도르 75만 명, 과테말라 62만 명, 온두라스 44만 명 등 중남미 국가들의 불법이민자 수가 타 국가를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수치와 함께 불법이민자가 노동시장에서 비숙련 또는 저숙련 미국 노동자를 대체하여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들은 미국 내에서 이민 정책을 뜨거운 이슈로 만든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2020년 11월에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도 트럼프 정부의 이민 관련 정책 및 법안들은 격렬한 논쟁의 주제가 되었다. 이러한 배경하에 여기에서는 미국 내 불법이민자 유입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트럼프 정부가 추진한 정책의 내용과 현황을 검토한다.

3)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2018), p. 5.

가) 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의 단계적 폐지

DACA는 2012년 오바마 정부에서 행정명령으로 시행된 불법이민자의 추방 유예제도로써 어린 시절 부모와 함께 불법이민자의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한 사람들에게 2년마다 심사를 통해 추방을 유예해주고 근로허가증(work permit)을 갱신해주는 제도이다. DACA 적용을 받기 위한 불법이민자의 구체적인 자격요건은 2012년 6월 15일 기준 31세 미만이고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했어야 하며, 2007년부터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아울러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고 여러 범죄혐의가 없어야 한다.

동 제도를 통해 미국에 체류 중인 불법이민자들의 대부분은 중남미 국가들로부터 입국한 불법이민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 이민국(USCIS)⁴⁾에 따르면 2020년 3월 31일 기준으로 DACA 제도를 통해 미국에 체류 중인 불법이민자는 총 265만 명이고, 이 중에서 94.6%가 중남미 국가들의 불법이민자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멕시코가 전체의 79%를 차지하여 타 국가들을 압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그 뒤를 엘살바도르(3.75%), 과테말라(2.54%), 온두라스(2.36%) 등이 차지하고 있다.

오바마 정부에서 DACA 제도의 자격요건 완화와 같이 동 제도를 확장하려는 움직임과는 대조적으로 트럼프 정부에서는 2017년 9월 향후 불법이민자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DACA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임을 발표하였다. 즉 2018년 3월 5일을 기점으로 DACA 신규 신청을 더 이상 받지 않고 2년마다 진행되는 갱신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와 뉴욕 연방법원의 금지명령에 따라 DACA 종료일이 연기되면서 동 제도의 폐지도 자연스럽게 미루어졌다. 이후 연방 지방법원(U.S. District Court)과 연방 고등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9th circuit)을 거쳐 2020년 6월 18일 대법원에서도 트럼프 정부의 DACA 폐지를 무효화하며 DACA 제도에 대한 신규 신청을 받도록 하였다. 이러한 대법원의

4)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202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8. 10).

판결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정부는 2020년 7월 기준으로 여전히 신규 신청을 받지 않고 있으며 기존 신청자에 대한 갱신 절차만을 진행하고 있다.⁵⁾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DACA 개정을 포함한 대규모 이민법안과 관련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이민 관련 제도나 법안은 능력 기반(Merit-Based) 이민 시스템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하였다.⁶⁾

나) 이민자 보호 프로토콜(MPP: Migrant Protection Protocols)의 시행

2019년 1월부터 시행된 이민자 보호 프로토콜은 멕시코를 통해 미국으로 입국하려는 불법이민자 또는 이민 서류 미비자를 멕시코로 돌려보낼 수 있는 조치로서 이들에 대한 이민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멕시코에서 제공하는 시설에서 체류하도록 한 제도이다.⁷⁾ 양국간 이러한 조약을 체결한 배경에는 미국의 남부 국경지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마약 밀수, 불법이민 등을 포함한 불법적인 이슈들이 미국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법과 잘 맞지 않는 미국 법원의 판결 때문이라는 트럼프 정부의 인식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미국의 남부 국경지대를 통해 입국하려는 전체 불법이민자 수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이민의 형태가 과거 성인 남성이 지배적이었던 것에 반해 최근 가족 단위의 불법이민 시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2019a)에 따르면 가족 단위의 불법이민 체포 건수가 2012년 회계연도 동안 약 1만 1,000건이었으나 2019년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4개월 동안 9만 9,901건으로 급증하였다. 미국

5) "Federal court orders Trump administration to accept new DACA applications"(2020. 7. 17), <https://www.npr.org/2020/07/17/892413311/federal-court-orders-trump-administration-to-accept-new-daca-applications>(검색일: 2020. 7. 20).

6) "Trump says upcoming immigration measure will include DACA"(2020. 7. 10), <https://www.npr.org/2020/07/10/889950540/trump-says-upcoming-immigration-measure-will-include-daca>(검색일: 2020. 7. 20).

7) 동반자가 없는 아이들이나 추방 절차가 진행 중인 불법이민자들에게는 이민자 보호 프로토콜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안보부는 이러한 불법이민 형태의 변화가 국경에서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 이민 또는 망명 절차를 더욱 지연시키는 데 일조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민자 보호 프로토콜의 엄격한 집행을 위해 2019년 5월 트럼프 정부는 멕시코의 적절한 조치가 없을 경우 멕시코산 자동차에 대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멕시코를 압박하였다. 이에 2019년 6월 멕시코 정부는 미국 측의 요구를 수용하여 이민자 보호 프로토콜을 보다 강력하게 시행하고 미국과 멕시코 국경 전역으로 이를 확대하기로 하였다.⁸⁾

동 제도의 시행 이후 캘리포니아 연방 고등법원은 캘리포니아 주와 애리조나 주에서 이민자 보호 프로토콜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020년 3월 미국 대법원은 이민자 보호 프로토콜을 계속 시행하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동 제도는 유지되고 있다.⁹⁾

다) 임시보호신분(TPS: Temporary Protected Status) 프로그램 종료

미국 국토안보부는 몇 가지 기준에 따라 임시보호신분 프로그램을 적용받는 국가를 지정할 수 있다. 임시보호신분 프로그램을 적용받는 국가는 내전과 같은 군사적 충돌이 진행 중이거나, 심각한 자연재해, 또는 기타의 이유로 해당 국가들이 일시적으로 자국민을 수용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한 국가들로 지정된다. 이후 6, 12, 18개월 단위로 임시보호신분 지정을 연장할 것인지, 또는 중단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임시보호신분의 혜택을 받는 미국 내 대상자는 2018년 기준 총 30만 명이며 이 중 니카라과인은 5,349명, 엘살바도르인은 26만 3천 명, 아이티인은 5만 9천 명이다.¹⁰⁾ 중남미 국가들 중에는 니카라과, 온두라스, 아이티, 엘살바도르가 임시보호신분 프로그램의 대상 국가로 지정되어 있다.¹¹⁾

8)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2020c), p. 10.

9)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2020d), p. 1.

10)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2018), p. 1.

11) 니카라과와 온두라스 두 국가는 1999년 1월, 아이티는 2010년 1월, 엘살바도르는 2001년 3월에 TPS 대상국가로 지정되었다.

임시보호신분의 수혜자 또는 자격요건을 갖춘 미국 내 이민자들은 지정된 기간 동안 미국에서 추방되지 않고 고용허가서(EAD: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를 발급받아 구직활동을 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여행허가(Travel Authorization)도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임시보호신분 프로그램의 혜택은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임시보호신분 프로그램의 수혜가 향후 영주권 획득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¹²⁾

한편 최근 들어 국적에 따른 불법이민자의 증가 추세는 멕시코에서 중미 국가들과 Northern Triangle(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로 이동하고 있다.¹³⁾ 중남미 국가로부터 유입되는 불법이민자 봉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트럼프 정부는 이러한 추세의 변화를 심각히 받아들이는 듯 아이티, 니카라과, 엘살바도르에 대해서 임시보호신분 프로그램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지난 오바마 정부에서 이 세 국가에 대해 임시보호신분 프로그램을 계속하여 연장해왔던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그러나 2018년 10월 3일 캘리포니아 연방 지방법원은 국토안보부가 수단, 니카라과, 아이티, 엘살바도르에 대한 임시보호신분 프로그램 종료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고, 2019년 4월에는 뉴욕 연방법원에서 아이티에 대한 임시보호신분 프로그램 종료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판결의 결과로 현재 미국 이민국은 임시보호신분 프로그램을 2021년 1월까지 연장하였다.

2) 불법이민 차단을 위한 이민정책 외 추가 조치

전술한 이민정책에서는 기존에 유지되고 있던 이민 제도를 변화시키거나(DACA 폐지, 임시보호신분 프로그램 종료) 또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이민자 보호 프로토콜 시행)함으로써 중남미 국가로부터의 불법이민을 줄이고자 하였던 트럼프 정부의 노력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이민정책이 아닌 다른 채널을 통해 중남미 해당 국가들을 압박하기 위해 미국이 취한 몇 가지 조치들을 살펴본다.

12)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2019).

13)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2019a), p. 23.

가) 국경장벽 자금제공법안(Border Wall Funding Act of 2017)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장벽의 건설비용을 멕시코 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압박을 끊임없이 가하면서 당시 양국의 갈등이 고조되었다.

국경장벽 건설은 중남미 국가들로부터 유입되는 불법이민자들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중남미 국가들에 그 책임이 있다는 트럼프 정부의 인식은 다양한 방법으로 중남미 국가를 압박하도록 만들었다. 그중 하나의 조치가 중남미 국가들로 향하는 송금(Remittance)에 대해 수수료(Fee)를 부과하는 법안인 국경장벽 자금제공법안이다. 2017년 3월 30일에 발의된 동 법안은 기존의 온라인 자금이체법안(Electronic Fund Transfer Act)을 개정하여 멕시코를 포함한 중남미 모든 국가들로 송금하는 경우에 송금액의 2%를 수수료로 부과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 수수료는 재무부로 넘겨져 국경장벽 건설과 보수에 사용되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 법안은 115대 의회활동 내 처리되지 못하였다.

나) 대외원조(Foreign Aid) 유예와 Safe Third Country Agreement 체결

최근 증가하고 있는 중미 국가들로부터의 불법이민 저지를 위해 트럼프 정부는 Northern Triangle 3개국(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과 Safe Third Country Agreement를 체결하고자 하였다. 동 협정은 미국으로 향하는 이민자가 미국이 아닌 처음으로 국경을 통과한 국가에서 먼저 망명 신청을 진행해야만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국으로의 망명 신청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협정은 별도의 의회 승인 없이 대통령의 사인으로만 시행될 수 있었다.

미국이 동 협정을 맺고자 했던 중미 3개국이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자 2019년 3월 트럼프 정부는 이 국가들에 대한 대외원조를 유예하는 결정을 내린다. 2014년 오바마 정부에서 공표되어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트럼프 정부

까지 이어져오는 중미 국가들에 대한 전략, 즉 중미 국가들의 경제적 변영, 안보강화, 통치구조의 안정화를 통해 미국의 안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전략은 주로 미국의 대외원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미국의 대외원조가 중미 국가들의 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트럼프 정부로 하여금 이들 국가들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도록 하였다.¹⁴⁾ 미국은 이들 3개국에 대한 대외원조 유예 결정과 함께 2019년 책정되었던 4억 달러의 대외원조를 미국이 다른 외교정책에 사용하겠다고¹⁵⁾ 압박을 가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동 국가들과 Safe Third Country Agreement를 체결함으로써 대외원조를 통한 대중남미 압박이 효과를 거둔 것처럼 보인다.

3) 대중남미 투자 및 교류 확대

트럼프 정부 들어 소위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하여 미국이 추진한 대중남미 이민정책과 불법이민 차단을 위한 추가 조치들은 중남미 국가들을 압박하여 미국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중남미 내 중국의 진출, 특히 인프라 구축 관련 사업에 중국의 진출이 활발해지고 중남미 국가들의 대중 무역의존도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미국은 자신들의 ‘뒷마당’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중남미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중남미 지역은 미국과의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해 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중남미를 둘러싼 이러한 환경 변화는 미국으로 하여금 중남미 국가들에 소위 채찍만이 아닌 당근을 제시함으로써 주도권을 회복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만들었다. 여기에서는 미국이 대중남미 투자를 늘리고 중남미로의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현재 시행하거나 추진 중인 사항들을 살펴본다.

14)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2020b)에 따르면 회계연도 2017년부터 2020년까지 Northern Triangle 3개국에 대한 미국의 누적 대외원조 금액은 엘살바도르가 1억 8천만 달러, 과테말라가 3억 2천만 달러, 온두라스가 2억 4천만 달러이다.

15)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2019b), p.12.

가) 미주 성장 이니셔티브(Growth in the Americas)의 출범

2019년 12월 17일 출범한 미주 성장 이니셔티브는 중남미 국가들의 에너지 및 인프라 분야에 대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국정부는 미국기업의 중남미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동시에 중남미 국가들의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¹⁶⁾

미주 성장 이니셔티브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들을 진행하기 보다 국무부, 재무부, 상업부, 에너지부 등이 주도하여 기존에 운영되던 기관이나 이니셔티브를 통해 대중남미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원조기관인 USAID(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가 2019년 출범시킨 카리브해 에너지 이니셔티브(CEI: Caribbean Energy Initiative)는 미주 성장 이니셔티브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이다.¹⁷⁾ CEI는 아이티, 도미니카공화국, 자메이카 등 카리브해 국가들의 에너지 및 전력공급을 다양화하고 안정화하기 위해 5년간 5백만 달러를 투자하는 프로젝트이다. 또 하나의 예로서 디지털연계 및 사이버보안 파트너십(DCCP: Digital Connectivity and Cybersecurity Partnership)을 들 수 있다. 이는 협력 국가와의 디지털 연계성을 강화하고 동 국가들의 관련규제 및 사이버보안 개선을 위해 기술적 조언을 제공하며 미국 기술의 수출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¹⁸⁾ 미주 성장 이니셔티브에서는 DCCP를 활용하여 대중남미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데, 2019년 12월 미국 국무부는 DCCP의 서반구 투자 금액을 1천만 달러로 확대하였다.

미주 성장 이니셔티브를 통한 대중남미 투자 확대를 중국의 중남미 진출을 견제하고 중남미 지역 내에서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¹⁹⁾ 중남미 국가들 중에서 파나마, 칠레, 자메이카, 아르헨티나, 콜롬비

16) 미국 국무부, https://www.state.gov/growth-in-the-americas/#nav__primary-nav(검색일: 2020. 7. 20).

17)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https://www.usaid.gov/>(검색일: 2020. 7. 20).

18) U.S Trade and Development Agency, <https://ustda.gov/>(검색일: 2020. 7. 20).

아, 엘살바도르, 에콰도르, 브라질 등이 미주성장 이니셔티브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이 중 칠레, 자메이카, 파나마는 이미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양해각서에 서명을 하였다.

나) 국제개발금융공사(USIDFC: US International Development Finance Corporation)를 통한 중남미 지원

미국의 국제개발금융공사는 2018년 2월 27일 미국 의회에서 BUILD(Better Utilization of Investment Leading Development Act of 2018) 법안이 발의되고 2018년 10월 5일 트럼프 대통령이 동 법안에 서명한 이후 2019년 10월 1일부터 운영되고 있는 신흥국을 대상으로 하는 개발금융기관이다. 동 기관은 기존 조직인 OPIC(Overseas Private Investment Corporation)과 USAID의 민간부문파트(DCA: Development Credit Authority)를 통합하였다.²⁰⁾ USIDFC 설립에서의 이러한 통합은 개발금융기관(DFI: 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을 개혁하여 미국의 국무부와 USAID를 연계시키려는 미국의 국방전략과 일치하는 것이다.²¹⁾

뿐만 아니라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는 OPIC에서 실시하던 대출, 보증, 보험과 같은 기존의 기능에 더하여 직접투자, 소규모 무상지원, 현지화 대출과 같은 새로운 금융수단을 신설하여 기존 조직인 OPIC와는 차별성을 두었다.²²⁾ 이를 통해 국제개발금융공사는 중남미 국가들을 포함한 신흥국의 다양한 프로젝트에 대해 투자를 유치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9) 손혜현(2019); "Peru and U.S. close to signing deal to counter Chinese influence in region: diplomat"(2019. 12. 6), <https://www.reuters.com/article/us-peru-usa/peru-and-u-s-close-to-signing-deal-to-counter-chinese-influence-in-region-diplomat-idUSKBN1Y92GR> (검색일: 2020. 9. 9); "The U.S. government launches the America Crece initiative"(2019. 12. 17), <https://www.thecentralamericangroup.com/america-crece-initiative/>(검색일: 2020. 9. 9).

20) 오수현(2019), p. 69.

21) The Whitehouse(2018. 7. 17), "Statement from the Press Secretary on H.R. 2105/S.2463, the Better Utilization of Investments Leading to Development(BUILD) Act of 2018."

22) 오수현(2019), p. 69.

OPIC에서 참여한 프로젝트들을 포함하여 현재 국제개발금융공사가 진행 중인 대중남미 프로젝트의 규모는 타 지역과 비교하여 가장 클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2-1]에서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국제개발금융공사(OPIC 사업 포함)의 각 지역별 프로젝트 규모의 추이를 제시하고 있다. 누적금액 기준으로 중남미에 가장 많은 74억 달러가 투자되었으며 아프리카에 46억 6천만 달러, 아시아에 36억 9천만 달러, 유럽에 11억 7천만 달러, 중동에 26억 7천만 달러가 투자되었다. 또한 국제개발금융공사의 연도별 대중남미 프로젝트의 규모는 다른 지역과 달리 2015년 4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매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²³⁾

표 2-1. USIDFC / OPIC의 프로젝트 규모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누적금액
중남미	1,512.3	439.2	552.4	876.0	1,278.1	2,796.9	52.8	7,395
(증가율)	(50.0%)	(-70.7%)	(25.8%)	(58.6%)	(45.9%)	(118.8%)	-	
아프리카	341.3	1,230.2	1,043.8	738.8	763.2	504.2	37.9	4,659
(증가율)	(-0.6%)	(260.5%)	(-15.2%)	(-29.2%)	(3.3%)	(-33.9%)	-	
아시아	283.0	790.6	776.5	349.2	673.5	755.8	60.0	3,688
(증가율)	(22.0%)	(179.4%)	(-1.8%)	(-55.0%)	(92.9%)	(12.2%)	-	
유럽	600	4.02	540.5	3.5	-	24.0	-	1,171
(증가율)	(1,900%)	(-99.3%)	(13,343%)	(-99.4%)	-	-	-	
중동	330.7	448.4	256	370	82.5	1,136.2	49.0	2,672
(증가율)	(80.1%)	(35.6%)	(-42.9%)	(44.5%)	(-77.7%)	(1,277%)	-	

주: 1) 2020년은 2020년 3월 기준 수치임.

2) 증가율은 전년도 대비 증가율을 의미함.

3) 누적금액은 2104년부터 2020년까지의 합을 의미함.

자료: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 <https://www.dfc.gov/our-impact/all-active-projects>(검색일: 2020. 10. 5).

한편 미국의 국제개발금융공사는 에너지, 인프라, 농업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2019년 12월 출범시킨 미주 성장 이

23) 현재까지는 주로 진행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과 보험을 통한 프로젝트 참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니셔티브를 발전시키고 구체화하는 것이 주된 목적임을 명시하고 있다.²⁴⁾ 에너지 부문에서는 2019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Buenos Aires)와 네우켄(Neuquen) 지역의 풍력 발전소 공사, 콜롬비아 팔라구아 원전(Palagua field)의 원유증산을 위한 공사, 인프라 부문에서는 2019년 아르헨티나·칠레 간 고속도로 확장 및 재건공사, 농업 부문에서는 2019년 중남미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친환경 농경사업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등을 수행하고 있다. 그 밖에도 2020년 멕시코를 대상으로 여성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과 같이 전통적인 산업 분야 이외에도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중남미에 대한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²⁵⁾

국제개발금융공사의 역할은 표면적으로 중남미 국가를 포함한 대신홍국 투자를 통해 해당 국가의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에 있지만, 일대일로를 통한 중국의 신흥국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이를 견제하기 위한 내적인 목적으로 국제개발금융공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평가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국제개발금융공사가 미주 성장 이니셔티브를 구체화하는 수단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미주 성장 이니셔티브는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대중남미 투자정책이기 때문이다. 대선 과정에서부터 미국의 해외원조를 강하게 비판해왔던 트럼프 대통령이 동 기관의 설립에 서명을 했다는 것은 엄청난 변화이며 이는 중국의 지정학적인 영향력이 증대되는 것을 우려한 결정임을 암시한다.²⁶⁾

24)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 <https://www.dfc.gov/our-work/latin-america-and-the-caribbean> (검색일: 2020. 10. 5).

25) 자세한 국가별 프로젝트의 유형과 규모는 미국의 국제개발금융공사 웹사이트를 참고하기 바란다. <https://www.dfc.gov/our-impact/all-active-projects>.

26) "Trump embraces foreign aid to counter China's global influence"(2018. 10. 14), https://www.nytimes.com/2018/10/14/world/asia/donald-trump-foreign-aid-bill.html?auth=login-email&emc=edit_nn_20181015&login=email&nl=morning-briefing&nid=1418504420181015&te=1(검색일: 2020. 9. 9).

다) 미국·멕시코 경제동반자법안(US-Mexico Economic Partnership Act) 발의 「미국·멕시코 경제동반자법안」은 2019년 1월 발의되어 2020년 1월 15일 양당 만장일치로 상원을 통과하였으나 발의된 법안을 수정하기 위해 현재 하원으로 보내진 상태이다. 동 법안에 따르면 미국과 멕시코 사이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직업 및 교육 부문의 교환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해 미국 국무부는 관련 정책들을 수립해야 한다.

동 법안에서는 국무부가 수립해야 할 정책이 미국과 멕시코 간 경제협력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교육과 직업 부문에서 교환 프로그램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양국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기여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교육과 관련하여 미국·멕시코 간 교환 프로그램의 확대를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중등교육부터 대학원 교육과정까지 교류의 범위를 확대시키는 것, 미국과 멕시코의 교육기관과 기업들이 서로 협력하여 학생들의 향후 업무 역량을 높이는 것에 기여하면서 미국과 멕시코 합작기업(Joint Business) 설립을 촉진하는 것, 직업훈련이나 인턴직(Internships)에 대한 지원을 통해 에너지 인프라 부문에서 협력하는 것, 마지막으로 미국과 멕시코의 의대 및 간호 교육기관(Nursing Program)들 간의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멕시코의 의대 및 간호 교육기관의 인가(Accreditation) 기준을 미국과 비교할 만한 수준으로 향상시켜 멕시코 학생들이 미국에서 자격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구체적인 협력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라) 미주개발은행(IDB: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총재 선출과 미국의 개입

2020년 6월 16일 트럼프 대통령은 9월 치러진 IDB 총재 선거에 모리시오 클라버 캐런(Mauricio Claver-Carone) 현 국가안전보장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의 서반구 책임자(senior director of Western Hemisphere affairs)를 후보로 지명하였다. 캐런 후보는 쿠바와 베네수엘라 관련 현안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가진 후보로 알려져 있다. 볼리비아, 브라질,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파라과이, 콜롬비아 등을 포함한 중남미 15개국은 미국 측의 총재 후보를 지지하였다. 반면 아르헨티나는 페르난데스 대통령의 측근인 구스타보 벨리스(Gustavo Beliz)를 후보로 제안하였고 멕시코가 이를 지지하고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아르헨티나는 후보 지명을 철회하였다. IDB가 설립된 이후 약 60년간 칠레, 멕시코, 우루과이, 콜롬비아 4개국의 중남미 출신 4명의 인사가 IDB 총재를 맡아왔다는 전례에 비추어볼 때 미국의 총재 지명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2020년 9월 12일 모라시오 클래버 캐런 후보가 23개 회원국으로부터 찬성표를 획득함으로써 IDB 차기 총재로 선출되었다. 미국이 IDB 차기 총재 후보를 지명한 이후 미국, 중남미, EU 국가들 간 마찰이 빚어지면서 중남미 일부 국가와 EU 국가들은 이번 총재 선거 일정을 미국 대선 이후로 연기하는 것을 제안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일정대로 진행되었다.

트럼프 정부하에서 과거 IDB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마찰과 최근 미국의 IDB 총재 지명의 배경은 중남미 국가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회복하는 동시에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하고자 하는 전략적 목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2019년 3월 말 중국 청두에서 IDB의 연차총회가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베네수엘라의 합법적 대통령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면서 동 연차총회는 취소되었다. 미국이 합법적인 대통령으로 인정하는 과이도 국회의장이 지명한 IDB의 베네수엘라 대표에 대해 중국 측에서 비자를 발급하지 않고 배제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미국은 연차총회 취소로 대응한 것이다. 또한 므누신(Mnuchin) 미국 재무부 장관은 금번 트럼프 대통령의 IDB 총재 지명에 대해 중남미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발휘할 “강력한 의지”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하였다.²⁷⁾

27) “Trump administration nominates American to head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breaking with tradition”(2020. 6. 17), https://www.washingtonpost.com/national-security/trump-administration-nominates-american-to-head-inter-american-development-bank-breaking-with-tradition/2020/06/16/1159901c-b015-11ea-8758-bfd1d045525a_story.html(검색일: 2020. 7. 27).

이처럼 IDB를 둘러싼 미·중 간 마찰과 이에 따른 미국의 조치는 꾸준히 증대된 중남미 지역에 대한 중국의 관심을 미국이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인식하고 경계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미국의 전례 없는 IDB 총재 후보 지명과 이에 따른 일부 중남미 국가들의 반발은 중남미 내에서 미국과 중남미 간 협력(coordination)이 부족하고 미국의 중요한(overarching) 대중남미 외교전략 부재에 따른 결과라는 시각이 있다.²⁸⁾

2. 중국의 대중남미 정책

가. 중국의 대외전략과 중남미

중국의 대중남미 정책은 중국의 외교정책 발전 과정과 연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광범위하게는 사회주의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의 외교사와 대외전략을 이해해야겠지만, 좁은 범위에서는 1978년 12월 개최된 중국 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 제3차 전체회의에서 천명된 개혁·개방 정책 이후의 대외전략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개혁·개방 노선 채택 이후 국제질서를 국내 발전과 연계시키는 외교정책을 추구했는데, 특히 상호호혜를 중시하는 국제관계에서 WTO 가입 이후 중국의 대외전략과 현재 중국 지도부인 시진핑 주도하의 대외전략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

WTO 가입 이후 시진핑 지도부가 등장하기 이전까지 중국의 대외정책은 제도화·규칙화를 통한 국제관계에서의 신뢰 구축에 집중했다. 이를 위해 ‘평화발전’, ‘호혜공영’, 그리고 ‘조화세계’라는 과거부터 이어온 중국의 외교사상 및

28) “IDB election will raise uncertainty in Latin America”(2020. 9. 14), <https://dailybrief.oxan.com/Analysis/ES256228/-IDB-election-will-raise-uncertainty-in-Latin-America>(검색일: 2020. 10. 14).

이념과 주권·안보·발전이익 수호라는 외교의 목표와 임무가 강조되었다. 이러한 제도화·규칙화 과정에서 중국은 국내적으로 WTO 체제에 부합하는 개혁과 개방을 강화하면서 국제무대에서 정치적 역할과 위상을 제고하는 동시에 무역 대국 및 해외투자국(저우추취) 부상, 지역경제협력 확대(FTA 체결), 다양한 국제기구 가입, 위안화 국제화 등의 경제적 수단을 통해 국제관계를 강화했다.

글상자 1. 중국 지도부의 대외정책 목표와 원칙

□ 세계정세에 대한 인식

- 마오쩌둥: 전쟁불가피론(戰爭不可避論)과 부단혁명론(不斷革命論)에 근거 반패권주의 외교 강조
- 덩샤오핑: 개혁개방노선을 바탕으로 전쟁불가피론 폐기, 평화와 발전(平和與發展) 시대 주류 형성 인식 → 경제발전 기초 다지기, 국제사회 접근(국제기구 및 다자주의 참여)
- 개혁개방 시기의 중국 대외정책 목표와 원칙은 덩샤오핑의 세계관, 국제정세 인식, 국가전략목표 지속 → 시진핑 지도부의 대외정책에도 투영

□ 개혁개방시기 대외정책 목표

- 안정적인 세계질서 환경에서의 경제발전 추구
- 서방의 봉쇄 대응과 대외 영향력 강화
- 독자적 사회주의 노선으로 강대국의 위상 회복

□ 개혁개방시기 대외정책 원칙

- 독립자주외교: 신중국 성립 이래 일관된 대외정책 기본원칙
- ‘평화공존 5원칙’ 준수: 대외정책의 근간인 ‘영토와 주권의 상호존중, 상호 불가침, 내정 불간섭, 평등 호혜, 평화적 공존’
- 반패권주의 유지: 국제관계의 민주화 강조 → 현재는 미국 주도의 일방주의 거부와 비판 의미
- ‘하나의 중국(one china policy)’ 견지 ← 덩샤오핑의 ‘평화통일·일국양제’를 핵심으로 하는 통일정책의 기초

□ 중국 지도부의 대외정책 키워드

- 덩샤오핑(鄧小平, 1904~97년)
 - 제5대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1981~89년), 제5대 중국인민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주석(1978~83년)
 - 도광양희(韜光養晦): 피동적·방어적 전략, 경제발전을 통한 종합국력 배양 우선, 패권국과의 갈등 최소화, 실용주의적이면서 고립주의적인 대외정책
- 장쩌민(江澤民, 1926년~현재)
 - 중국공산당 제7대 중앙위원회 총서기(1989~2002년), 제5대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1989~2004년) 및 제5대 국가주석(1993~2003년)

- 책임대국(責任大國) 및 초보적 수준의 유소작위(有所作爲): 적극적·주도적 대외정책 전개와 국제사회 참여 시도, 종합국력 신장에 따른 자신감으로 중국부상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와 견제를 최소화하면서 강대국으로서의 영향력 확보
- 후진타오(胡錦濤, 1942년~현재)
 - 중국공산당 제8대 중앙위원회 총서기(2002~12년), 제6대 국가주석(2003~13년), 중국공산당 제7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2004~12년)
 - 화평발전(和平發展)과 화해세계(和諧世界): 중국위협론에 대응, 다자주의·공동안보 실현·호혜협력력을 통한 지속적인 평화와 공동번영 실현
 - 핵심이익(核心利益): 양보와 타협이 불가한 주권, 안보, 영토보전, 통일, 정치제도, 사회 안정, 경제발전 등으로 매우 포괄적이며 모호 ← 마찰과 논란 배제를 위한 유연하고 융통성 있는 외교적 선택 결과
 - 그러나 핵심이익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공세적 외교형태 등장을 야기하여 국제사회에 '중국위협론'을 재등장시키고, 영토분쟁 등 주변국가와의 갈등을 초래
- 시진핑(習近平, 1953년~현재)
 - 중국공산당 제9대 중앙위원회 총서기(2012. 11. 15~현재), 제7~8대 국가주석(2013. 3. 14~3. 16, 2018. 3. 17~현재), 중국공산당 제8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2012. 11. 15~현재)
 - 중국의 꿈(中國夢):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비전으로 국민적 통합 촉진
 -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 대국외교의 틀을 제시하여 미·중 관계 안정화 도모
 - 주변외교 강화 → 일대일로 전개

자료: 박병관(2013); 나무위키, 덩샤오핑·장쩌민·후진타오·시진핑(검색일: 2020. 8. 3) 활용 저자 작성.

2012년 11월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8기 전국대표자대회에서 4세대 지도부(후진타오, 원자바오) 퇴진과 5세대 지도부(시진핑, 리커창) 등장이라는 지도부 체 개편이 이루어졌다. 2013년 3월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시진핑 체제 기반으로 정부 각 부문의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고, 2013년 11월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시진핑 지도부는 대외전략에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전술한 전통적인 외교의 핵심사상과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내적 강화와 발전에 유리한 대외환경과 조건을 만들면서 세계평화를 추구하고 공동발전을 촉진해나가겠다는 목표 및 임무를 강조했다. 또한 '도광양회, 유소작위'의 외교전략방침 견지, 독립자주의 평화외교정책 견지, 평화공존 5원칙 기초하에 각국과의 우호협력관계 전면적 발전과 같은 중국외교의

전통적인 지도원칙과 방침도 고수했다.

그러나 시진핑 지도부는 대외정책과 외교행태에서 다소 변화를 보였다. 박병관(2013)에 따르면, 첫째, 경제발전 성과와 종합국력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미국에 대해 '신형대국관계' 건립을 주장하고, 국제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책임대국'의 역할을 강조하는 등 더욱 능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둘째, '도광양회'와 '유소작위' 간의 균형과 '독립자주외교'와 '대국'의 역할 사이에서 균형을 추구하고 있다. 아울러 그동안 강조하던 경제와 안보영역 이외에 해외, 해양, 사이버, 우주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익수호를 강조하고 있으며, 처음으로 '공공외교'를 18차 당대회 보고에 삽입하는 등 외교영역에 있어서도 과거에 비해 균형을 추구하고 있다. 셋째, 국제질서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해야 하지만 주권이나 국가의 '핵심이익'의 양보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박병관(2013)은 중국의 대외정책이 더욱 공세적이고 적극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국내 안정과 발전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 속에서 새로운 강대국 지위에 도달하는 것을 대외분야의 핵심적 과제로 평가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평화발전' 추구하고 '핵심이익' 수호 사이에서의 모순과 갈등 발생, 미국과 발생 가능한 대립에 대한 대응을 시진핑 지도부의 주요 딜레마로 전망했다.²⁹⁾

양평섭 외(2018)는 중국의 대외개방정책 추진 과정을 크게 4단계³⁰⁾로 나누면서, 비록 분석범위가 경제적으로 편중된 측면이 있지만 시진핑 지도부 출범으로 주동적인 경제외교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대일로와 같은 대표적인 경제·외교 전략 추진을 고려해볼 때, 대외정책은 과거의 피동적이면서 수동적이었던 개발 전략에서 적극적이며 주동적인 전략으로 전환되고 있다. 특

29) 박병관(2013), pp. 162~164.

30) △1단계(초기 개방단계): 개혁개방정책 천명(1978년)~1991년 △2단계(대외개방 심화단계): 남순강화(1992. 1. 18 ~ 2. 21. 덩샤오핑의 중국남부 개방지역 순회 답회)~WTO 가입 직전(2001년) △3단계(제도적 개방단계): WTO 가입(2001년 12월)~2012년 △4단계(주동적 경제외교전략 추진단계): BRI 추진(2013년) 이후~현재:(양평섭 외(2018), p. 34).

히 BRI의 공동건설은 중국이 추구하는 전방위 외교 포석의 중요한 수단임을 제시한 ‘중국 공산당 제19기 전당대회 보고(2017. 10)’의 내용을 제시하면서 BRI가 중국의 대외개방전략을 넘어선 경제외교 전략이라고 평가했다.³¹⁾ 이와 같이 중국의 대외전략이 전환된 배경에는 WTO 가입 이후 대내외 개방을 통해 중국의 지위가 지구적으로 부상한 결과로 판단된다. 중국은 세계 수출 1위(2009년)와 세계무역 1위 국가(2013년)로 부상하였고, 2010년에는 미국에 이어 2위의 경제대국으로 지위가 격상했다. 이러한 경제적 지위 변화에 동반되어 외교 분야를 포함한 대외경제정책에서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분석했다.³²⁾

전술한 중국의 대외전략 속에서 중국·중남미 관계에서의 변화는 대외개방 심화단계에서 시작되어 제도적 개방단계에서 도약하였고, 주동적 경제외교전략 추진단계에서 성숙되었다. 이는 곧 중국의 대중남미 전략이 정치·외교·군사적 목적보다 경제관계를 중심으로 발전되었음을 의미한다. 먼저 대외개방 심화 단계에서는 WTO 가입의 사전 작업으로서 시장개방을 이행하여 다른 무역상대국과 동일하게 중남미 지역과도 무역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초를 닦았다. 또한 국내 투자유치와 적극적인 해외투자를 강조하여 투자대국의 지위를 구축함으로써 역시 대중남미 투자진출의 길을 열었다.

다음으로 제도적 개방단계에서는 WTO 가입 당시의 약속이행을 위한 제도정비를 통해 무역에서 한층 도약하는 기회를 마련하였고, 대외적인 영향력 확대 목적의 △ FDI와 ODI의 상호결합으로 해외투자대국 지위 확보 △ FTA와 지역경제협력을 통한 자유무역전략 추진 △ 금융시장 개방과 위안화 국제화 등 정책³³⁾을 통해 중국·중남미 관계를 한층 도약시켰다. 마지막으로 시진핑 지도

31) 중국 공산당 제19기 보고에서는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RI)’,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실크로드 펀드, 제11차 ‘일대일로’ 국제협력 고위급 포럼 등을 중국 특색의 대국외교, 인류운명공동체 건설 등과 함께 전방위 외교 포석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양평섭 외(2018), pp. 41~42).

32) 양평섭 외(2018), p. 40.

33) 양평섭 외(2018), p. 56.

부 출범 당시 대외적 경제적 위상(경제 및 무역 대국, 최대 외환보유국)을 바탕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한편 국내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경제발전 방식 전환 필요성과 세계 금융위기 극복이라는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외경제 전략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BRI라는 전략이 구상되었다.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Rebalancing to the Asia-Pacific)’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 Pacific Partnership)’을 통한 미국의 대중국 견제 대응책인 BRI는 2013년 4월 보아오 포럼에서의 초보적 구상에 이어 2013년 9월 카자흐스탄발 ‘실크로드 경제벨트’ 구상으로 발전³⁴⁾했다. 특히 중국 전문가들은 2013년 11월 개최된 중국 공산당 제18기 3중전회에서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해상 실크로드 건설 추진을 통해 전방위 개방의 새로운 개방 구도를 형성한다’는 명기는 BRI 건설이 중국의 주요 국가전략인 동시에 ‘새로운 대외개방체제 구축’이라는 목표 아래 BRI가 중국의 대외전략을 이끌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³⁵⁾ 이러한 가운데 해상 실크로드의 개념은 지리적 확장을 통해 BRI를 중남미까지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나. 중국의 대중남미 전략방침과 수단

중국은 중남미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주역으로 발돋움했다. 지리적 원거리,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 등 많은 측면의 상이성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중남미 지역 주요국의 협력 상대국으로 부상했다. 20세기 말부터 두드러진 세계 수준에서의 중국 경제 위상 제고가 중국·중남미 관계에서도 병행적으로 나타났다. 즉 1995~2015년 사이 중국·중남미 무역관계는 양적·질적인 변화를 겪으며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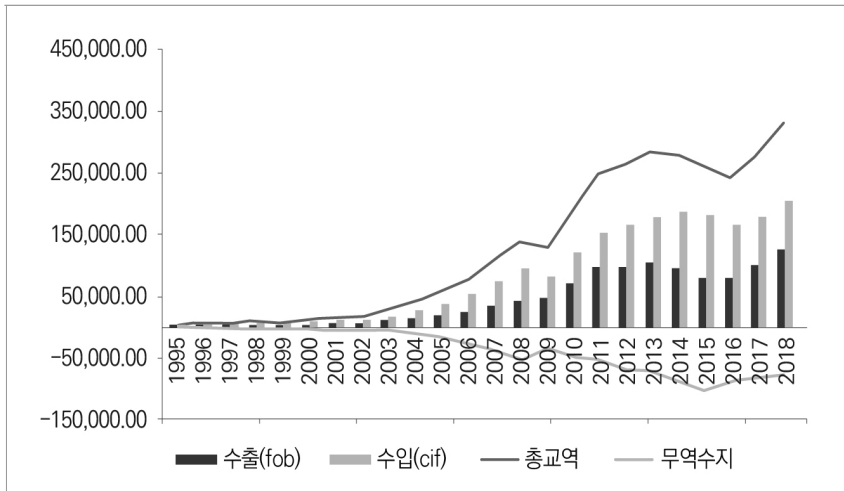
34)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함께 △정책소통 △인프라 연계 △무역원활화 △통화유통 △신심상통(民心相通)의 5통(通) 연계 구상도 발표되고, 2013년 10월 인도네시아 방문에서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건설과 함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이 제안되었다.

35) 양평섭 외(2018), pp. 63~65.

은 미국에 이어 중남미의 제2위 무역상대국과 투자대국이 되었다. 1990년대 초반 약 1%에 불과했던 중남미 교역에서의 중국 비중은 2015년 이래 15%(수출 비중 10%, 수입 비중 18%) 수준으로 늘어났고, 2013년부터 중국은 EU를 제치고 2위 무역상대국으로 부상했다.³⁶⁾ 중국의 대중남미 FDI(제3국 경유 중국 투자 제외)도 1990~2009년 누계 기준으로 73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2010년 137억 달러(총 FDI 대비 11%)로 급증하였고, 2010~15년 연평균 95억 달러(연도별 총 FDI 대비 3~8%)를 기록했다. 2010년 중국의 대중남미 투자에서 중국석유화학공집단(SINOPEC, 브라질)과 중국해양석유공사(CNOOC, 아르헨티나)의 석유산업 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한 것처럼 2010~14년에 중국의 대중남미 FDI의 약 90%(세계의 중남미 자원 부문 FDI 비중 25%)는 자원 부문에 투입되었다.³⁷⁾

그림 2-1. 중국의 대중남미 교역 추이(1995~2018년)

(단위: 백만 달러)



자료: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https://data.imf.org/>(검색일: 2020. 9. 22) 활용 저자 작성.

36) CEPAL(2016), p. 22.

37) CEPAL(2016), pp. 40-41.

표 2-2. 중국의 대중남미 FDI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구분	1990~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브라질	255	9,563	5,676	6,067	2,904	1,161	4,719
아르헨티나	143	3,100	2,450	600	n.a.	n.a.	n.a.
페루	2,262	84	829	1,307	2,154	9,605	2,142
에콰도르	1,619	45	59	86	88	79	94
베네수엘라	240	900	n.a.	n.a.	1,400	n.a.	n.a.
콜롬비아	1,677	6	293	996	n.a.	n.a.	n.a.
기타	1,146	14	867	150	34	70	n.a.
총남미	7,342	13,712	10,174	9,206	5,770	10,915	6,954

자료: CEPAL(2016), p.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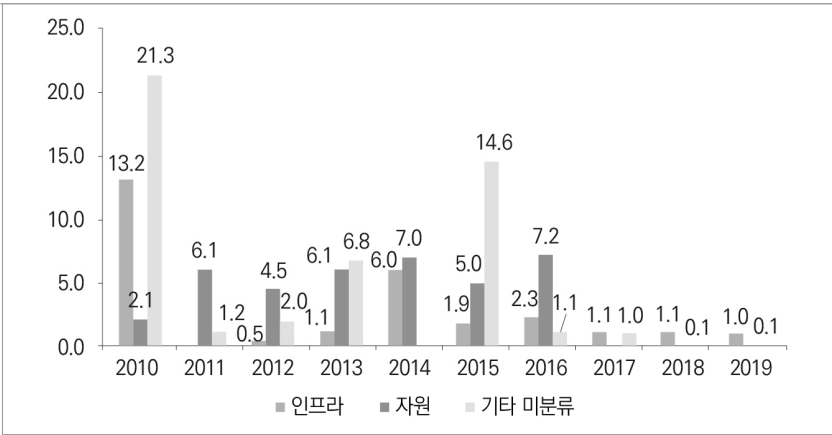
또한 무역과 투자 이외에 중국의 대중남미 협력의 핵심 부문은 금융이다. 개발 협력 방안으로 제공된 금융은 대부분 중국 국영개발은행에서 제공되어 정확한 금액, 프로젝트, 대상 국가 및 산업 분야 등에 대한 정보는 제한적이다. 유엔중남미경제위원회(CEPAL)는 2005~16년 중국의 대중남미 금융지원액을 1,410억 달러로 추정하고, 중국개발은행(CDB)과 수출입은행(Exim Bank)이 주요 공급처인 가운데 CDB가 약 80%를 담당한 것으로 분석했다. 주요 수원국은 대부분 지하자원과 농산물 공급국이었는데, 베네수엘라(44%), 브라질(26%), 에콰도르(12%), 아르헨티나(11%)가 93%를 차지했다. 이들 자금은 대부분 수원국의 인프라(52%), 에너지(31%), 광업(8%) 개발과 무역금융(1%)으로 활용되었다. 금융지원은 차관이나 신용라인 개설과 더불어 자원 확보 방안(loan for oil)으로도 제공되었다. 베네수엘라(2008년부터 6회에 걸쳐 440억 달러), 브라질(2009년 1회 100억 달러), 에콰도르(2009년부터 4번에 걸쳐 50억 달러)의 사례처럼 자원으로 상환 받는 금융지원은 전체 금융지원의 50%를 차지했다.³⁸⁾ 그러나 개발금융기관을 통한 중국의 대중남미 금융지원은 2016년부터 급격하게 감소했는데, 주요 수원국인 브라질, 에콰도르, 베네수엘라가 차입을 줄였기 때문이다. 브라질

38) CEPAL(2018), pp. 22-23.

의 국영석유회사(Petrobras)는 2019년에 CDB 차관을 조기 상환하였고, IMF 구제금융을 받고 있는 에콰도르는 추가적으로 외채를 도입할 수 없었으며, 미국 경제제재로 장기 침체를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는 대중국 기존 채무를 차환하는데 주력함으로써 신규 차관 도입이 불가능했다.³⁹⁾

그림 2-2. 중국 개발금융기관의 대중남미 분야별 금융 지원 추이(2010~19년)

(단위: 십억 달러)



자료: Global Development Center of Boston University(2020), "China-Latin American Economic Bulletin, 2020 edition," p. 7.

무역, 투자, 그리고 금융 협력에 한정되었던 중국의 중남미 진출은 정치·문화적 협력관계 강화에 이르기까지 발전했다. 특히 중남미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중요성이 다소 약화되고 ‘핑크 타이드(Pink Tide, 온건 사회주의 성향의 좌파 물결)’라는 중남미 지역의 정치적 변혁기에 편승하여 중남미 국가들과 전략적 연합협정⁴⁰⁾을 체결하는 동시에 중국 대외전략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하나의 중국’ 정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39) Global Development Center of Boston University(2020), pp. 6-7.

40) 전략적 연합 협정 혹은 친선발전 연합 협정: 브라질(1993년), 멕시코(1997년), 아르헨티나 및 칠레(2004년), 페루 및 코스타리카(2005년), 자메이카(2005년), 베네수엘라(2014년), 에콰도르(2016년), 우루과이(2016년)와 체결.

전술한 중국 대외정책의 목표와 원칙들은 대중남미 전략에도 투영되었지만, 양자관계는 대부분 상호보완성과 남·남 협력⁴¹⁾의 틀에서 이루어졌다. 즉 중국의 대중남미 시각은 강대국과의 외교를 강조한 ‘중국 특색의 대국외교’나 ‘주변 외교’보다 중국의 경제적 및 정치적 이익 추구를 위한 ‘개발도상국 외교’와 ‘다자외교’에 관점에서 접근했다고 볼 수 있다.

중국 최고 지도부의 적극적인 중남미 방문 외교는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신뢰 형성의 밑바탕이 되고, 여기에서 실현가능성이 높은 다양한 제안들이 고위층 간에 교환될 수 있었다. 중국에 있어 중남미 국가들은 외형적 규모(인구, 경제 및 영토 규모, 부존자원 등)나 지정학적 위치 등으로 볼 때 다른 주변국들과 동일한 수준의 중요성을 지니고 있지는 않지만, 중국은 공평한 대우를 중시했다. 정치·이념적 측면에서의 차이가 관계 형성과 발전 속도에서 차이를 유발했을 수 있지만, 중국은 대체적으로 큰 틀에서 동일한 전략과 전술을 행사했다. 반면 중남미 국가들은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로 인해 관계 발전 속도에서 국가마다 차별성을 보였고, 지역에서의 통일된 대중국 전략 설계를 기대할 수 없었다.

중국의 대중남미 전략의 실체는 2008년과 2016년에 각각 발표된 ‘중국 대중남미 정책 문건’으로 구체화되었는데,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교육, 기술 등 다분야에서 중국과 중남미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로드맵을 담고 있다. 먼저 2008년 정책 문건은 양 지역의 유사한 발전수준과 상호보완성을 바탕으로 공동이익 추구에 필요한 기본적인 협력 방향과 평등, 호혜, 공동발전에 기초한 포괄적 협력 파트너십 구축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다음으로 2016년 정책 문건은 직전까지의 협력 경험을 정리하고 진일보한 미래 협력 청사진(신규 아이디

41) 남남협력(南南協力)은 과거 국제사회에서 전개된 개발도상국 간 협력을 뜻하며, 이들이 주로 남반구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에서 유래되었다. 1980년대 이전에는 주로 영향력 확대와 지위 향상이 목적이었으나 2000년대 이후 경제협력이 중심이 되면서 급격히 확대되었다. 중국의 중남미 교류도 실질적으로는 1970년대에 중국 본토가 대만을 대체하여 UN에 가입하면서 이른바 남남협력을 확대함에 따라 제3세계 국가들로부터 지지를 이끌어내려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오성주 2019, p. 6).

어, 제안, 구상)을 제시⁴²⁾했다는 의미가 있다. 특히 중남미와 미국의 사이에서 나타나는 전통적인 대외관계의 불균형과는 다른 ‘동등 대우’에 기초한 관계 증진을 강조하고, 변화하는 중남미 지역의 대내외 환경에 능동적인 참여 의지를 표명하여 중국-중남미 관계에서 질적 도약을 이루고자 했다.

1차 정책 문건 발표 이후 중국은 대중남미 기본협력정책으로 ‘1+3+6 기본협력틀(Cooperation Framework)’을 마련했다. 기본 협력틀은 2014년 7월 브라질에서 개최된 ‘중국-중남미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중남미 양측 공동으로 제안하였고, 협력창구인 ‘중국-중남미·카리브 국가공동체 포럼(China-CELAC Forum)’ 1차 회의(2015년)에서 공식화되었다. 1대 계획, 3대 성장 동력, 6대 협력분야로 구성된 기본 협력틀⁴³⁾은 ‘중국-CELAC 포럼’⁴⁴⁾을 통해 실행·평가·발전되었다.

중국의 전략에 맞서 대응할 중남미 지역 차원의 통일된 창구가 부재한 가운데 중국은 대중남미 전략을 실현하는 창구로서 ‘라틴아메리카·카리브 국가공동체(CELAC)’를 선택했다. 왜냐하면 CELAC은 미주기구(OAS)를 비롯한 기존의 지역 포럼과는 달리 미국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지역의 정부 간 정치대화협력체이기 때문이었다. ‘중국-라틴아메리카·카리브 국가공동체 포럼(CELAC 포럼)’⁴⁵⁾은 다자 대화협의체에 해당하는데, 2015년과 2018년 2차에 걸친 개최

42) 중국은 중남미 국가들과의 관계를 ‘5위일체’의 새로운 구조로 구성되는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 구축을 목표로 했다. △정치에서의 진실(진실과 성실) 및 상호신뢰 △경제에서의 협력과 공영 △인문에서의 상호학습과 귀감 △국제관계에서의 긴밀한 협조 △지역 총체적인 협력과 양자관계의 상호 촉진이 ‘5위일체’에 해당한다;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2016. 1. 1. 24), “China’s Policy Paper o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https://www.fmprc.gov.cn/mfa_eng/zxxx_662805/t1418254.shtml(검색일: 2020. 9. 22).

43) △1대 계획(2015~19 Cooperation Plan): 포괄적 성장과 지속가능발전 달성 목표 △3대 성장 동력(무역, 투자, 금융): 10년 내 교역 5천억 달러 및 대중남미 투자 2,500억 달러 달성, 자국 화폐 결제 및 통화 스왑 확대 △6대 협력분야(에너지·자원, 인프라 건설, 과학기술혁신, 농업, 제조업, 정보기술 분야)를 우선협력대상으로 하여 양측 산업 연결성을 촉진.

44) 중남미 전체를 협력대상으로 설정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협력을 추구하기 위해 양측이 참여하는 실행 기구를 만들었는데, 양측 간 평등과 호혜, 공동발전 원칙에 기초한 포괄적 협력 파트너십 개발이라는 1차 중남미 정책 백서의 목표를 따르고 있으며, 장관급 회의(매 3년), 외교장관회의, 고위관료회의, 기타 분야별 포럼(농업장관포럼, 과학기술혁신포럼, 비즈니스서밋, 싱크탱크포럼, 청년정치지도자포럼, 인프라협력포럼, 인적교류포럼, 정당포럼)으로 조직되었다.

를 통해 양측 간 보다 높은 수준의 협력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2018년의 2차 회의에서는 일대일로에 대한 특별성명(Special Statement on the Belt and Road)⁴⁶⁾을 통해 중남미를 중국 대외정책의 연결망으로 유도하고, 중남미(CELAC)도 지역 발전에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BRI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전기가 되었다. 실제로 중국은 2000년대 들어 ‘하나의 중국’ 정책을 바탕으로 중남미 국가들과 수교⁴⁷⁾하는 동시에, 자유무역협정⁴⁸⁾과 BRI 협력 MOU⁴⁹⁾ 체결을 적극 확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중국의 대중남미 전략 또는 정책은 성과와 더불어 부작용도 노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과의 정치·경제적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전통적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외교무대인 중남미에서 중국의 진출은 새로운 장애에 부딪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미·중 전략적 경쟁을 중심으로 한 중국의 글로벌 전략 안에서 중국이 달성하려는 대중남미 주요 정책 목표들이 미국의 국가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라는 인식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김한권(2020)은 △전략적 접근방안으로서 ‘미국의 뒷마당 흔들기’⁵⁰⁾ △국제적 연대 및 지지 획득을 위한 중남미 개발도상국과의 협력 강화 및 지역에서의 위상 강화⁵¹⁾ △국내정치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지지 획득(One

45) China-CELAC Forum에 관한 주요 정보는 다음 홈페이지를 참고. <http://www.chinacelacforum.org/eng/>.

46) China-CELAC Forum(2018).

47) 코스타리카(2007. 6. 1), 파나마(2017. 6. 13), 도미니카공화국(2018. 5. 1), 엘살바도르(2018. 8. 21)와 각각 수교했다.

48) △발효: 칠레, 페루, 코스타리카 △협상 중: 파나마 △개선헌상: 페루 △검토 중: 콜롬비아.

49) 2020년 3월 기준으로 중남미 18개국(가이아나, 그레나다, 도미니카,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수리남, 앤티가바바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우루과이, 자메이카, 칠레, 코스타리카, 쿠바,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페루)과 MOU 체결; Green Belt and Road Initiative Center(2020), “Countries of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https://green-bri.org/countries-of-the-belt-and-road-initiative-bri/>(검색일: 2020. 8. 6).

50) 중국은 미국이 먼로주의 선언(1823. 12) 및 대외적 행사를 통해서 미주지역에서 패권국의 위치를 공고히 하면서 강력한 군사력으로 국제사회에서 패권적 리더십을 확립하는 과정을 학습했다. 이를 통해 중국은 적극적인 대중남미 정책으로 ‘미국의 뒷마당’을 흔들어 미국의 ‘지역 패권국’ 위상을 약화시킬 수 있다면 세계 다른 지역에서 중국의 전략적 우세라는 상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즉 중국은 대중남미 정책을 지렛대로 활용하여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최소한 아시아 및 서태평양 지역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보는 것이다.

China Policy), 그리고 △경제협력을 통한 상호이익 추구(경제적 주도권 행사)를 중국의 대중남미 외교 목표라고 분석했다.⁵²⁾

이러한 결과로 미국을 지지하는 중남미 일부 국가에서 중국을 표면적으로라도 견제하는 외교적 수사가 증가하고 실질적인 경제협력에 있어서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파나마의 경우 파나마운하 운영권을 홍콩 기업에 양허한 이후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비롯해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해왔지만, 2019년 7월 친미 성향의 코르티소(Laurentino Cortizo) 정부가 출범하면서 파나마에서는 중국과의 FTA 협상 중단, 인프라 건설프로젝트 중국 자본 배제 시도, 화웨이 5G 기술도입 지연 등 현상이 나타났다. 즉 중국은 중남미 일부 국가와의 관계가 다소 소원해지는 가운데 주요 협력 상대국과의 관계 성숙화에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⁵³⁾ 중국의 대중남미 투자가 미치는 환경 및 사회적 영향은 물론,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에 따른 '1차산업 수출 전문화 및 비산업화(Tendencia Reprimarizadora)'⁵⁴⁾로 표현되는 중남미 경제구조 고착화에 대한 비판적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일관된 협력전략을 바탕으로 중남미 지역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51) 중국은 미국보다 열세인 영향력 증진 방안으로 BRICS 중심의 신흥 경제 강국(브라질) 및 개발도상국(중남미)과의 협력 강화와 국제적 연대를 바탕으로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있다.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사무총장,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사무총장,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사무총장,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사무총장을 아프리카와 중남미 개발도상국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 중국 출신 인사가 맡고 있고, 테워드로스(Teodros Adhanom Ghebreyesus)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을 중국의 영향력 아래 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52) 김한권(2020), p. 4.

53) 중국·멕시코 관계를 사례를 들 수 있다. 양국은 2013년 '포괄적인 전략적 연합'에 합의했으나 이후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멕시코 오브라도르(Andrés Manuel López Obrador) 정부는 막강한 잠재력을 지닌 중국과의 관계 강화는 물론, 중국의 대규모 투자도 유치하지 못하고 있다. 멕시코 자체의 결정인지 미국의 압박 때문인지 확실한 근거는 없지만 대통령과 외교부는 중국의 멕시코 내 경제활동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Enrique Dussel Peters 2020,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2. 20).

54)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대두화(Sojización)', 베네수엘라와 에콰도르의 석유 의존, 칠레와 페루의 광물산업과 원자재 의존 등을 일컫는다.

3. 중남미 지역 내 미·중 경쟁의 양상

앞서 살펴본 것처럼 미국의 대중남미 정책은 중남미 지역 내에서 지역 패권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역외 경쟁국들의 진출에 영향을 받으면서 변화해왔다. 하지만 2001년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것에 외교정책들을 집중시키면서 자연스럽게 중남미에 대한 관심도와 중요도가 감소하였다. 이러한 시기에 중국의 중남미 진출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미국은 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중남미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장되는 것을 좌시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오바마 정부부터 트럼프 정부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대중남미 정책 및 외교채널을 가동하여 중남미 지역에서 지역 패권국으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려는 모습들을 보여왔다.

오바마 정부에서는 중남미 지역과의 관계개선을 우선 목표로 설정하여 소위 당근 위주의 정책들을 펼쳤다면, 이와는 대조적으로 트럼프 정부는 베네수엘라로 대표되는 반미정권을 고립시키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중남미 국가들에 대한 제재 위주의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특히 불법이민을 차단하려는 강력한 이민정책의 시행과 대외원조 제한은 주로 중남미 국가만을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인 조치로서 중남미를 압박하는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미주 성장 이니셔티브를 출범시켜 대중남미 투자를 늘리는 등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응하며 중남미 국가들에 대한 압박 일변도에서 벗어나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반면 중국은 전체적인 외교정책의 흐름 속에서 대중남미 정책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책이 부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대중남미 정책의 방향은 이 지역의 국가들과 협력관계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이것의 수단으로서 소위 당근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결과는 2000년대부터 중국·중남미 간 무역량 급증과 중국의 대중남미 투자 확대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중국·중남미의 관계 변화 또는 발전은 미국의 견제를 불러왔다. 특히 중국은 일대일로에 중남미를 편입시키면서 중남미 지역 내 인프라 부문에 진출하거나 투자를 늘리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동 부문에서 미·중 간 갈등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중남미 국가들 내에서 발생한 미국과 중국의 갈등 사례를 살펴본다. 이러한 사례를 조사하는 것은 해당 중남미 국가들이 미국과 중국의 압박 등에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그리고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패턴들이 있는지 간접적으로 파악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제3장



중남미 지역 내 미·중 경쟁의 사례

1. 멕시코의 테우안테펙 횡단열차 프로젝트 외자 배제
2. 주파나마 중국대사관 부지를 둘러싼 미·중 갈등
3. 파나마-다비드 철도 프로젝트 취소
4. 파나마-중국 FTA 협상 중단
5. 칠레 해저 광케이블 프로젝트
6. 아르헨티나 네우켄 주 우주기지
7. 멕시코 통신 인프라 공유 네트워크와 AT&T
8. 브라질 5G 구축사업 국제입찰 연기

중국은 중남미 지역에서 인프라 부문에 대한 진출과 투자를 늘리는 추세이며, 특히 일대일로에 중남미 지역을 포함시키는 것을 공식화하면서 이러한 움직임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미국은 중남미 국가들에 대해 소위 채찍과 당근을 함께 제시하는 사례들이 관찰되면서 중남미 지역은 미·중 간 격전지가 되어가는 모습이다.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2018년 파나마를 방문하였을 당시에 중국을 “중남미의 경제 약탈자”라고 표현한 것은 중국의 중남미 진출에 대한 미국의 우려와 중남미 지역에서 확대되고 있는 중국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중남미 주요 국가들에서 나타난 미·중 간 갈등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중남미 국가들의 전략적 선택들을 간접적으로나마 파악해보고자 한다. 동 사례들을 통해서 살펴본 중남미 지역 내 미·중 갈등에는 몇 가지 공통적인 경향들이 나타난다. 우선 미·중 간 갈등은 주로 통신, 철도 등 인프라 부문에 중국이 진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갈등이 촉발되는 경향이 있다. 두 번째는 이러한 갈등 국면에서 해당 중남미 국가들은 미국의 압박에 직면하는데 미·중 사이에서 어떠한 입장을 취하는지는 당시 정부의 성향, 즉 친미 성향의 우파 정부인지 친중 성향의 좌파 정부인지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우파 정부에서는 미국의 압박이 효과를 발휘하는 반면, 좌파 정부에서는 상대적으로 자국의 실리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멕시코는 좌파 성향의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향성에서 벗어나 사안별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것의 근본적인 이유는 멕시코의 대미 의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 멕시코의 테우안테펙 횡단열차 프로젝트 외자 배제

테우안테펙 횡단열차(Corredor Transístmico) 프로젝트는 멕시코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és Manuel López Obrador, 이하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공약 사업이자 취임 후 발표한 2020-2024 국가개발계획의 4대 대규모 프로젝트 중 하나이다. [그림 3-1]에 제시된 것처럼 테우안테펙 지협(Istmo de Tehuantepec) 내에 위치한 오악사카(Oaxaca)주의 살리나 크루스(Salina Cruz)항구와 베라크루스(Veracruz)주의 코앗사코알코스(Coatzacoalcos)항구를 연결하는 철도와 각 항구의 기존 인프라 개선 및 신규 산업단지 건설이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이다.

그림 3-1. 테우안테펙 횡단열차 프로젝트



자료: Newsweek México, "Corredor Transístmico: a recuperar el auge económico"(2019. 6. 9), <https://newsweekspanol.com/2019/06/corredor-transistmico-auge-economico>(검색일: 2020. 7. 31).

사실상 베니토 후아레스(Benito Juárez) 시절부터 추진되었던 동 철도는 1859년 부설이 시작된 후 포르피리오 디아스(Porfirio Díaz) 정부 시절인 1907년 공식 개통되었다. 이후 테우안테펙 횡단열차는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는 멕시코 무역의 주요 루트로서 빠르게 성장하는 듯했으나, 멕시코의 사회적·정치적 위기와 더불어 1914년 파나마운하가 개통하면서 국제 물류 통로로서 발전할 기회를 놓치게 되었다.⁵⁵⁾ 2018년 12월 취임한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테우안테펙 지협을 뛰어난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동 철도가 파나마운하의 위상에 도전하는 국제무역 통로로 도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나아가 멕시코 남부 지역 개발과 물류 산업의 발전을 목표로 테우안테펙 횡단열차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⁵⁶⁾

테우안테펙 지협의 개발은 오브라도르 정부 이전에도 이미 몇 차례 논의된 적 있으나, 중국은 2013년 처음으로 동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당시 정강(Zeng Gang) 주멕시코 중국대사는 베라크루스주의 하비에르 두아르테 데 오초아(Javier Duarte de Ochoa) 시장과의 회담에서 중국기업의 프로젝트 참여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 또한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동 프로젝트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때에도 동 프로젝트의 가장 유력한 투자국은 중국이었으며 새 정부 출범 직후인 2019년 2월, 아마폴라 그리할바(Amapola Grijalva) 멕시코·중국 상업·기술회의소(Cámara de Comercio y Tecnología) 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 투자자들이 테우안테펙 프로젝트에 갖는 지대한 관심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테우안테펙 프로젝트에 대한 중국의 큰 관심에도 불구하고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2019년 4월 28일 테우안테펙 프로젝트가 100% 멕시코의 공공

55) "Historia del Corredor Transístmico"(2018. 12. 17), <https://www.razon.com.mx/opinion/historia-del-corredor-transistmico/>(검색일: 2020. 9. 25).

56) "Corredor del Istmo, ruta comercial que AMLO quiere trazar de la mano de China"(2018. 6. 7), <https://www.elfinanciero.com.mx/financial-times/corredor-del-istmo-ruta-comercial-que-amlo-quiere-trazar-de-la-mano-de-china>(검색일: 2020. 7. 20).

및 민간 부문의 투자로 진행될 것이며 외국인 투자는 받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중미 국가들의 불법이민 문제와 USMCA 비준과 관련하여 미국과 마찰을 겪고 있었던 상황에서 2019년 3월 19일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과 회동을 가졌고, 멕시코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프로젝트에서 중국을 배제하라는 미국정부 측의 요청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미국과의 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쿠슈너 선임고문의 요청을 받아들여 테우안테펙 프로젝트에서 외자를 배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며,⁵⁷⁾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의 자본 유입을 막기 위한 미국의 압력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볼 수 있다.

2. 주파나마 중국대사관 부지를 둘러싼 미·중 갈등

파나마운하 입구에 위치한 아마도르(Amador) 지역은 운하를 이용하는 화물선이 항상 통과해야만 하기 때문에 전략적인 가치를 지니며 동시에 과거 미군 부대가 주둔했던 지역으로 군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2017년 6월 파나마와 중국이 수교하면서 각국의 외교 공관 설립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는데 중국이 아마도르 지역을 주파나마 중국대사관 부지로 고려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중국은 파나마운하와 관련하여 전략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아마도르 지역에 중국대사관을 건설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고, 파나마 정부는 중국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아마도르 지역의 4헥타르를 대사관 부지로 제공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당시 바렐라 대통령은 아마도르 지역 내 중국대사관 건설을 통해 지역

57) “Amlo cierra la puerta a la inversión china”(2019. 5. 3), <https://www.eluniversal.com.mx/columna/mario-maldonado/cartera/amlo-le-cierra-la-puerta-la-inversion-china>(검색일: 2020. 7. 22).

의 재활성화를 피하기 위해 중국 측에 아마도르 지역을 직접 제안하였다.⁵⁸⁾

그러나 바렐라 정부는 야심차게 추진했던 동 계획을 철회해야만 했다.⁵⁹⁾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아마도르 지역 내 중국 외교 공관 설립을 반대했던 미국 정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바렐라 정부는 안보와 환경적 영향을 고려해서 아마도르 지역을 선정했다고 주장했지만, 파나마운하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중국을 견제해야 하는 미국으로서는 파나마운하 입구에 위치한 아마도르 지역에 중국의 대사관이 건립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다. 특히 파나마운하에 대한 미군 군함의 접근성은 미 군사전략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며 미국을 오가는 화물선의 3분의 2가 파나마운하를 통과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할 수 있다. 아마도르 지역에 중국대사관이 실제 건설됐다면 이는 파나마운하를 통과하는 미 군함을 동 지역에서 추적하는 것을 돕는 감시 초소의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⁶⁰⁾

한편 외교 공관 설립 부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자오 번탕(Zhao Bentang) 중국 외교부 중남미 국장은 중국대사관은 민감한 지역 내에 건설될 필요가 없으며 대사관 업무에 편리한 곳에 위치하면 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자오 국장은 아마도르 지역이 거론되기 전 파나마시티 내 전통적 외교지구인 클레이톤(Clayton)이 대사관의 첫 번째 후보지로 선정되었으나 동 지역이 채택되지 않

58) "Entregar Amador a China fue una propuesta de Juan Carlos Varela"(2018. 9. 23), <https://www.panamaamerica.com.pa/politica/entregar-amador-china-fue-una-propuesta-de-juan-carlos-varela-1116847>(검색일: 2020. 8. 18).

59) 파나마운하가 파나마 정치, 경제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1999년 미국으로부터 반환되면서 파나마 국민들 사이에서 주권 회복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파나마 국민들은 파나마운하 입구 인근에 중국대사관이 건설되는 것은 파나마 주권 침략을 야기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동 지역 내 대사관 설립을 반대했다: Global Americans(2018. 9. 21), "The evolution of Panama-PRC relations since recognition, and their strategic implications for the U.S. and the region," <https://theglobalamericans.org/2018/09/the-evolution-of-panama-prc-relations-since-recognition-and-their-strategic-implications-for-the-u-s-and-the-region/>(검색일: 2020. 8. 19).

60) "Editorial: While America slept, China gained a stranglehold on the Panama Canal"(2019. 1. 6), https://www.stltoday.com/opinion/editorial/editorial-while-america-slept-china-gained-a-stranglehold-on-the-panama-canal/article_30203f97-8324-55f0-b878-351e945c2e1c.html(검색일: 2020. 8. 18).

은 것은 주파나마 미국대사관과 지나치게 인접한다는 미국 측의 반발 때문이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⁶¹⁾

파나마 주재 중국대사관 위치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갈등 속에서 2018년 11월 1일부터 파나마 상업지구(Vía Cincuentenario)에서 임시적으로 중국대사관이 운영되었다. 이후 2019년 6월, 이사벨 데 생 말로(Isabel de Saint Malo) 파나마 부통령 겸 외교장관은 중국과 합의를 거쳐 주파나마 중국대사관이 첫 번째 후보지로 거론되었던 클레이톤에 건설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⁶²⁾

3. 파나마-다비드 철도 프로젝트 취소

파나마-다비드 철도 프로젝트는 [그림 3-2]에 제시된 것처럼 파나마 (Panamá) 주, 꼬끌레(Coclé) 주, 에레라(Herrera) 주, 페라구아스 (Veraguas) 주, 치리끼(Chiriquí)주를 연결하는 총 길이 391.3km의 철도 구축사업이다. 동 프로젝트는 파나마와 중국 간 핵심 협력 사업 중 하나로서 시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파나마의 물류 플랫폼과 관광산업의 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⁶³⁾

61) La Estrella de Panamá, "Zhao: 'A China no le molesta si su sede está o no en Amador'"(2018. 9. 23),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8. 19).

62) 파나마의 전통적 외교지구인 클레이톤은 현재 미국, 러시아, 교황청 대사관이 위치해 있다.

63) 대한민국 외교부(2019. 3. 25), 「파나마 주간 경제 동향」, http://www.mofa.go.kr/www/brd/m_4049/view.do?seq=368304(검색일: 2020. 7. 28).

그림 3-2. 파나마-다비드 철도 프로젝트



자료: "Gobierno de Cortizo 'no contempla' el tren Panamá-David"(2019. 9. 6), https://www.tvn-2.com/nacionales/Gobierno-Cortizo-no-contempla-tren-Panamá-David_0_5390460942.html(검색일: 2020. 11. 26).

후안 카를로스 바렐라(Juan Carlos Varela, 이하 바렐라) 파나마 전 대통령은 2017년 6월 13일 대만과 단교 후 중국과 수교를 맺고,⁶⁴⁾ 2017년 11월 17일 파나마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하였다. 이를 계기로 파나마는 중남미 국가 중 처음으로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 참여하게 되었고, 중국은 일대일로 구상의 일환으로 파나마-다비드 철도 프로젝트의 타당성 조사를 약속했다.⁶⁵⁾ 또한 2018년 12월 시진핑 주석이 파나마를 방문하면서 바렐라 정부

64) 이와 같은 파나마 정부의 중국과의 수교 결정의 배경으로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먼저 중국이 수교 직전 파나마에 10억 달러 규모의 항만 투자에 나선 중국의 '금전 외교'에 대한 논란과 대만과의 단교의 대가로 중국정부로부터 약 1억 4천만 달러 수수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中, 수교직전 파나마에 10억弗 항만투자...『금전외교 논란』」(2017. 6. 14), <https://www.yna.co.kr/view/AKR20170614109000089>(검색일: 2020. 7. 28); "China niega un pago millonario de sobornos a Panamá para establecer relaciones diplomáticas"(2019. 11. 30), <https://www.france24.com/es/20191130-china-niega-un-pago-millonario-de-sobornos-a-panam%C3%A1-para-establecer-relaciones-diplom%C3%A1ticas>(검색일: 2020. 7. 22).

65) "Los 19 acuerdos que firmaron Panamá y China"(2017. 11. 20), <https://www.estrategiaynegocios.net/lasclavesdeldia/1127607-330/los-19-acuerdos-que-firmaron-panam%C3%A1-y-china>(검색일: 2020. 7. 28).

는 중국과 19개 분야에서 양자 협정을 체결하고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중국 측의 원조를 약속받으며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해나갔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2019년 3월 15일 바렐라 대통령은 중국철도공사(China Railway Design Corporation)가 진행한 파나마-다비드 철도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는데, 공공서비스 효율성, 시민들의 이동성, 관광업 활성화 및 물류 거점으로서의 입지 강화 등 경제적 수익성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⁶⁶⁾

이렇듯 바렐라 정부는 파나마-다비드 철도 건설이 국가 발전에 유익하다는 입장이었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동 프로젝트를 통해 중국이 파나마는 물론 중미 지역 내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미국정부는 중국의 파나마 철도 프로젝트의 참여가 중미 지역에서 입지를 강화하려는 전략이라고 간주하고, 중국과 수교 이후 중국과의 관계를 급속도로 발전시키는 바렐라 정부를 강하게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⁶⁷⁾ 특히 철도 프로젝트의 타당성 조사 발표 직후, 미국의 Roxanne Cabral 주파나마 미 대사대리(Charge d'Affaires at the US embassy in Panama)는 한 인터뷰에서 해당 프로젝트가 파나마에 유익이 될지에 대해서 파나마 정부가 면밀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간접적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⁶⁸⁾

바렐라 정부는 미국의 암묵적 경고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협력을 지속하며 중국 편에 서는 모습을 보였다면, 2019년 7월 1일 취임한 라우렌티노 니토 코르티소(Laurentino Nito Cortizo, 이하 코르티소) 대통령은 미국을 의식하며 전임 정부와는 다른 노선을 취하고 있다. 미국정부도 친미 성향의 코르티소 대

66) Ministerio de Relaciones Exteriores de Panamá(2019. 3. 15), "Estudio revela que propuesta del presidente Varela para un tren Panama-Davide es economica y socialmente rentable," <https://mire.gob.pa/noticias/estudio-revela-que-propuesta-del-presidente-varela-para-un-tren-panama-david-es-economica-y-socialmente-rentable/>(검색일: 2020. 7. 28).

67) 2018년 10월 18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바렐라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중국이 약탈적인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며 중국의 무역 관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68) "EEUU sugiere 'análisis cuidadoso' ante proyecto de tren Panamá - Chiriquí"(2019. 3. 15), https://www.tvn-2.com/nacionales/EEUU-analisis-cuidadoso-Panama-Chiriqui_0_5259224083.html(검색일: 2020. 7. 28).

통령에게 중국과의 거리두기를 요구하고 있었다. 코르티소 대통령 취임 후인 2019년 8월 28일 미국의 모리시오 클라버커론(Mauricio Claver-Carone) 국가안전보장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 서반구 담당 선임보좌관(Senior Director)은 파나마를 방문해 코르티소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중국의 파나마 진출에 대한 미국 측의 강한 우려를 표하였다. 이후 한 인터뷰에서 중국이 자국의 지정학적 전략을 위해 파나마를 이용하고 있다며 중국을 비판하는 동시에 파나마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는 미국임을 강조했다.⁶⁹⁾

이러한 미국의 압박은 실제 코르티소 정부가 중국과 거리를 두는 데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한 것처럼 보인다. 코르티소 대통령은 파나마-다비드 철도 프로젝트보다 중요한 인프라 사업들이 산적해 있다고 주장하며 취임 후 65일 만에 파나마-다비드 철도 프로젝트의 중단을 선언했다.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었던 동 철도 프로젝트가 갑작스럽게 취소되자 중국 측은 바로 반발했다. 웨이 치양(Wei Qiang) 주파나마 중국대사는 미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강대국’이 파나마와 중국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기 위해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간접적으로 미국을 비판했다.

4. 파나마·중국 FTA 협상 중단

바렐라 정부는 중국과 수교한 이후 양국간 무역을 증진하고 물류허브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파나마·중국 FTA를 추진했다. 2018년 7월 12일 첫 번째 협상 이후, 약 10개월 동안 총 다섯 번의 협상을 통해 파나마·중국 FTA 협상은 급속도로 진전되는 듯했다. 특히 바렐라 대통령의 퇴임 약 2개월 전 열린

69) CRiTICA(2019. 8. 30), “EEUU: China para Panamá es mucha espuma y poco chocolate,” <https://www.critica.com.pa/nacional/eeuu-china-para-panama-es-mucha-espuma-y-poco-chocolate-556762>(검색일: 2020. 7. 13).

협상에서 파나마 실무 협상단 측은 차기 정부가 파나마에 더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파나마-중국 FTA 협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히며 코르티소 차기 정부의 FTA 추진을 희망했다.

그러나 코르티소 대통령은 취임 후 바렐라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했던 중국 참여 인프라 프로젝트를 중단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파나마-중국 FTA 협상에 제동을 걸며 중국과 거리를 두고 있다. 코르티소 대통령은 파나마가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도구로 FTA를 활용하던 기존의 무역 개방 전략을 수정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중국과의 FTA 협상을 중단했다. 또한 라몬 마르티네스(Ramón Martínez) 파나마 통상산업부 장관은 중국과의 협상이 완전한 형태의 FTA 체결이 아닌 부분적 무역협정 체결로 마무리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양국의 관계가 냉각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기도 했다.⁷⁰⁾ 이에 대해 웨이 창(Wei Qiang) 파나마 주재 중국대사는 경제 부문에서 파나마-중국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코르티소 신임정부가 양국의 FTA 협상에 계속해서 동력을 제공해주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코르티소 대통령은 파나마-중국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양국의 관계 냉각을 공식적으로 부인했지만, FTA 협상 속도를 조절하는 배경에는 미국을 의식하는 파나마 정부의 의도가 엿보인다. 미국은 코르티소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파나마-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우려와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미 국무부 장관은 코르티소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면서 파나마-중국의 무역협상을 겨냥하여 파나마 정부가 지속가능하고 광범위한 경제성장과 이를 추진함에 있어 투명성을 우선시할 것을 요청하였다.⁷¹⁾ 또한 코르티소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윌버 로스(Wilbur Ross) 미

70) El Capital Financiero(2019. 10. 29), "TLC con China deja de ser una prioridad para Panamá, pero no un objetivo," <https://elcapitalfinanciero.com/tlc-con-china-deja-de-ser-una-prioridad-para-panama-pero-no-un-objetivo/>(검색일: 2020. 7. 28).

71) La Estrella de Panamá(2020. 2. 27), "EE. UU. veta las relaciones entre Panamá y China," <https://www.laestrella.com.pa/opinion/columnistas/200227/ee-uu-veta-relaciones-panama>(검색일: 2020. 8. 14).

상무부 장관이 파나마·미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조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였는데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코르티소 정부가 중국과 거리 두기를 원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⁷²⁾

또한 모리시오 클래버커론 NSC 서반구 담당 선임보좌관은 2019년에만 파나마를 세 차례 방문하였는데, 이러한 미국정부 측의 노력은 파나마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중국의 참여를 어느 정도 배제하고 파나마·중국 간 FTA 협상에 제동을 거는 등 중국과의 관계 발전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5. 칠레 해저 광케이블 프로젝트

국제통신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해저 광케이블은 전 세계적으로 약 400여 회선(군사용 비밀케이블을 제외)이 구축되어 있으며 인터넷과 모바일 트래픽의 99% 이상을 전송한다. 특히 최근 사물인터넷(IoT)과 5G의 보급으로 대규모 트래픽 발생이 예상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해저 광케이블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이러한 네트워크를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칠레 또한 예외가 아니다.

칠레는 2018년부터 해저 네트워크를 구축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남미를 연결하기 위한 ‘아시아-남미 해저 광케이블 프로젝트(Puerta Digital Asia-Sudamérica)’를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아시아와 남미 지역 간 모든 데이터가 미국을 거쳐야 했던 것과 달리 칠레의 해저 케이블 프로젝트는 양 지역간 최초로 직접적인 디지털 연결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 때문에 칠레 정부는 동 연결망을 남미의 주요 디지털 허브로 만들겠다는 목표와 더불어, 파스쿠아 섬

72) El Capital Financiero(2019. 10. 29), *op. cit.*

(Isla de Pascua)과 후안 페르난데스(Isla de Juan Fernández) 섬의 연결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 프로젝트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⁷³⁾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곧 글로벌 통신 패권을 둘러싼 미·중 간 갈등의 장이 되었다. 사실상 거의 모든 데이터가 해저 케이블을 통해 전송되는 구조상, 해저 네트워크 산업의 주도권을 갖는 것이 곧 글로벌 데이터통신의 패권을 잡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일대일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국 기업이 전 세계 각국의 디지털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글로벌 통신 네트워크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한다. 칠레의 해저 케이블망은 대용량의 데이터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중국에 제공하는 루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은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칠레의 동 프로젝트에 대한 중국의 높은 관심은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림 3-3]과 같이 상하이를 해저 케이블의 종착지로 하는 해저 네트워크 루트를 칠레 정부에 제안하며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 강력한 로비와 많은 자원을 투입했다.⁷⁴⁾ 또한 2019년 7월 27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칠레를 방문해 세바스티안 피네라(Sebastian Piñera) 대통령과 5G와 해저 광케이블 프로젝트 입찰에 대해 논의했다. 회담 직후 왕이 부장은 칠레 인프라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중국 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강력한 정부의 의지를 표명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과학기술부문에 중국과 칠레의 협력을 강화하고 칠레는 양대륙을 잇는 다리가 될 수 있다고 발언하며,⁷⁵⁾ 간접적으로 칠레의 해저 광케이블 프로젝트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표하였다. 주칠레 쉬부(Xu Bu) 중국대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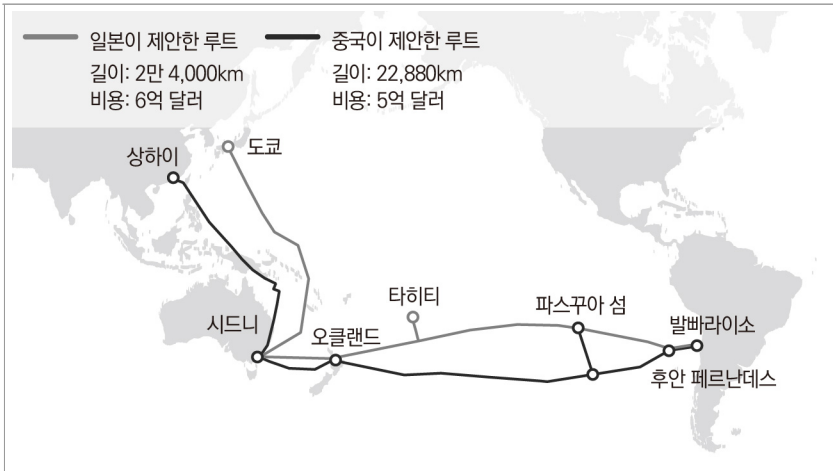
73) El Libero(2019. 8. 5), "Chile, otro campo de batalla en la guerra comercial entre China y Estados Unidos," <https://ellibero.cl/actualidad/chile-el-campo-de-batalla-en-la-guerra-comercial-entre-china-y-estados-unidos/>(검색일: 2020. 9. 8).

74) El Libero(2019. 8. 5), *op. cit.*

75) El Mercurio(2019. 7. 29), "Canciller chino expresa que cumbre APEC en Chile 'puede ser un gran éxito' para defender el libre comercio," <http://cache-elastic.emol.com/2019/07/29/C/1R3KRUO8>(검색일: 2020. 9. 14).

일대일로에서 칠레는 태평양-대서양 및 아시아-남미를 잇는 중요한 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하며 직접적으로 동 프로젝트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기도 했다.⁷⁶⁾

그림 3-3. 일본과 중국 측에서 제안한 칠레 해저 광케이블 루트



자료: "La hoja de ruta del nuevo cable transoceánico que llegará a Chile"(2018. 7. 30), <https://www.latercera.com/pulso/noticia/la-hoja-ruta-del-nuevo-cable-transoceanico-llegara-chile/261943/> (검색일: 2020. 9. 14).

그러나 미국은 5G 시장에서와 마찬가지로 해저 케이블 시장에서도 화웨이의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칠레 정부를 압박했다. 미국은 해저 광케이블의 보안은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중국의 도청이나 감시에 악용될 가능성이 많으며 중국의 칠레 해저 케이블 프로젝트 참여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2019년 4월 12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칠레를 방문해 칠레의 네트워크에 미국이 신뢰하지 않는 시스템을 사용한다면 미국은 이에 따른 결정을 취할 수밖에 없다며 화웨이의 칠레 내 영향력 확장을 견제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중국의 왕이 외무부장의 칠레 방문 기간이었던 2019년 7월 27일,

76) El Libero(2019. 8. 5), *op. cit.*

미국은 칠레와의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 Visa Waiver Program) 협정 갱신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며⁷⁷⁾ 데이터 통신 부문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칠레를 압박하기도 했다.⁷⁸⁾

칠레는 해저 광케이블망 프로젝트 수주에 관심 있는 일본과 중국 측으로부터 [그림 3-3]에서와 같은 케이블망 루트를 제안받았는데, 칠레는 최종적으로 일본이 제안한 루트를 선택하였다. 이러한 결정의 배경으로 칠레 정부는 비용과 타당성 측면에서 일본의 제안이 더 적합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사실상 미국의 화웨이 배제 압박이 동 결정의 배경이 되었다는 시각이 존재한다.⁷⁹⁾ 이렇듯 일본 측에서 제시한 루트가 선정되면서 해당 프로젝트의 유력한 사업자로 꼽혔던 화웨이는 내년으로 계획된 입찰경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졌다.

6. 아르헨티나 네우켄 주 우주기지

아르헨티나 파타고니아 지방에 위치한 네우켄 주 우주기지는 행성 간 탐사, 천문 관측, 궤도 위성(satélite en órbita) 추적 및 관리, 관련 데이터 수집 등을 목적으로 중국이 설립한 우주탐사연구센터이다. 중국정부는 유인 달 착륙 및 화성 탐사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2012년 11월 아르헨티나 네우켄 주정부 및 아르헨티나 우주국(CONAE: Comisión Nacional de Actividades Espaciales)과 우주센터 건설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으며, 2014년 4월 아르헨티나와 중국은 우주개발사업에 대한 협정을 맺었다. 이를 통해 아르헨티나는 중국에 네우켄 주

77) El Libero(2019. 8. 5), *op. cit.*

78) 중남미에서 유일한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의 회원국인 칠레에 있어 미국의 비자 면제 프로그램은 자국민들의 미국 입국 절차를 간소화할 뿐만 아니라, 양국이 안보 분야에서 정보를 교환하며 동맹을 맺고 있다는 것을 상징한다. 때문에 이러한 미국의 갱신 기간 축소 결정은 칠레 정부에 큰 압력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79) "Chile picks Japan's trans-Pacific cable route in snub to China"(2020. 7. 29), <https://asia.nikkei.com/Politics/International-relations/US-China-tensions/Chile-picks-Japan-s-trans-Pacific-cable-route-in-snub-to-China>(검색일: 2020. 9. 14).

내 2km² 규모의 땅을 50년간 무상으로 임대해줄기로 약속했고, 중국은 우주연구소 건설비용을 전액 투자하고 아르헨티나 측에 우주기지 내 안테나 일일사용시간의 10%를 제공하기로 했다.⁸⁰⁾

중국과 아르헨티나 정부는 네우켄 주의 우주기지 건설이 순수하게 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하지만, 미국 측은 이러한 주장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동 우주기지가 미국의 우주활동과 군사동향의 감시 및 견제를 위해 쓰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우주기지 설립 이전부터 이에 대한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미국정부는 무엇보다 우주기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2개의 안테나를 문제 삼고 있다. 해당 안테나들은 정지궤도 위성(Geostationary Satellite) 모니터링, 원격 측정(Telemetry)과 더불어 위성 신호를 차단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을 가진 안테나들은 위성과 우주선의 모니터링은 물론 전략무기 움직임과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으로 매우 민감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네우켄 주 우주기지의 군사적 용도에 대한 의혹은 더욱 커졌다. 나아가 중국 인민해방군총장비부(人民解放軍總裝備部) 산하의 중국위성발사측공계통부(中國衛星發射測控系統部)가 동 우주센터를 관할하며, 모든 관리 감독권을 실질적으로 중국정부가 소유하고 있다는 점이 네우켄 주 우주기지의 군사적 용도 가능성을 뒷받침했다.⁸¹⁾

또한 미국정부는 네우켄 주 우주기지가 미국의 우주 패권에 대한 중국의 도전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2019년 2월 12일 미 의회에서 크레이그 폴러(Craig

80) “Estación espacial en Neuquén: el Gobierno ratificó que seguirá adelante el polémico acuerdo con China”(2020. 2. 17), <https://www.infobae.com/politica/2020/02/17/estacion-espacial-en-neuquen-el-gobierno-ratifico-que-seguira-adelante-el-polemico-acuerdo-con-china/>(검색일: 2020. 9. 8).

81) 이러한 의혹에 대해 중국과 아르헨티나 측은 네우켄 주 우주기지는 2012년 유럽우주국(ESA: European Space Agency)이 아르헨티나 멘도사(Mendoza) 주에 심우주(Deep Space) 탐사 프로젝트를 위해 설립한 우주기지 및 안테나와 다를 바 없는 민간 우주 탐사용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 측은 멘도사 주의 우주기지는 중국처럼 군(軍) 산하기관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아니며, 대다수의 직원이 아르헨티나인이라는 점에서 네우켄 주의 우주기지와는 달리 철저히 민간우주탐사 성격을 띠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China Builds Space-Monitoring Base in the Americas”; “La “polémica” base china estará lista en marzo”; “Estación espacial en Neuquén: el Gobierno ratificó que seguirá adelante el polémico acuerdo con China”(모든 온라인 자료의 검색일: 2020. 9. 8).

Faller) 미국 남부사령부 사령관은 중국이 우주기지를 통해 미국과 동맹국들의 우주 활동과 관련 물체들을 감시할 수 있으며,⁸²⁾ 특히 메인기지에 설치된 대형 안테나를 통해 미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의 위성을 무제한으로 도청하고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⁸³⁾ 즉 어떠한 목적이든 고감도의 신호를 탐지할 수 있는 안테나를 미주 대륙 내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 미국은 이를 안보의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 측의 비판에 대해 아르헨티나 정부는 우주기지에 설치된 안테나 사용시간의 10%를 보장받았다는 점에서 네우켄 주 우주센터는 궁극적으로 아르헨티나 국내 과학연구 프로젝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2019년 12월에 취임한 친중 성향의 아르헨티나 알베르토 페르난데스(Alberto Fernández) 대통령은 네우켄 주 우주기지 건립을 위해 2014년 체결한 중국·아르헨티나 우주개발협정의 심화와 중국과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7. 멕시코 통신 인프라 공유 네트워크와 AT&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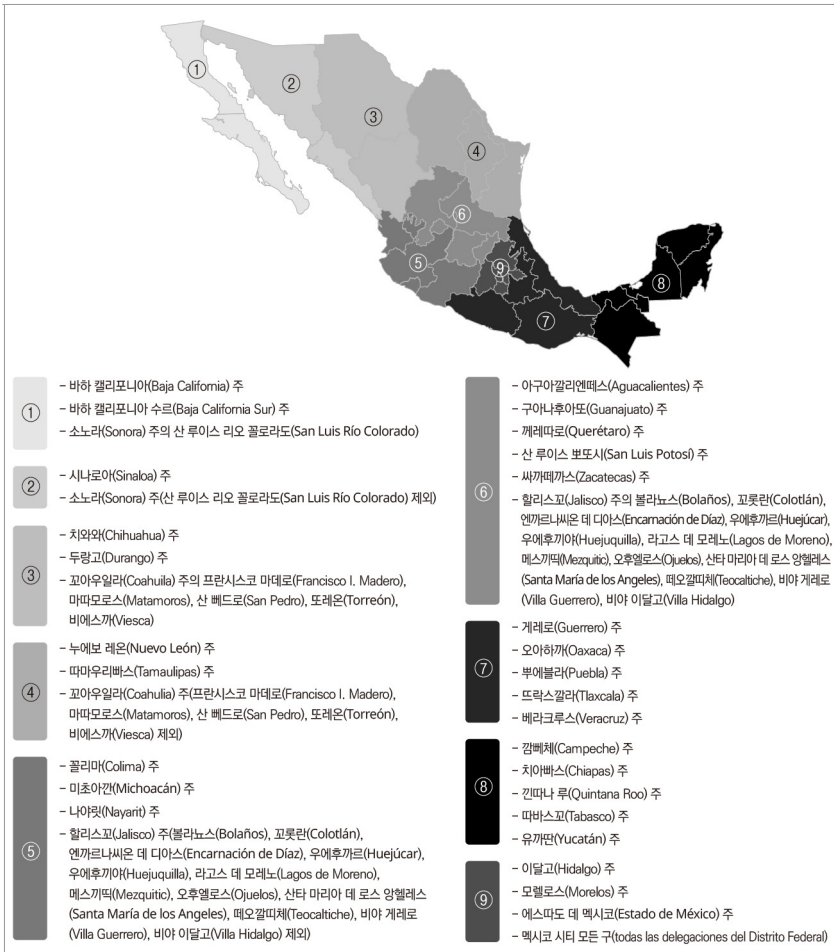
멕시코의 공유 네트워크(Red Compartida) 프로젝트는 민관합작투자사업으로서 자국 이동통신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비스 제공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이동통신 부문의 개혁이었다. 2016년 동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된 Altán Redes 컨소시엄은 전국 이동통신망을 구축하며 2018년 3월 21일부터 통신망 운영을 시작했다. Altán은 이에 필요한 통신장비를 제공하는 기술 파트너로 2017년 화웨이와 노키아를 선정하였는데, 노키아는 미국의 국경에 접하는 멕시코 북부 지역(지역 1~5), 화웨이는 멕시코 중남부 지역(지역 6~9)에 필요한 이동통신 장

82) "Stargazing: China's Argentina complex raises sky-high fears"(2019. 4. 5), <https://www.wilsoncenter.org/blog-post/stargazing-chinas-argentina-complex-raises-sky-high-fears> (검색일: 2020. 9. 16).

83) Infobae(2020. 2. 17), *op. cit.*

비를 공급하기로 결정되었다(그림 3-4 참고). 뿐만 아니라 노키아는 멕시코 기간망(Backbone Network), 코어망(Core Network), 네트워크 운영센터 및 보안센터를 관리하게 되었는데, 이로써 멕시코 네트워크의 중앙 시스템과 미국과 국경을 접하는 지역과 같은 민감한 부문에서 화웨이는 제외되었다.

그림 3-4. 멕시코 공유 네트워크 프로젝트 지역구분



자료: Secretaria de Hacienda y Credito Publico(2018), p. 39.

미국은 공유 네트워크 프로젝트 초반부터 중국 측의 참여 가능성에 대해서 면밀히 주시하고 있었고, 2016년 미국 국무부는 멕시코 통신교통 사무국(SCT: Secretaría de Comunicaciones y Transportes)과 두 차례에 걸쳐 회동하여 화웨이의 동 프로젝트 참여에 대한 우려를 표하였다. 또한 2016년 말 미국 국무부는 멕시코 통신 산업을 규제하는 기관인 연방방송통신기관(IFT: Instituto Federal de Telecomunicaciones de México)을 향해 ‘화웨이가 미국 국경에서 멕시코의 네트워크를 담당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였다.⁸⁴⁾ 이러한 사실에 근거할 때 멕시코의 공유 네트워크 프로젝트에서 Altán이 화웨이를 민감한 영역에서 제외하였던 결정들은 미국의 영향을 배제한 채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그러나 화웨이를 배제시키려는 미국의 노골적인 압박에도 불구하고 화웨이는 중남미에서 입지를 다져가는 것처럼 보인다. 공유 네트워크 프로젝트에서 기술 파트너 선정 이후 Altán은 화웨이의 속도, 노동력, 기술적 정교함과 같은 장점을 고려하여 원래 노키아가 맡기로 계획했던 미국과 국경을 접하지 않는 탐피코(Tampico)시, 토레온(Torreón)시, 쿨리아칸(Culiacán)시와 같은 멕시코 북부지역을 화웨이가 담당하도록 조정했다. Altán은 이 세 지역의 경우 본래 화웨이가 담당하기로 결정되어 있었다고 밝혔지만, 이러한 재조정엔 멕시코 내 화웨이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⁸⁵⁾

멕시코 내에서 화웨이를 둘러싼 미·중 간 갈등은 AT&T의 사례에서도 추측해볼 수 있다. 2014년 말 AT&T는 멕시코 시장에 진출하면서 기존 업체인 유사셀(Iusacell)과 넥스텔 멕시코(Nextel Mexico)를 인수했다. 두 통신 업체 모두 인수 이전부터 화웨이의 통신장비에 의존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AT&T

84) El financiero(2019. 5. 9), “Mientras en EU está en ‘guerra’, Huawei se abre camino en México,” <https://www.elfinanciero.com.mx/tech/mientras-en-eu-esta-en-guerra-huawei-se-abre-camino-en-mexico>(검색일: 2020. 7. 27).

85) Forbes(2019. 5. 9), “México, ‘bastión’ de Huawei contra campaña de Estados Unidos,” <https://www.forbes.com.mx/mexico-bastion-de-huawei-contra-campana-de-estados-unidos/>(검색일: 2020. 7. 31).

는 인수 후에도 4G를 포함한 상당수의 이동통신 기지국에서 화웨이 장비를 사용해왔다. AT&T가 화웨이 장비를 교체할 수 없었던 이유로는 첫째, 이미 화웨이 모뎀이 상당수의 통신탑에서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는 것은 AT&T 측에 상당한 비용적인 부담이었기 때문이며,⁸⁶⁾ 둘째, 독보적인 가격 경쟁력으로 시장 공략을 이어가는 화웨이의 전략이 AT&T에도 통했기 때문이다.⁸⁷⁾ 그러나 트럼프 정부의 화웨이 견제가 점차 심화되면서 AT&T는 정부의 뜻에 따라 향후 멕시코 5G 이동통신망 구축에 있어서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⁸⁸⁾

한편 중남미 내 최대 이동통신사인 아메리카 모빌(América Móvil)을 보유하며 중남미 통신 분야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멕시코 입장에서는 화웨이를 시장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하나의 리스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멕시코 정부는 화웨이 문제와 관련해 신중한 모습을 보여 왔다. 그러나 향후 5G 이동통신망 구축사업에서 AT&T가 화웨이 장비를 배제하는 움직임을 보인다면 앞으로 멕시코 통신시장에서 화웨이의 입지가 줄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86) "The U.S. Wants to Ban Huawei. But in Some Places, AT&T Relies On It"(2019. 4. 16), <http://www.wsj.com/articles/the-u-s-wants-to-ban-huawei-at-t-mexico-relies-on-it-11555407001>(검색일: 2020. 9. 23).

87) La Política Online(2019. 4. 17), "Pese a las advertencias de EU la influencia de Huawei en la red mexicana crece," <https://www.lapoliticaonline.com.mx/nota/121773-pese-a-las-advertencias-de-eu-la-influencia-de-huawei-en-la-red-mexicana-crece/>(검색일: 2020. 9. 22).

88) Fierce Wireless(2019. 4. 16), "AT&T may phase out Huawei equipment in network upgrades in Mexico," <https://www.fiercewireless.com/wireless/at-t-may-phase-out-huawei-equipment-network-upgrades-mexico/>(검색일: 2020. 9. 22).

8. 브라질 5G 구축사업 국제입찰 연기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은 브라질 경제의 주요 부문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국에 대해 대선 과정에서 강하게 비판했고, 2018년 3월에는 대만을 방문하며 브라질 외교관계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취임 이후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친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브라질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이 브라질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며 경제적으로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실용주의 노선을 택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브라질 정부의 고민은 브라질 5G 이동통신망 구축사업을 둘러싼 미·중 간 갈등에서도 일부 드러나는 것처럼 보인다.

브라질 정부는 무역전쟁을 넘어 기술 패권 차지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5G 이동통신 부문에서 큰 압박을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 정부가 5G 구축사업을 추진할 때부터 보우소나루 대통령에게 화웨이를 배제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취임 후 첫 정상회담으로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 두 정상 사이에서 화웨이와 관련한 대화가 오갔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가 브라질 통신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해가는 것에 대한 반감을 표명했음을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 측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2019년 11월 BRICS 정상회의 참석차 브라질을 방문한 시진핑 주석과 회담을 갖고 화웨이와 관련한 문제를 논의하였다. 그리고 며칠 뒤 화웨이 브라질 법인의 웨이 야오(Wei Yao) 최고경영자와 만남을 가졌다. 이후 2020년 1월 8일 마르코스 폰테스(Marcos Pontes) 브라질 과학기술부 장관은 5G 구축사업에서 미국정부의 화웨이 배제 압력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며, 철저히 제안서를 기반으로 입찰 결과를 발표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화웨이의 브라질 시장 진출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듯 보였던 브라질

정부는 올해 초로 예정되었던 5G 사업자 선정에 대한 국제입찰을 2022년으로 연기하였다. 폰테스 장관은 5G 구축에 필요한 인프라 부족으로 동 사업이 연기 되었다고 밝히고 있지만, 사실상 화웨이의 참여로 미국과 갈등이 야기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브라질 정부가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추측된다.⁸⁹⁾

이후 미국은 소위 당근과 채찍을 제시하면서 브라질 5G 구축사업에서 중국을 배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토드 채프먼(Todd Chapman) 주브라질 미국대사는 2020년 6월 한 인터뷰를 통해 브라질 정부가 5G 이동통신망 구축사업에서 화웨이를 배제하고 에릭슨, 노키아 등 다른 통신장비 업체의 5G 장비를 구매한다면 미국의 국제개발금융공사를 통해 동 사업에 금융 지원을 할 의사가 있다는 미국 측의 입장을 밝혔다.⁹⁰⁾ 또한 7월 29일에는 브라질이 5G 구축사업자로 화웨이를 선택하게 될 경우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브라질 정부에 보내기도 했다.⁹¹⁾ 이러한 미국의 압박에 대해 화웨이는 미국정부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 화웨이를 제거하려 하고 있고, 이는 브라질 5G 네트워크 구축을 지연시킬 것이라며 강력하게 미국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89) ambito(2020. 1. 14), "Trump se quejó y Bolsonaro dejó la licitación de 5G para 2022," <https://www.ambito.com/mundo/trump-se-quejo-y-bolsonaro-dejo-la-licitacion-5g-2022-n5076437>(검색일: 2020. 8. 10).

90) Folha de S.Paulo(2020. 6. 11), "Por 'segurança nacional', EUA já discutem crédito para 5G no Brasil, diz embaixador," <https://www1.folha.uol.com.br/mundo/2020/06/por-seguranca-nacional-eua-ja-discutem-credito-para-5g-no-brasil-diz-embaixador.shtml>(검색일: 2020. 8. 24).

91) "Brazil may face 'consequences' if it gives Huawei 5G access, says U.S. ambassador"(2020. 7. 29), <https://www.reuters.com/article/us-huawei-tech-brazil-5g/brazil-may-face-consequences-if-it-gives-huawei-5g-access-says-u-s-ambassador-idUSKCN24U20X>(검색일: 2020. 8. 24).

제4장



미·중 통상갈등이 중남미 주요국에 미친 영향

1. 미·중 통상갈등
2. 미·중 통상갈등이 중남미 주요국의 대미·대중 수출에 미친 영향
3. 미·중 통상갈등이 중남미 주요국의 후생에 미친 영향
4. 소결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 또는 충돌은 지역과 분야를 막론하고 곳곳에서 발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첨단기술을 둘러싸고 양 국가가 기술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벌이는 경쟁에서부터 중국의 홍콩보안법 통과로 인한 미국의 홍콩 특별지위 박탈 조치까지, 미·중 간 경쟁은 경제 부문을 넘어선 영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경쟁은 때로는 경쟁을 넘어서 갈등이나 전쟁이라는 용어로 표현될 만큼 그 정도가 심화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여러 부문에서 발발한 미·중 사이의 갈등 중 2018년 양국이 취한 관세부과 조치, 즉 미·중 통상갈등에 초점을 맞추어 이것이 중남미 국가들의 대미국과 대중국 수출 및 후생수준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무역확장법 제301조에 근거하여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관세, 그리고 이에 대응한 중국의 보복관세 조치가 중남미 국가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한다.

미국은 중남미 지역과의 지리적 근접성과 그 국가들의 경제적 의존성에 기반하여 오랜 기간 동안 중남미 국가들의 제1의 무역 상대국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⁹²⁾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과 중남미 국가 사이에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중국은 중남미 국가들의 중요한 무역 상대국으로서 중남미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2020a)에 따르면 중국과 중남미 국가들 사이의 무역규모는 2002년 170억 달러에서 2019년 3,150억 달러로 급성장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중국은 브라질, 칠레, 페루, 우루과이에서 제1의 무역 상대국이 되었다.⁹³⁾

이러한 배경에 더하여 최근 세계적으로 관찰되는 소위 미·중이라는 선택지를 두고 일어나는 양국의 압박을 고려할 때, 미·중 통상갈등이 중남미 국가들

92) 세계은행의 World Integrated Trade Solution(검색일: 2020. 8. 24)에 따르면 2018년 중남미 국가 전체가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금액은 전체 수입액의 32%, 미국으로 수출한 금액은 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남미 국가 전체의 대중국 수입액은 전체의 19%, 수출액은 12%를 기록하였다.

93) 중국이 중남미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주요 품목은 광석(Ores), 광물연료(Mineral fuels), 대두(Soybeans), 구리 등으로 구성된다(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2020a)).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는 것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남미 국가들이 어떠한 정책적 결정을 내릴 것인지 가늠해볼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중남미 국가들 관점에서 외생적인 충격이었던 2018년 미·중 통상갈등이 제3국에 미친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외생적인 미·중 간 갈등의 영향을 예상해볼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여기에서는 미·중 통상갈등이 중남미 주요 국가의 대미국, 대중국 수출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 갈등이 동 국가들의 후생에 미친 영향을 CGE 모형을 이용해 분석한다.

1. 미·중 통상갈등⁹⁴⁾

미국은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하여 2018년 3월 23일부터 한국, EU,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호주, 아르헨티나 등을 제외한 모든 국가의 철강 제품에 대해 25%, 알루미늄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중국은 견조과일, 견과류 등을 포함하는 120개 품목에 대해 15%, 돼지고기 및 가공식품, 재생 알루미늄 등을 포함하는 8개 품목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였다.

이후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 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역확장법 제 301조에 근거하여 총 세 차례에 걸쳐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였다. 2018년 7월 6일 발표된 미국의 1차 리스트에는 총 818개 품목이 포함되었고, 2018년 4월 23일 발표된 2차 리스트에는 279개, 2018년 9월 24일과 2019년 1월 1일에 발효된 3차 리스트에는 총 5,745개의 품목이 포함되었다.

미국의 이러한 관세부과 조치에 중국도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미국산 제품에

94) 미·중 통상갈등에 대한 자료는 그 양이 이미 방대한바, 여기에서는 신꽃비, 라미명, 권혁주(2018)의 내용을 요약하여 미국과 중국의 관세부과 조치에 대한 간략한 내용만을 소개한다.

대한 보복관세 조치를 단행하였다. 1차에서는 미국산 제품 545개 품목, 2차에서는 333개 품목, 3차에서는 총 5,207개 품목에 대해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였다. 미국과 중국의 상호 관세부과 조치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과 경과 는 아래의 [표 4-1]에서 정리하고 있다.

표 4-1. 미·중 간 상호 관세부과 조치 경과

구분	미국의 조치			중국의 대응		
	대상 품목	추가관세	발효일	대상 품목	추가관세	발효일
「무역확장법」 제232조	철강	25%	'18. 3. 23	1차: 120개 (9.8억 달러)	15%	'18. 4. 2
	알루미늄	10%	'18. 3. 23	2차: 8개 (19.9억 달러)	25%	'18. 4. 2
「무역확장법」 제301조	1차: 818개 (326억 달러)	25%	'18. 7. 6	1차: 545개 (338억 달러)	25%	'18. 7. 6
	2차: 279개 (136억 달러)	25%	'18. 8. 23	2차: 333개 (141억 달러)	25%	'18. 8. 23
	3차: 5,745개 (1,905억 달러)	10% 25%	'18. 9. 24 '19. 1. 1	3차: 5,207개 (534억 달러)	5% 또는 10%	'18. 9. 24

주: 괄호 안의 값은 각 국가의 관세부과 대상 품목에 대한 2017년 기준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을 나타냄.
자료: 신꽃비, 라미령, 권혁주(2018)의 [표 1]을 일부 수정하여 재인용.

미국의 「무역확장법」 제301조에 근거한 제1, 2차 대중 관세부과 품목은 HS 코드 2자리를 기준으로 할 때 대부분 기계 및 운송관련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에 미국의 제3차 관세부과 조치에서는 농산물, 화학물질, 광물, 기계 및 운송 관련 품목 등 앞선 두 조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관세를 부과하였다.

미국의 관세부과에 대응한 중국의 보복관세 부과 조치는 제1차에서 주로 육류, 농수산물, 식료품 등에 한정되었던 반면, 제2차에서는 목재, 광물, 운송 관련 품목 등에 관세를 부과하였다. 제3차에서는 HS코드 2자리를 기준으로 대부분 품목에 대해서 대미 관세를 부과하였다.

2. 미·중 통상갈등이 중남미 주요국의 대미·대중 수출에 미친 영향

2018년 미·중 통상갈등, 즉 양국간 대규모 관세부과 조치는 당사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다. 미·중 간 관세부과는 양 국가에서 각각 대미·대중 수입품의 가격을 상승시킴으로써 소비자의 소득이 감소하여 일어나는 결과, 즉 소득효과(income effect)를 야기하여 전 세계 무역량이 감소할 개연성이 있다. 이로 인하여 미국과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두 국가에 대한 수출량이 감소하여 무역수지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⁹⁵⁾

반면에 미국과 중국은 상호 관세부과로 이전보다 비싸진 재화를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하여 대체하고자 하는, 즉 수입 대체국가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으로의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양국간 관세부과로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이는 일종의 대체효과(substitute effect)로, 대미·대중 수출을 증가시킴으로써 소득효과가 야기한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중국의 중남미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전통적으로 미국 의존도가 높았던 중남미 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중남미를 둘러싼 이러한 환경변화는 미·중 간 통상갈등 속에서 전술한 부정적, 긍정적 영향이 더욱 복합적으로 작용하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중 간 관세부과 조치라는 외생적인 충격이 신흥지역 국가들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기여도와 차별성이 있다. 또한 중남미 국가들에 대한 미·중 통상갈등의 총 효과 또는 영향을 추정해 보는 것은 우리나라 또는 우리나라 기업의 중남미 진출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95) Amity, Redding, and Weinstein(2019)에 따르면 2018년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는 미국의 국내 가격에 완전히 반영되어 소비자와 수입업자에게 전가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관세부과로 인한 실질 소득의 감소는 2018년에 약 82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여기에서는 중남미 주요국들의 월별 무역 데이터를 활용하여 2018년 미·중 간 발발했던 관세부과 조치들이 동 국가들의 대미·대중 수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한다.

가. 데이터와 중남미 주요국의 대미·대중 수출 통계

2018년 일어난 미·중 간 통상갈등이 중남미 국가들의 대미·대중 수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UN Comtrade에서 제공하는 상품(Goods)에 대한 월별 수출액 데이터를 이용한다.⁹⁶⁾ 이외에도 실증분석 시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위해 미국과 중남미 국가들 사이의 환율, 미국과 중국의 환율, 각 국가들의 국내총생산(GDP) 등이 필요한데 동 데이터들은 CEIC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활용한다.

중남미 지역 내 경제규모를 기준으로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멕시코, 페루를 분석 대상 주요국으로 선정하였고, UN Comtrade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음 표에서(표 4-2~표 4-11) 이들 국가들의 대미·대중 수출액의 연도별 및 품목별 통계치를 제시하였다.⁹⁷⁾

2014년부터 2019년까지의 자료를 통해 아르헨티나의 대미국 수출액 통계를 살펴보면, 화학 관련 품목의 대미 수출이 동 기간 동안 연평균 6억 7천만 달러를 기록하여 전체의 19.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 뒤를 이어 식료품 관련 품목(15.6%, 5억 4천만 달러), 광물 관련 품목(14.9%, 5억 1천만 달러), 농산물(13.3%, 4억 5천만 달러), 금속관련 품목(10.7%, 3억 7천만 달러)의 순서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아르헨티나의 대중국 수출은 농산물과 동물 관련 품목에 집중되어 있다. 중국에 대한 전체 수출 중 63.0%가 농산물, 23.0%가 동물 관련 품목이었으며 수출액 기준으로는 각각 매년 평균 29억 달러, 10.7억 달러를 수출하였다.

96) 코로나19라는 외생적인 충격을 배제하기 위해서 2020년 데이터는 분석에서 활용하지 않는다.

97) 콜롬비아의 경우 2015년과 2019년의 월별 수출액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아 동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표 4-2. 아르헨티나의 연도별/품목별 대미국 수출액

(단위: 백만 달러)

구분	Animal, Animal product	Vegetable product	Foodstuffs	Mineral products	Chemicals	Plastics, Rubbers	Raw Hides, Skins, Furs	Wood, Wood products	Textiles	Footwear, Headgear	Stone, Glass	Metal	Machinery, Electrical	Transportation
2014	285.47	493.31	610.32	1,064.67	453.72	50.92	121.23	35.17	5.51	1.34	101.43	505.08	124.47	197.94
2015	249.98	505.15	589.96	385.74	743.10	51.32	107.20	33.55	4.74	1.40	142.96	315.55	123.44	144.17
2016	231.49	471.90	572.27	307.26	1,503.43	59.41	72.33	51.56	5.06	0.92	168.38	455.39	123.94	421.07
2017	267.02	532.42	511.43	308.77	1,069.73	79.08	74.16	51.94	3.19	20.04	163.61	748.94	129.34	518.27
2018	209.58	380.80	484.80	605.50	170.32	22.33	54.35	38.38	0.11	0.15	185.05	164.14	99.25	29.17
2019	210.23	338.02	441.51	388.06	102.70	10.04	41.41	44.67	0.03	0.04	37.74	14.53	89.77	5.10
평균	242.30	453.60	535.05	510.00	673.84	45.51	78.45	42.55	3.11	3.98	133.19	367.27	115.03	219.28
비중	7.1%	13.3%	15.6%	14.9%	19.7%	1.3%	2.3%	1.2%	0.1%	0.1%	3.9%	10.7%	3.4%	6.4%

주: 1) 평균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수출액의 평균을 나타냄.

2) 비중은 평균의 전체 합에서 각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3) 품목별 분류는 HS코드 첫 2자리를 기준으로 분류하였고 HS코드 90번 이상의 기타항목의 품목은 제외하였음(Animal, Animal product: 1-5, Vegetable product: 6-15, Foodstuffs: 16-24, Mineral products: 25-27, Chemicals: 28-38, Plastics, Rubbers: 39-40, Raw. Hides, Skins, Furs: 41-43, Wood, Wood products: 44-49, Textiles: 50-63, Footwear, Headgear: 64-67, Stone, Glass: 68-71, Metal: 72-83, Machinery, Electrical: 84-85, Transportation: 86-89).

자료: UN Comtrade 자료(최종 검색일: 2020. 5. 31)를 기초로 저자 작성.

표 4-3. 아르헨티나의 연도별/품목별 대중국 수출액

구분	(단위: 백만 달러)													
	Animal, Animal product	Vegetable product	Foodstuffs	Mineral products	Chemicals	Plastics, Rubbers	Raw Hides, Skins, Furs	Wood, Wood products	Textiles	Footwear, Headgear	Stone, Glass	Metal	Machinery, Electrical	Transportation
2014	370.92	3,468.57	132.91	138.54	109.51	20.14	109.66	32.68	58.74	0.03	0.02	4.86	10.14	2.46
2015	491.70	4,040.44	100.59	178.82	101.57	16.26	98.52	21.58	51.73	0.07	0.002	7.72	6.06	58.35
2016	614.84	2,997.47	111.01	398.65	100.99	20.48	78.39	34.20	65.73	0.09	0.03	1.58	5.13	4.55
2017	815.52	2,516.62	117.42	492.29	111.00	8.99	88.83	84.35	50.32	19.35	0.01	9.58	7.35	2.60
2018	1,442.25	1,409.22	55.20	119.37	32.83	2.59	87.73	22.67	42.87	0.01	0.02	0.58	0.62	0.39
2019	2,707.30	3,237.45	78.37	-	2.71	0.001	72.77	25.77	53.92	-	-	0.01	0.04	-
평균	1,073.76	2,944.96	99.25	265.53	76.44	11.41	89.32	36.88	53.89	3.91	0.02	4.06	4.89	13.67
비중	23.0%	63.0%	2.1%	5.7%	1.6%	0.2%	1.9%	0.8%	1.2%	0.1%	0.0%	0.1%	0.1%	0.3%

주: 1) 평균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수출액의 평균을 나타냄.

2) 비중은 평균의 전체 합에서 각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3) 품목별 분류는 HS코드 첫 2자리를 기준으로 분류하였고 HS코드 90번 이상의 기타항목의 품목은 제외하였음(Animal, Animal product: 1-5, Vegetable product: 6-15, Foodstuffs: 16-24, Mineral products: 25-27, Chemicals: 28-38, Plastics, Rubbers: 39-40, Raw, Hides, Skins, Furs: 41-43, Wood, Wood products: 44-49, Textiles: 50-63, Footwear, Headgear: 64-67, Stone, Glass: 68-71, Metal: 72-83, Machinery, Electrical: 84-85, Transportation: 86-89).

자료: UN Comtrade 자료(최종 검색일: 2020. 5. 31)를 기초로 저자 작성.

브라질의 대미국 수출은 2014년부터 2019년 사이 연평균 수출액 기준으로 전자 기기 및 기계류 관련 품목 수출이 47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하여 전체 수출에서 18.3%를 차지하였다. 그 뒤를 이어 금속 관련 품목이 16.0%(41억 6천만 달러), 광물 관련 품목이 13.9%(36억 달러), 운송장비 관련 품목이 12.0%(31억 2천만 달러)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에 대한 브라질의 수출은 농산물과 광물 관련 품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농산물의 연평균 대중 수출은 195억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40.9%를 차지하였고, 광물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은 190억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39.8%를 차지하였다.

칠레의 대미 주요 수출 품목은 금속, 농산물, 동물 관련 품목들로 구성된다. 금속 관련 품목은 연평균 25억 9천만 달러를 수출하여 전체 수출액의 27.9%를 차지하였고, 그 뒤를 이어 농산물 관련 품목이 21.8%(20억 6천만 달러), 동물 관련 품목이 19.0%(17억 6천만 달러)를 차지하였다. 한편 칠레의 대중 주요 수출 품목은 금속과 광물 관련 품목으로 전체 수출액에서 각각 40.5%(80억 1천만 달러)와 38.8%(76억 7천만 달러)를 차지하는 것으로 기록되었다.

멕시코의 대미 수출은 전자기기 및 기계류, 운송장비 관련 품목에 집중되어 있는데 전자기기 및 기계류 품목은 연평균 1,206억 달러를 수출하여 전체 수출액의 45.7%, 운송장비 관련 품목은 연평균 760억 달러를 수출하여 전체의 28.8%를 차지하였다. 멕시코의 대중 주요 수출 품목은 광물, 운송 장비, 전자기기 및 기계류 관련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비중 및 연평균 수출액은 광물 관련 품목이 39.4%(17억 9천만 달러), 운송 장비 관련 품목이 28.3%(12억 8천만 달러), 전자기기 및 기계류 관련 품목이 18.9%(8억 5천만 달러)로 나타났다.

표 4-4. 브라질의 연도별/품목별 대미국 수출액

(단위: 백만 달러)

구분	Animal, Animal product	Vegetable product	Foodstuffs	Mineral products	Chemicals	Plastics, Rubbers	Raw Hides, Skins, Furs	Wood, Wood products	Textiles	Footwear, Headgear	Stone, Glass	Metal	Machinery, Electrical	Transportation
2014	213.96	2,035.47	1,917.94	4,076.48	1,666.42	621.91	340.68	2,081.25	136.59	202.06	1,208.35	4,791.16	4,371.83	2,640.78
2015	213.20	1,565.56	1,889.21	2,572.80	1,315.90	611.38	276.71	2,111.68	128.19	200.91	1,270.99	3,785.25	3,989.96	3,492.04
2016	248.56	1,261.26	1,965.52	1,751.49	1,425.78	819.00	279.18	2,014.63	122.14	230.65	1,475.41	2,808.32	4,343.65	3,781.55
2017	374.43	1,217.30	2,070.39	3,412.69	1,723.47	888.82	319.18	2,254.09	111.77	199.71	1,578.17	3,912.47	5,096.99	3,088.07
2018	328.50	1,085.32	2,122.00	4,381.96	1,919.69	858.87	269.97	2,500.47	85.74	178.50	1,272.51	4,863.62	5,571.03	2,815.74
2019	347.49	1,240.11	2,141.35	5,389.38	1,766.49	873.21	228.37	2,608.65	86.77	209.23	1,069.20	4,780.03	5,145.11	2,924.13
평균	287.69	1,400.84	2,017.73	3,597.47	1,636.29	778.87	285.68	2,261.79	111.87	203.51	1,312.44	4,156.81	4,753.09	3,123.72
비중	1.1%	5.4%	7.8%	13.9%	6.3%	3.0%	1.1%	8.7%	0.4%	0.8%	5.1%	16.0%	18.3%	12.0%

주: 1) 평균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수출액의 평균을 나타냄.

2) 비중은 평균의 전체 합에서 각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3) 품목별 분류는 HS코드 첫 2자리를 기준으로 분류하였고 HS코드 90번 이상의 기타항목의 품목은 제외하였음(Animal, Animal product: 1-5, Vegetable product: 6-15, Foodstuffs: 16-24, Mineral products: 25-27, Chemicals: 28-38, Plastics, Rubbers: 39-40, Raw, Hides, Skins, Furs: 41-43, Wood, Wood products: 44-49, Textiles: 50-63, Footwear, Headgear: 64-67, Stone, Glass: 68-71, Metal: 72-83, Machinery, Electrical: 84-85, Transportation: 86-89).

자료: UN Comtrade 자료(최종 검색일: 2020. 5. 31)를 기초로 저자 작성.

표 4-5. 브라질의 연도별/품목별 대중국 수출액

(단위: 백만 달러)

구분	Animal, Animal product	Vegetable product	Foodstuffs	Mineral products	Chemicals	Plastics, Rubbers	Raw Hides, Skins, Furs	Wood, Wood products	Textiles	Footwear, Headgear	Stone, Glass	Metal	Machinery, Electrical	Transportation
2014	532.64	17,065.6	1,367.36	16,332.2	388.61	225.17	827.30	1,884.73	375.36	5.52	47.55	945.43	346.41	201.86
2015	1,105.74	16,090.1	1,176.46	11,125.7	226.88	256.39	622.24	2,057.69	199.85	4.95	72.01	1,332.48	676.02	605.07
2016	1,769.35	14,697.6	1,222.78	11,786.4	167.14	193.21	572.66	2,412.05	113.98	6.26	43.04	999.98	715.64	365.20
2017	1,802.36	20,692.1	524.16	18,427.3	357.96	199.55	524.12	2,833.89	150.25	12.10	41.24	950.98	504.84	417.83
2018	2,619.40	27,740.5	539.20	26,238.2	327.23	235.46	367.56	3,749.06	522.52	9.14	44.99	1,333.90	334.02	103.14
2019	4,587.51	20,792.2	907.78	30,059.0	244.53	219.81	292.91	3,481.70	859.08	10.62	38.28	1,551.97	276.65	12.08
평균	2,069.50	19,513.0	956.29	18,994.8	285.39	221.60	534.47	2,736.52	370.17	8.10	47.85	1,185.79	475.60	284.20
비중	4.3%	40.9%	2.0%	39.8%	0.6%	0.5%	1.1%	5.7%	0.8%	0.0%	0.1%	2.5%	1.0%	0.6%

주: 1) 평균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수출액의 평균을 나타냄.

2) 비중은 평균의 전체 합에서 각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3) 품목별 분류는 HS코드 첫 2자리를 기준으로 분류하였고 HS코드 90번 이상의 기타항목의 품목은 제외하였음(Animal, Animal product: 1-5, Vegetable product: 6-15, Foodstuffs: 16-24, Mineral products: 25-27, Chemicals: 28-38, Plastics, Rubbers: 39-40, Raw, Hides, Skins, Furs: 41-43, Wood, Wood products: 44-49, Textiles: 50-63, Footwear, Headgear: 64-67, Stone, Glass: 68-71, Metal: 72-83, Machinery, Electrical: 84-85, Transportation: 86-89).

자료: UN Comtrade 자료(최종 검색일: 2020. 5. 31)를 기초로 저자 작성.

표 4-6. 칠레의 연도별/품목별 대미국 수출액

(단위: 백만 달러)

구분	Animal, Animal product	Vegetable product	Foodstuffs	Mineral products	Chemicals	Plastics, Rubbers	Raw Hides, Skins, Furs	Wood, Wood products	Textiles	Footwear, Headgear	Stone, Glass	Metal	Machinery, Electrical	Transportation
2014	1,556.00	2,168.20	579.02	227.35	390.53	412.89	1.03	807.08	15.49	0.53	154.90	2,507.31	387.26	35.04
2015	1,424.11	1,927.91	581.77	234.93	378.53	432.53	0.66	841.25	15.83	0.03	101.41	1,962.14	219.38	39.09
2016	1,627.32	2,223.40	567.71	200.26	317.99	319.69	0.98	870.34	19.37	0.25	106.94	1,946.31	222.96	29.84
2017	1,854.06	1,967.87	555.88	273.05	289.60	302.44	1.40	850.00	20.22	0.20	396.10	3,320.70	185.72	22.04
2018	2,058.81	2,038.12	571.27	264.96	380.53	286.97	0.60	997.51	19.35	0.17	474.28	3,127.23	184.68	39.33
2019	2,059.95	1,828.60	534.80	227.31	383.24	304.31	0.75	932.62	20.48	0.30	255.02	2,702.64	197.74	32.11
평균	1,763.37	2,025.68	565.08	237.98	356.74	343.14	0.90	883.13	18.46	0.25	248.11	2,594.39	232.96	32.91
비중	19.0%	21.8%	6.1%	2.6%	3.8%	3.7%	0.0%	9.5%	0.2%	0.0%	2.7%	27.9%	2.5%	0.4%

주: 1) 평균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수출액의 평균을 나타냄. 2) 비중은 평균의 전체 합에서 각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3) 품목별 분류는 HS코드 첫 2자리를 기준으로 분류하였고 HS코드 90번 이상의 기타항목의 품목은 제외하였음. (Animal, Animal product: 1-5, Vegetable product: 6-15, Foodstuffs: 16-24, Mineral products: 25-27, Chemicals: 28-38, Plastics, Rubbers: 39-40, Raw, Hides, Skins, Furs: 41-43, Wood, Wood products: 44-49, Textiles: 50-63, Footwear, Headgear: 64-67, Stone, Glass: 68-71, Metal: 72-83, Machinery, Electrical: 84-85, Transportation: 86-89)

자료: UN Comtrade 자료(최종 검색일: 2020. 5. 31)를 기초로 저자 작성.

표 4-7. 칠레의 연도별/품목별 대중국 수출액

(단위: 백만 달러)

구분	Animal, Animal product	Vegetable product	Foodstuffs	Mineral products	Chemicals	Plastics, Rubbers	Raw Hides, Skins, Furs	Wood, Wood products	Textiles	Footwear, Headgear	Stone, Glass	Metal	Machinery, Electrical	Transportation
2014	276.60	807.98	313.75	6,000.67	236.45	5.09	20.26	1,428.20	15.13	0.33	0.02	9,062.20	21.05	3.50
2015	321.90	795.73	343.34	5,239.09	169.57	5.37	18.66	1,252.05	16.52	0.11	0.01	8,048.37	6.63	1.43
2016	444.05	1,221.80	350.44	6,427.98	198.83	5.85	11.43	1,439.29	7.21	0.11	0.12	7,233.26	8.04	0.09
2017	448.20	987.27	448.65	7,269.64	316.29	4.28	12.19	1,620.44	9.23	0.05	0.26	7,775.03	5.00	1.64
2018	571.71	1,508.44	511.06	10,791.6	277.16	6.04	10.87	2,360.84	14.73	0.01	0.05	9,238.56	17.73	0.700
2019	825.47	2,072.17	460.33	10,284.2	346.02	3.34	8.89	1,831.63	12.34	0.03	1.29	6,698.37	10.49	15.41
평균	481.32	1,232.23	404.59	7,688.87	257.39	5.00	13.72	1,655.41	12.52	0.11	0.29	8,009.30	11.49	3.80
비중	2.4%	6.2%	2.0%	38.8%	1.3%	0.0%	0.1%	8.4%	0.1%	0.0%	0.0%	40.5%	0.1%	0.0%

주: 1) 평균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수출액의 평균을 나타냄.

2) 비중은 평균의 전체 합에서 각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3) 품목별 분류는 HS코드 첫 2자만을 기준으로 분류하였고 HS코드 90번 이상의 기타항목의 품목은 제외하였음(Animal, Animal product: 1-5, Vegetable product: 6-15, Foodstuffs: 16-24, Mineral products: 25-27, Chemicals: 28-38, Plastics, Rubbers: 39-40, Raw, Hides, Skins, Furs: 41-43, Wood, Wood products: 44-49, Textiles: 50-63, Footwear, Headgear: 64-67, Stone, Glass: 68-71, Metal: 72-83, Machinery, Electrical: 84-85, Transportation: 86-89).

자료: UN Comtrade 자료(최종 검색일: 2020. 5. 31)를 기초로 저자 작성.

표 4-8. 멕시코의 연도별/품목별 대미국 수출액

구분	(단위: 백만 달러)													
	Animal, Animal product	Vegetable product	Foodstuffs	Mineral products	Chemicals	Plastics, Rubbers	Raw Hides, Skins, Furs	Wood, Wood products	Textiles	Footwear, Headgear	Stone, Glass	Metal	Machinery, Electrical	Transportation
2014	1,298.18	8,183.11	6,991.8	28,459.2	3,259.30	7,875.91	497.94	1,640.87	5,735.10	619.25	7,048.95	10,400.3	120,741.8	66,524.6
2015	1,357.23	7,552.09	5,863.5	10,217.8	2,614.46	6,698.10	419.61	1,382.16	4,598.83	499.56	5,574.59	8,183.1	100,297.3	59,726.0
2016	1,955.22	10,588.8	7,664.6	8,404.7	3,252.87	8,193.80	398.39	1,645.44	5,361.03	554.36	5,878.20	9,701.7	119,476.6	68,941.2
2017	2,065.88	11,522.1	9,478.0	12,221.2	3,373.10	8,706.11	365.19	1,781.89	5,330.10	571.56	5,907.28	10,528.0	125,472.2	77,854.2
2018	2,002.28	12,263.1	10,137.6	3,179.7	3,617.76	9,549.14	481.95	1,813.24	5,488.57	641.59	6,157.09	11,391.1	133,166.4	91,763.9
2019	1,887.51	12,502.7	10,325.1	798.67	3,534.43	8,768.68	400.63	1,728.67	5,099.02	577.31	6,856.35	10,663.8	124,632.2	91,408.2
평균	1,761.05	10,437.0	8,410.1	10,546.9	3,275.32	8,298.62	427.28	1,665.38	5,268.77	577.27	6,237.08	10,144.7	120,631.1	76,036.4
비중	0.7%	4.0%	3.2%	4.0%	1.2%	3.1%	0.2%	0.6%	2.0%	0.2%	2.4%	3.8%	45.7%	28.6%

주: 1) 평균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수출액의 평균을 나타냄.

2) 비중은 평균의 전체 합에서 각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3) 품목별 분류는 HS코드 첫 2자리를 기준으로 분류하였고 HS코드 90번 이상의 기타항목의 품목은 제외하였음(Animal, Animal product: 1-5, Vegetable product: 6-15, Foodstuffs: 16-24, Mineral products: 25-27, Chemicals: 28-38, Plastics, Rubbers: 39-40, Raw, Hides, Skins, Furs: 41-43, Wood, Wood products: 44-49, Textiles: 50-63, Footwear, Headgear: 64-67, Stone, Glass: 68-71, Metal: 72-83, Machinery, Electrical: 84-85, Transportation: 86-89).

자료: UN Comtrade 자료(최종 검색일: 2020. 5. 31)를 기초로 저자 작성.

표 4-9. 멕시코의 연도별/품목별 대중국 수출액

(단위: 백만 달러)

구분	Animal, Animal product	Vegetable product	Foodstuffs	Mineral products	Chemicals	Plastics, Rubbers	Raw Hides, Skins, Furs	Wood, Wood products	Textiles	Footwear, Headgear	Stone, Glass	Metal	Machinery, Electrical	Transportation
2014	1.37	1.94	11.92	1,681.49	0.68	121.04	3.36	18.42	17.47	-	0.10	330.38	506.68	1,985.00
2015	1.34	18.40	2.12	977.36	0.22	79.79	7.09	13.59	9.46	-	0.13	206.11	516.36	1,055.72
2016	-	10.23	23.68	1,469.74	0.59	81.52	7.09	13.80	8.28	-	2.17	249.88	998.81	1,069.31
2017	0.71	13.62	111.01	2,050.76	1.53	82.11	34.25	22.40	5.53	-	1.05	439.20	1,377.46	1,083.41
2018	29.48	45.30	223.29	2,326.91	0.62	86.68	55.94	6.73	17.97	-	1.42	602.80	903.17	1,361.19
2019	108.61	86.10	106.57	2,211.62	1.58	108.83	19.51	1.11	16.08	-	6.90	146.34	827.16	1,141.13
평균	28.30	29.26	79.77	1,786.31	0.87	93.33	21.21	12.67	12.47	-	1.96	329.12	854.94	1,282.63
비중	0.6%	0.6%	1.8%	39.4%	0.0%	2.1%	0.5%	0.3%	0.3%	-	0.0%	7.3%	18.9%	28.3%

주: 1) 평균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수출액의 평균을 나타냄.

2) 비중은 평균의 전체 합에서 각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3) 품목별 분류는 HS코드 첫 2자리를 기준으로 분류하였고 HS코드 90번 이상의 기타항목의 품목은 제외하였음(Animal, Animal product: 1-5, Vegetable product: 6-15, Foodstuffs: 16-24, Mineral products: 25-27, Chemicals: 28-38, Plastics, Rubbers: 39-40, Raw, Hides, Skins, Furs: 41-43, Wood, Wood products: 44-49, Textiles: 50-63, Footwear, Headgear: 64-67, Stone, Glass: 68-71, Metal: 72-83, Machinery, Electrical: 84-85, Transportation: 86-89).

자료: UN Comtrade 자료(최종 검색일: 2020. 5. 31)를 기초로 저자 작성.

표 4-10. 페루의 연도별/품목별 대미국 수출액

구분	(단위: 백만 달러)													
	Animal, Animal product	Vegetable product	Foodstuffs	Mineral products	Chemicals	Plastics, Rubbers	Raw Hides, Skins, Furs	Wood, Wood products	Textiles	Footwear, Headgear	Stone, Glass	Metal	Machinery, Electrical	Transportation
2014	230.05	1,237.72	321.05	1,798.84	34.17	69.26	2.92	30.63	664.27	4.77	1,127.11	597.30	88.43	21.87
2015	216.66	1,351.83	338.87	817.48	43.14	55.69	2.57	26.47	606.02	5.61	1,109.75	351.36	113.24	19.50
2016	214.13	1,470.96	354.55	811.86	52.22	58.54	2.61	23.79	607.43	5.93	2,124.92	482.68	77.35	12.69
2017	241.74	1,571.43	373.35	1,151.27	47.91	67.25	2.76	12.67	630.75	6.82	2,123.27	584.01	68.09	35.59
2018	255.51	1,749.41	350.73	2,021.77	45.99	81.56	3.51	15.19	682.04	8.16	2,050.87	570.64	81.26	58.90
2019	32.41	359.64	66.40	182.31	11.09	15.18	0.34	2.04	122.66	0.99	68.32	70.26	18.95	5.76
평균	198.42	1,290.16	300.82	1,130.59	39.09	57.91	2.45	18.46	552.19	5.38	1,434.04	442.71	74.55	25.72
비중	3.6%	23.2%	5.4%	20.3%	0.7%	1.0%	0.0%	0.3%	9.9%	0.1%	25.7%	7.9%	1.3%	0.5%

주: 1) 평균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수출액의 평균을 나타냄.

2) 비중은 평균의 전체 합에서 각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3) 품목별 분류는 HS코드 첫 2자리를 기준으로 분류하였고 HS코드 90번 이상의 기타항목의 품목은 제외하였음(Animal, Animal product: 1-5, Vegetable product: 6-15, Foodstuffs: 16-24, Mineral products: 25-27, Chemicals: 28-38, Plastics, Rubbers: 39-40, Raw, Hides, Skins, Furs: 41-43, Wood, Wood products: 44-49, Textiles: 50-63, Footwear, Headgear: 64-67, Stone, Glass: 68-71, Metal: 72-83, Machinery, Electrical: 84-85, Transportation: 86-89).

자료: UN Comtrade 자료(최종 검색일: 2020. 5. 31)를 기초로 저자 작성.

표 4-11. 페루의 연도별/품목별 대중국 수출액

(단위: 백만 달러)

구분	Animal, Animal product	Vegetable product	Foodstuffs	Mineral products	Chemicals	Plastics, Rubbers	Raw Hides, Skins, Furs	Wood, Wood products	Textiles	Footwear, Headgear	Stone, Glass	Metal	Machinery, Electrical	Transportation
2014	33.68	169.25	853.72	4,854.6	17.30	7.36	6.60	66.23	32.89	-	0.17	999.33	1.21	0.00
2015	24.92	143.36	982.03	5,221.7	9.92	1.39	22.47	56.16	26.43	0.00	0.08	901.97	0.74	0.11
2016	23.25	112.12	753.42	6,678.5	16.79	0.67	17.27	59.70	21.02	-	0.02	808.75	0.61	0.11
2017	35.54	188.03	1,250.21	8,837.9	21.31	0.90	15.51	59.25	64.22	0.01	0.32	1,151.26	0.80	0.11
2018	51.81	216.88	1,372.61	10,234.0	21.39	1.06	3.81	52.71	68.52	0.01	0.68	1,212.76	0.83	0.34
2019	28.92	42.34	281.32	1,779.3	3.60	0.05	0.13	6.38	6.79	-	0.07	79.53	0.29	0.00
평균	33.02	145.33	915.55	6,267.7	15.05	1.91	10.96	50.07	36.65	0.00	0.22	858.93	0.75	0.11
비중	0.4%	1.7%	11.0%	75.2%	0.2%	0.0%	0.1%	0.6%	0.4%	0.0%	0.0%	10.3%	0.0%	0.0%

주: 1) 평균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수출액의 평균을 나타냄.

2) 비중은 평균의 전체 합에서 각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3) 품목별 분류는 HS코드 첫 2자리를 기준으로 분류하였고 HS코드 90번 이상의 기타항목의 품목은 제외하였음(Animal, Animal product: 1-5, Vegetable product: 6-15, Foodstuffs: 16-24, Mineral products: 25-27, Chemicals: 28-38, Plastics, Rubbers: 39-40, Raw, Hides, Skins, Furs: 41-43, Wood, Wood products: 44-49, Textiles: 50-63, Footwear, Headgear: 64-67, Stone, Glass: 68-71, Metal: 72-83, Machinery, Electrical: 84-85, Transportation: 86-89).

자료: UN Comtrade 자료(최종 검색일: 2020. 5. 31)를 기초로 저자 작성.

페루의 대미 수출을 살펴보면 연평균 수출액 기준으로 돌과 유리 관련 품목이 14억 달러 수출을 기록하여 전체 대미 수출의 25.7%를 차지하였다. 그다음으로 농산물 관련 품목이 23.2%(12억 9천만 달러), 광물 관련 품목이 20.3%(11억 3천만 달러)을 기록하였다.

페루의 대중 수출에서는 광물 관련 품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연평균 62억 7천만 달러를 수출하였고 대중 전체 수출액 중에서 75.2%를 차지하였다. 식료품의 경우 연평균 9억 2천만 달러, 금속 관련 품목은 8억 6천만 달러를 수출하여 전체 수출액의 11.0%, 10.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살펴본 증남미 주요국들 중 멕시코를 제외한 다른 국가들에서 두 가지 공통점과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중국에 대한 수출액이 미국에 대한 수출액을 상회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의 표에서 제시한 연평균 수출액의 합으로 살펴본 각 국가별 대미·대중 총 수출액은 아르헨티나가 34억 2천만 달러(미국)와 46억 7천만 달러(중국)로 대중 수출이 대미 수출의 약 1.4배, 브라질이 259억 달러(미국)와 477억 달러(중국)로 대중 수출이 대미 수출의 약 1.8배, 칠레가 93억 달러(미국)와 198억 달러(중국)로 대중 수출이 대미 수출의 약 2.1배, 페루가 56억 달러(미국)와 83억 달러(중국)로 대중 수출이 대미 수출의 약 1.5배를 기록하였다. 반면에 멕시코는 2,637억 달러(미국)와 45억 달러(중국)를 수출하여 대미 수출이 대중 수출의 약 58배로 나타났다.

두 번째 공통점은 멕시코를 제외한 타 국가들의 대중 주요 수출 품목이 한두 가지에 집중되어 있고, 주로 농산물이나 광물, 금속과 관련된 품목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농산물 관련 품목이 대중 전체 수출액의 63.0%를 차지하고 있다. 브라질의 대중 수출에서는 농산물과 광물 관련 품목이 각각 40.9%와 39.8%를 차지하고 있으며, 칠레는 광물과 금속 관련 품목이 각각 38.8%와 40.5%, 페루는 광물 관련 품목이 75.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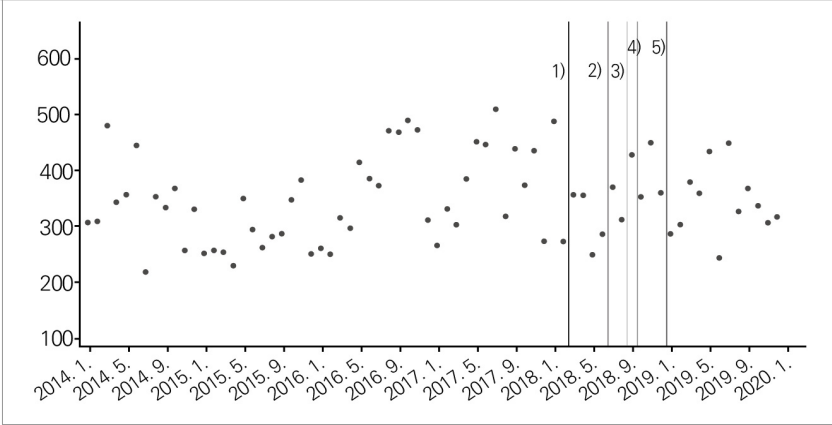
한편 [그림 4-1]부터 [그림 4-12]에서는 중남미 국가들의 대미·대중 월별 수출액 분포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관세부과 직전과 직후 대미·대중 수출의 변화를 대략적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동 그림에서 나타나는 수직선들은 미국과 중국이 각각 상대국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 시점을 나타낸다.

[그림 4-1]은 2014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아르헨티나의 월별 대미국 수출액 분포를 보여준다. 2015년 이전 감소하던 수출액은 그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 2016년 하반기 이후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미국의 대중 관세부과 이후 아르헨티나의 대미 수출에 대한 추세의 변화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반면 아르헨티나의 대중 수출은 중국의 관세부과 이전에 계절성이 뚜렷하게 나타났으나 그 이후 희미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브라질의 대미 수출액 분포(그림 4-3)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미국의 대중 관세부과 이후에도 두드러진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브라질의 대중 수출액 분포는 계절성이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관세부과 이후 수출액의 분포가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대중 수출에 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4-1. 아르헨티나의 월별 대미국 수출액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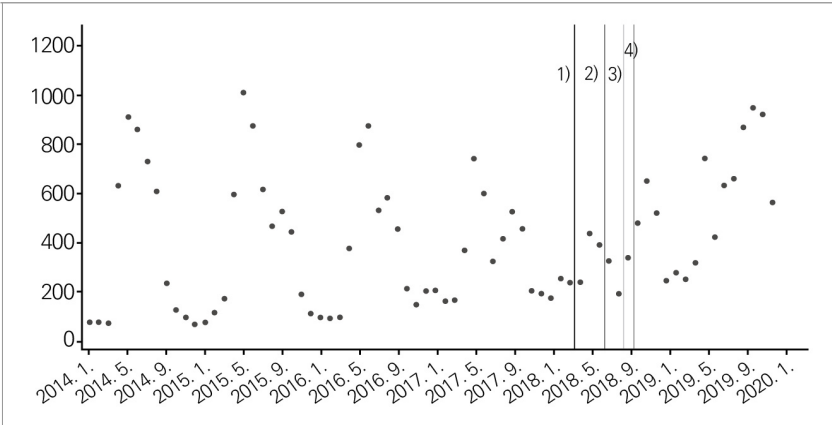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주: 1) 232조에 근거한 미국의 관세부과, 2) 301조에 근거한 미국의 1차 관세부과, 3) 301조에 근거한 미국의 2차 관세부과, 4) 301조에 근거한 미국의 3차 관세부과, 5) 301조에 근거한 미국의 3차 후속 관세부과 시행 시점을 의미함.
 자료: UN Comtrade 자료(최종 검색일: 2020. 5. 31)를 기초로 저자 작성.

그림 4-2. 아르헨티나의 월별 대중국 수출액 분포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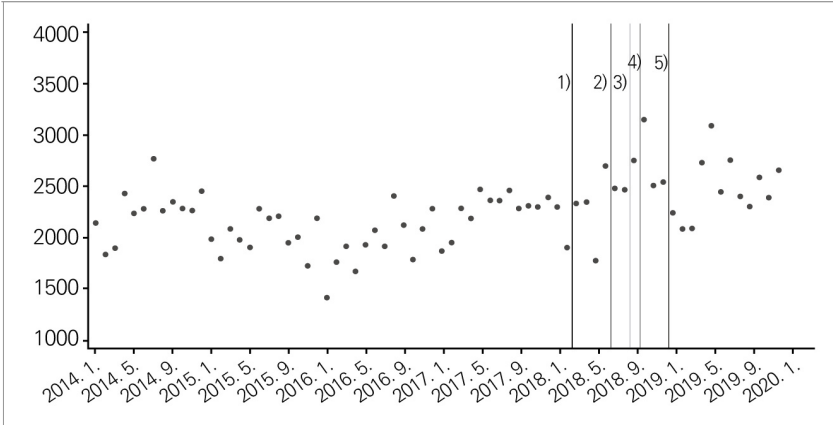


주: 1) 232조에 근거한 미국의 관세부과에 대한 중국의 보복관세, 2) 301조에 근거한 미국의 1차 관세부과에 대한 중국의 보복관세, 3) 301조에 근거한 미국의 2차 관세부과에 대한 중국의 보복관세, 4) 301조에 근거한 미국의 3차 관세부과에 대한 중국의 보복관세 시행 시점을 의미함.

자료: UN Comtrade 자료(최종 검색일: 2020. 5. 31)를 기초로 저자 작성.

그림 4-3. 브라질의 월별 대미국 수출액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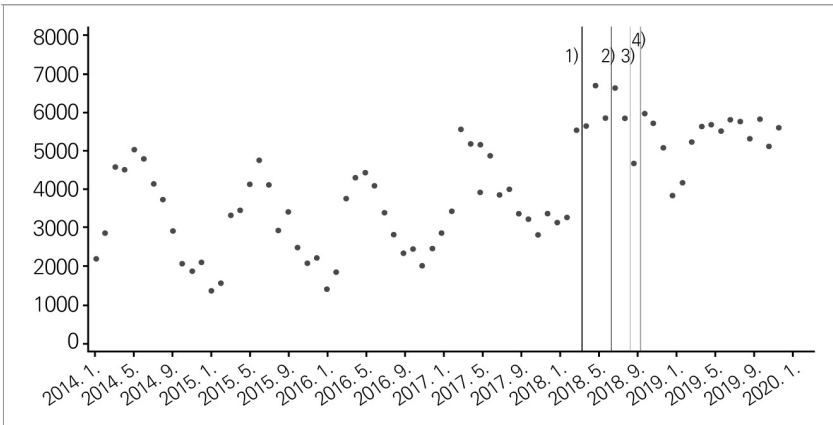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주: 1) 232조에 근거한 미국의 관세부과, 2) 301조에 근거한 미국의 1차 관세부과, 3) 301조에 근거한 미국의 2차 관세부과, 4) 301조에 근거한 미국의 3차 관세부과, 5) 301조에 근거한 미국의 3차 후속 관세부과 시행 시점을 의미함.
 자료: UN Comtrade 자료(최종 검색일: 2020. 5. 31)를 기초로 저자 작성.

그림 4-4. 브라질의 월별 대중국 수출액 분포

(단위: 백만 달러)



주: 1) 232조에 근거한 미국의 관세부과에 대한 중국의 보복관세, 2) 301조에 근거한 미국의 1차 관세부과에 대한 중국의 보복관세, 3) 301조에 근거한 미국의 2차 관세부과에 대한 중국의 보복관세, 4) 301조에 근거한 미국의 3차 관세부과에 대한 중국의 보복관세 시행 시점을 의미함.
 자료: UN Comtrade 자료(최종 검색일: 2020. 5. 31)를 기초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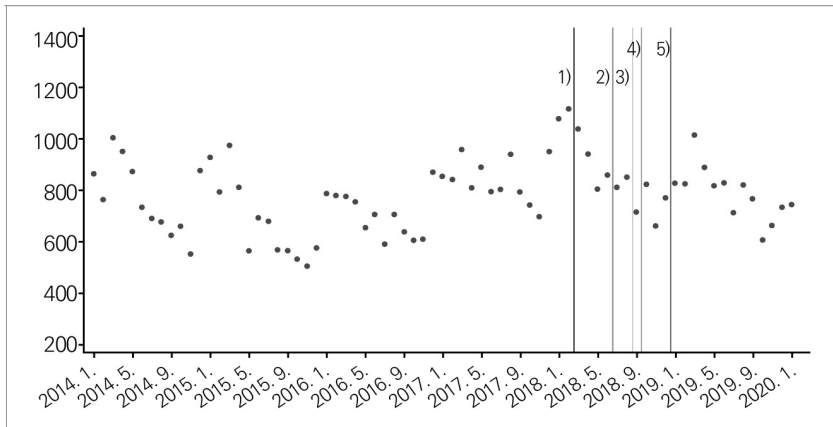
칠레의 대미 수출액 분포는 [그림 4-5]에서 제시하고 있다. 동 그래프에 따르면 미국의 관세부과 이전에는 계절성을 띠고 있지만 관세부과 이후에는 뚜렷한 계절성이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수출액 분포의 추세도 관세부과 이전과 이후에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반면에 대중 수출액은 관세부과 이전에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관세부과 이후에는 그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분포하고 있다.

한편 멕시코의 대미·대중 수출액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에 대한 수출액은 2016년부터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그 수준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관세부과 전후를 비교하면 대미·대중 수출액에 뚜렷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

페루의 대미국 수출액은 2016년부터 계절성이 관찰되는 동시에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대중국 수출액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4-5. 칠레의 월별 대미국 수출액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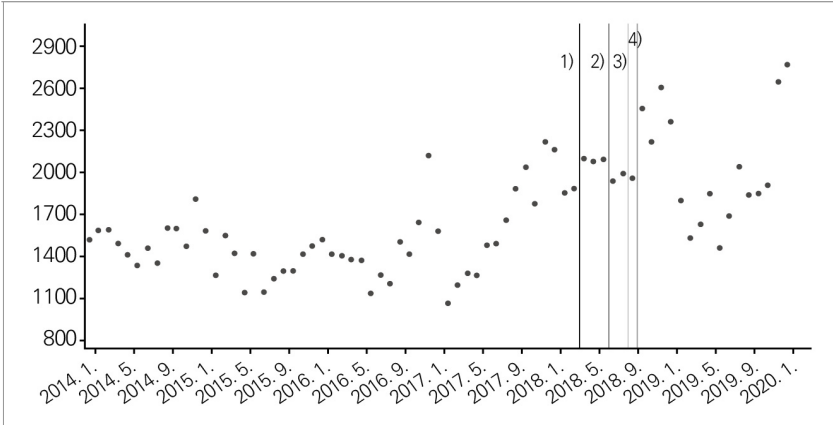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주: 1) 232조에 근거한 미국의 관세부과, 2) 301조에 근거한 미국의 1차 관세부과, 3) 301조에 근거한 미국의 2차 관세부과, 4) 301조에 근거한 미국의 3차 관세부과, 5) 301조에 근거한 미국의 3차 후속 관세부과 시행 시점을 의미함.
 자료: UN Comtrade 자료(최종 검색일: 2020. 5. 31)를 기초로 저자 작성.

그림 4-6. 칠레의 월별 대중국 수출액 분포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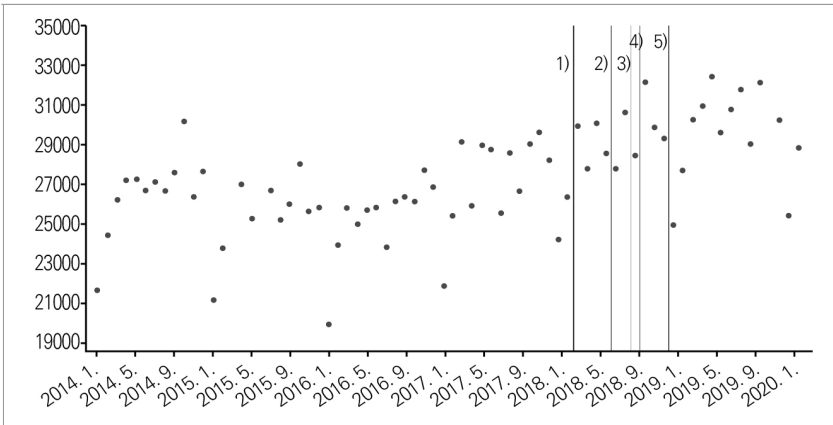


주: 1) 232조에 근거한 미국의 관세부과에 대한 중국의 보복관세, 2) 301조에 근거한 미국의 1차 관세부과에 대한 중국의 보복관세, 3) 301조에 근거한 미국의 2차 관세부과에 대한 중국의 보복관세, 4) 301조에 근거한 미국의 3차 관세부과에 대한 중국의 보복관세 시행 시점을 의미함.

자료: UN Comtrade 자료(최종 검색일: 2020. 5. 31)를 기초로 저자 작성.

그림 4-7. 멕시코의 월별 대미국 수출액 분포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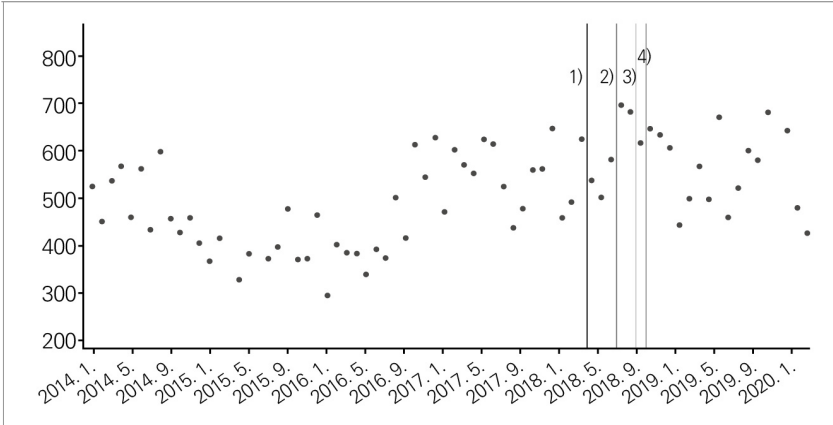


주: 1) 232조에 근거한 미국의 관세부과, 2) 301조에 근거한 미국의 1차 관세부과, 3) 301조에 근거한 미국의 2차 관세부과, 4) 301조에 근거한 미국의 3차 관세부과, 5) 301조에 근거한 미국의 3차 후속 관세부과 시행 시점을 의미함.

자료: UN Comtrade 자료(최종 검색일: 2020. 5. 31)를 기초로 저자 작성.

그림 4-8. 멕시코의 월별 대중국 수출액 분포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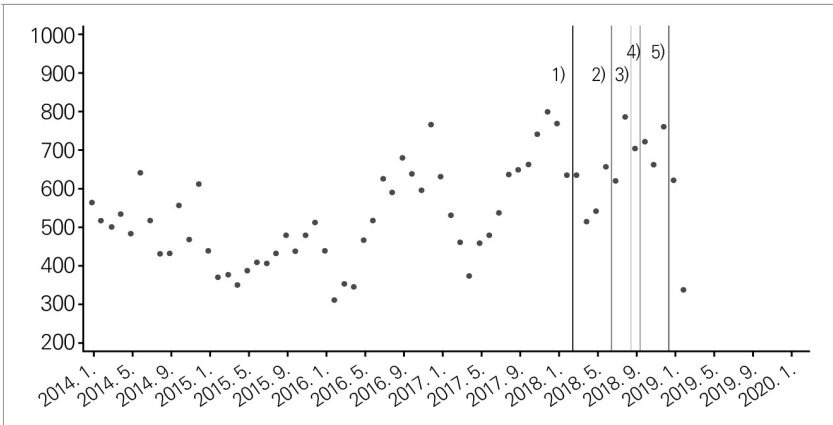


주: 1) 232조에 근거한 미국의 관세부과에 대한 중국의 보복관세, 2) 301조에 근거한 미국의 1차 관세부과에 대한 중국의 보복관세, 3) 301조에 근거한 미국의 2차 관세부과에 대한 중국의 보복관세, 4) 301조에 근거한 미국의 3차 관세부과에 대한 중국의 보복관세 시행 시점을 의미함.

자료: UN Comtrade 자료(최종 검색일: 2020. 5. 31)를 기초로 저자 작성.

그림 4-9. 페루의 월별 대미국 수출액 분포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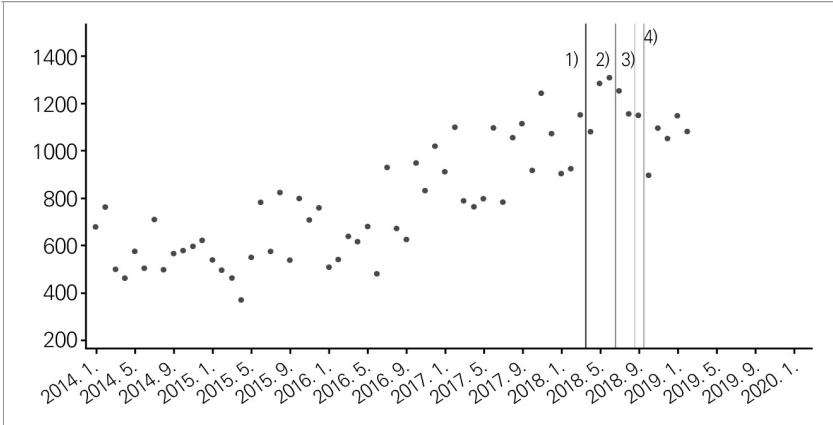


주: 1) 232조에 근거한 미국의 관세부과, 2) 301조에 근거한 미국의 1차 관세부과, 3) 301조에 근거한 미국의 2차 관세부과, 4) 301조에 근거한 미국의 3차 관세부과, 5) 301조에 근거한 미국의 3차 후속 관세부과 시행 시점을 의미함.

자료: UN Comtrade 자료(최종 검색일: 2020. 5. 31)를 기초로 저자 작성.

그림 4-10. 페루의 월별 대중국 수출액 분포

(단위: 백만 달러)



주: 1) 232조에 근거한 미국의 관세부과에 대한 중국의 보복관세, 2) 301조에 근거한 미국의 1차 관세부과에 대한 중국의 보복관세, 3) 301조에 근거한 미국의 2차 관세부과에 대한 중국의 보복관세, 4) 301조에 근거한 미국의 3차 관세부과에 대한 중국의 보복관세 시행 시점을 의미함.

자료: UN Comtrade 자료(최종 검색일: 2020. 5. 31)를 기초로 저자 작성.

나. 추정방법

본 장에서는 미·중 사이에서 몇 차례에 걸친 상호 관세부과가 중남미 주요국들의 대미·대중 수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각 국가의 연도별, 품목별 수출액과 월별 분포에서는 이러한 인과관계를 파악하기가 불가능하다. 연도별 또는 월별로 변화하는 수출액은 미·중 간 관세부과 이외에 수많은 요인들이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관세부과로 인한 인과효과(causal effect)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방법이 요구된다.

미·중 간 관세부과의 영향과 그것을 정량적으로 추정하기 위해서 Event study를 이용한다. 일반적으로 Event study를 활용함으로써 어떠한 정책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해당 정책의 적용대상(treatment group)이 변화하고 있었는

지, 그리고 정책을 시행한 이후 그 효과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며 지속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⁹⁸⁾ 이를 동 연구에 적용해보면, 미·중 간 관세부과 이전에 이미 중남미 국가들의 수출이 체계적으로 변화하고 있었는지, 즉 관세부과 이후 수출액의 변화가 관세부과로 야기된 것인지, 그리고 관세부과로 중남미 국가들이 영향을 받았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분석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아래의 식을 중남미 각 국가별과 무역상대국별(미국 또는 중국)로 추정한다.

$$\ln(y_{ht}) = \alpha + \sum_{\substack{k=-12, \\ k \neq -1}}^{12} \beta_k \text{Tariff}_{htk} + \gamma X_t + \lambda_h + \theta_t + \epsilon_{ht} \quad (1)$$

여기에서 y_{ht} 는 해당시점 t 에서 HS코드 6자리 기준 품목 h 에 대한 중남미 국가의 대미국 또는 대중국 수출액, Tariff_{htk} 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몇 차례에 걸쳐 일어난 관세부과 시점($k=0$) k 개월 전후 해당시점 t 에서 해당품목 h 의 관세부과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⁹⁹⁾, X_t 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변수(국가별 화폐와 달러 간 환율, GDP, 해당 국가의 정권교체 여부 등)들을 나타내는 벡터, λ_h 는 HS코드 4자리를 기준으로 한 수출 품목에 대한 고정효과(fixed effect), θ_t 는 연도와 월에 대한 고정효과를 나타낸다.

식 (1)의 β_k 가 의미하는 것은 관세부과 1개월 전을 기준점(reference point, $\beta_{-1} = 0$)으로 설정하여 관세부과 전후의 각 시점에서 수출액의 상대적인 변화를 나타낸다. 관세부과 시점 이후($k \geq 0$)의 β_k 는 여러 차례 이루어진 양국간 관세부과의 누적효과이자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를 합한 총 효과를 나타낸다.

98) Thompson(2016).

99) UN Comtrade에서 제공하는 수출액 데이터는 월 단위로 제공되기 때문에 중국의 대미 관세부과 시점은 2018년 4월, 2018년 7월, 2018년 9월, 2018년 10월로 설정하고 분석을 수행한다. 반면 미국의 대중 관세부과 시점은 2018년 7월, 2018년 9월, 2018년 10월로 설정한다.

다. Event study의 추정결과

[그림 4-11]부터 [그림 4-14]까지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그리고 멕시코에 대한 Event study의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¹⁰⁰⁾

[그림 4-11] 아르헨티나의 대미 수출에 대한 결과를 보면, 미국이 세 차례에 걸쳐 시행한 각각의 대중 관세부과 시점을 기준으로 5개월 전과 7개월 전 아르헨티나의 대미 수출액은 관세부과 시점 1개월 전과 비교할 때 88%($\beta_{-5} = 0.883$), 160%($\beta_{-7} = 1.602$)¹⁰¹⁾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95% 신뢰구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사실 식 (1)에서 추정한 $\beta_k (k \geq 0)$ 를 미·중 간 관세부과로 인한 수출액의 변화로 해석하기 위한 이상적인 상황은 $\beta_k (k < -1)$ 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은 아르헨티나의 대미 수출액이 미·중 간 관세부과 이전부터 설명변수로 통제되지 않는 어떠한 요인으로 인한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거나 또는 동 관세부과 조치들이 아르헨티나의 대미·대중 수출액을 고려하여 시행되지 않았다는, 즉 관세부과가 중남미 국가들에 외생적인 충격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그림 4-11](a)의 관세부과 이전 event window에서 두 개의 추정치인 β_{-5} 와 β_{-7} 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그러나 두 계수를 제외한 나머지 추정치 $\beta_k (-2 \leq k \leq -12, k \neq -5, -7)$ 는 모두 유의미하지 않고, 동시에 이 추정치들이 특정한 추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동 분석에서는 관세부과 이전 아르헨티나의 대미 수출액에 유의미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미국과 중국 간 관세부과는 중남미 국가들에는 외생적인 충격으로 가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인다. 즉 동 가정들을 함으로써 Event study에서 요구되는 전제조건이 만족된다고 하겠다. 이후 분석할 브

100) 동 분석에서 콜롬비아와 페루를 제외한 것은 콜롬비아의 경우 2015년과 2019년, 페루의 경우 2019년 월별 수출액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아 Event study를 활용한 인과관계 추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101) 해당 그림에서 가로축의 -5와 -7에 해당하는 추정치를 의미한다.

라질과 멕시코의 대미·대중 수출액에 대한 Event study의 결과에도 이러한 가정을 적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그림 4-11]에 따르면 몇 차례 일어난 미·중 간 관세부과 조치들은 아르헨티나의 대미·대중 수출에 유의미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¹⁰²⁾ 대미국 수출액에 대한 총 효과는 관세부과 이후 12개월이 지나는 동안 관세부과 직전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대중국 수출액은 관세부과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관세부과 직전에 비해 93%($\beta_6 = 0.932$) 증가하였지만, 그 이후의 추정치들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관세부과로 인한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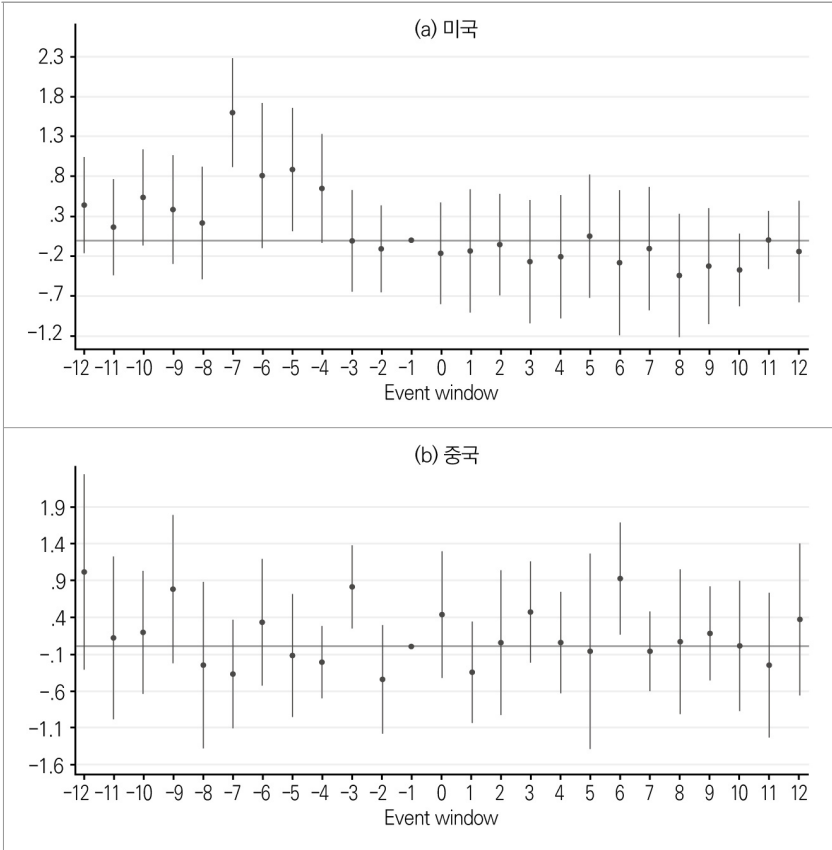
한편 브라질에서는 [그림 4-12] 미·중 간 관세부과가 브라질의 대미국 수출액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관세부과 직전에 비해 관세부과 4개월 뒤 시점에서 대미 수출액은 85%($\beta_4 = 0.851$), 6개월 뒤 시점에서는 67%($\beta_6 = 0.667$), 7개월 뒤 시점에서는 60%($\beta_7 = 0.606$)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 효과는 관세부과 9개월, 10개월 뒤에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반면 브라질의 대중국 수출액은 관세부과 직후 증가 상당히 증가하였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영향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관세부과 조치를 단행한 월에 대중 수출액은 직전 월에 비해 174% 증가하였고 관세부과 이후 그 영향의 크기가 감소하기는 하였지만 5개월까지 관세부과 효과는 지속되었다.¹⁰³⁾ 그러나 그 이후 수출액의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비추어볼 때 관세부과의 효과는 단기간에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102) 분석결과에서 언급하는 '영향'은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를 합한 총효과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영향이 없다는 것은 총효과 측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소득효과 또는 대체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103) 관세부과 5개월 이후 시점에서의 수출액은 관세부과 직전 월에 비해 116% 증가하였다($\beta_5 = 1.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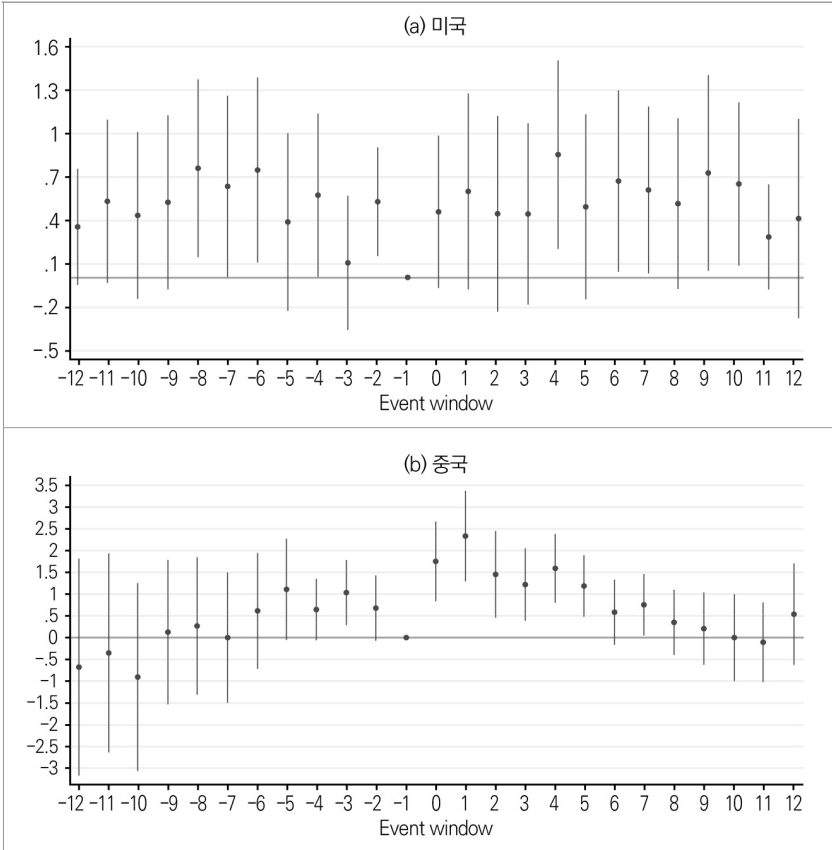
그림 4-11. Event study 결과: 아르헨티나의 대미·대중 수출



주: 각 점은 식 (1)의 β_k 추정치로서 관세부과 1개월 전을 기준으로 상대적인 값을 나타내며, 수직선은 HS코드 4자리 기준 군집표준오차(cluster standard error)를 이용한 각 추정치의 95% 신뢰구간을 의미함.

자료: UN Comtrade 자료(최종 검색일: 2020. 5. 31) 및 CEIC 자료(최종 검색일: 2020. 6. 10)를 활용하여 식 (1)을 추정된 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그림 4-12. Event study 결과: 브라질의 대미·대중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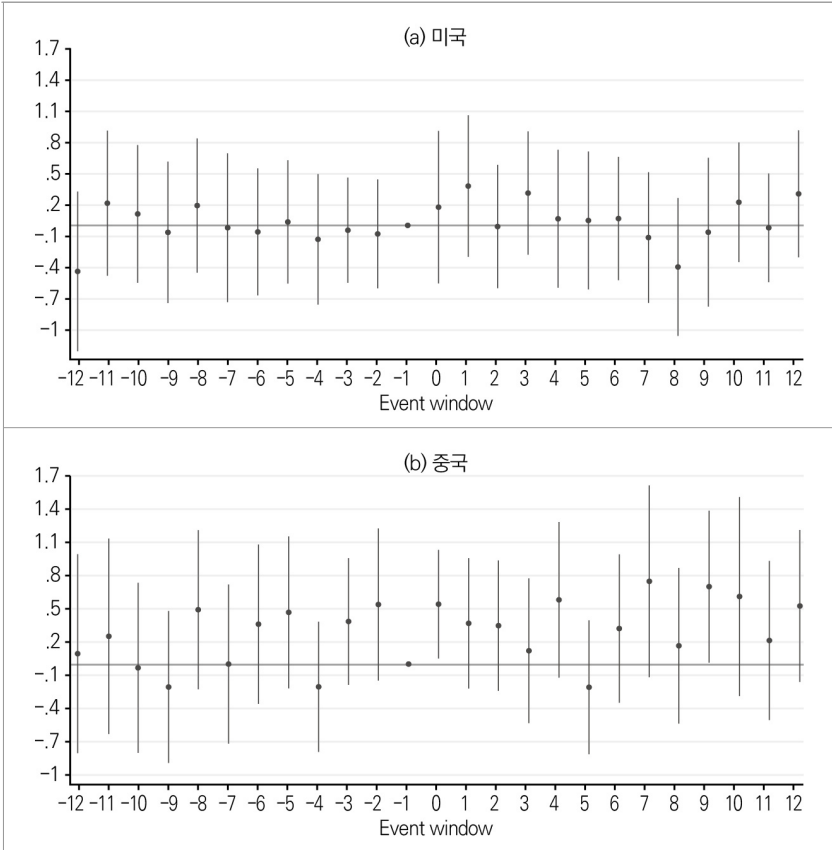


주: 각 점은 식 (1)의 β_k 추정치로서 관세부과 1개월 전을 기준으로 상대적인 값을 나타내며, 수직선은 HS코드 4자리 기준 군집표준오차(cluster standard error)를 이용한 각 추정치의 95% 신뢰구간을 의미함.

자료: UN Comtrade 자료(최종 검색일: 2020. 5. 31) 및 CEIC 자료(최종 검색일: 2020. 6. 10)를 활용하여 식 (1)을 추정된 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그림 4-13]은 칠레의 대미·대중 수출에 대한 Event study의 결과를 제시한다. 미·중 간 관세부과는 칠레의 대미 수출액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 반면, 대중 수출액은 관세부과를 시행한 달에서만 관세부과 직전에 비해 54%($\beta_0 = 0.542$) 증가하였고 그 이후에는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4-13. Event study 결과: 칠레의 대미·대중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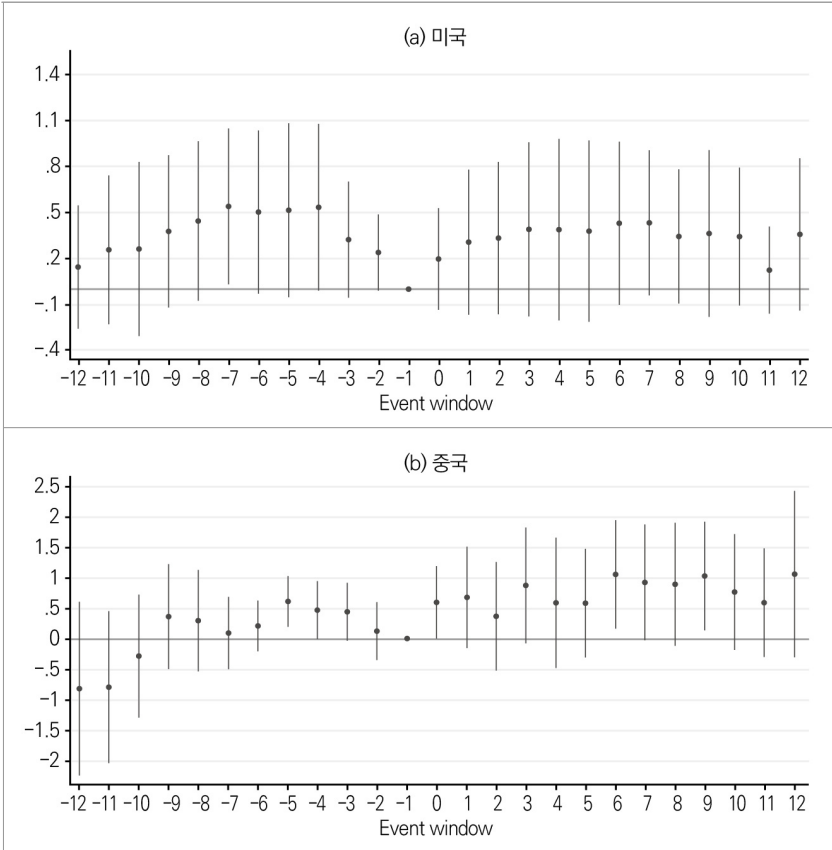


주: 각 점은 식 (1)의 β_k 추정치로서 관세부과 1개월 전을 기준으로 상대적인 값을 나타내며, 수직선은 HS코드 4자리 기준 군집표준오차(cluster standard error)를 이용한 각 추정치의 95% 신뢰구간을 의미함.

자료: UN Comtrade 자료(최종 검색일: 2020. 5. 31) 및 CEIC 자료(최종 검색일: 2020. 6. 10)를 활용하여 식 (1)을 추정한 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그림 4-14]에서는 멕시코의 대미·대중 수출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동 그림에 따르면 미·중 관세부과 조치들은 멕시코의 대미 수출액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멕시코의 대중 수출액의 경우에 관세부과의 영향이 지속적이지는 않았으나 관세부과 6개월과 9개월 이후에는 관세부과 직전 월에 비해 수출액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¹⁰⁴⁾

그림 4-14. Event study 결과: 멕시코의 대미·대중 수출



주: 각 점은 식 (1)의 β_k 추정치로서 관세부과 1개월 전을 기준으로 상대적인 값을 나타내며, 수직선은 HS코드 4자리 기준 군집표준오차(cluster standard error)를 이용한 각 추정치의 95% 신뢰구간을 의미함.
 자료: UN Comtrade 자료(최종 검색일: 2020. 5. 31) 및 CEIC 자료를 활용하여 식 (1)을 추정한 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지금까지의 Event Study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아르헨티나, 칠레, 멕시코의 대미 수출액은 미·중 간 관세부과에 따른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브라질의 대미 수출액은 관세부과로 인해 양(+)의 영향을 받았으며 그 효과가 단기간이지만 어느 정도 지속되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104) 관세부과 직전 월에 비해 관세부과 6개월 이후 104%($\beta_6 = 1.046$), 9개월 이후 101%($\beta_9 = 1.013$) 증가하였음.

대중국 수출액은 브라질을 제외한 아르헨티나, 칠레, 멕시코에서 관세부과로 인한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거나, 그 영향이 일부 시점에서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지속되지 않았다. 하지만 브라질의 대중 수출액은 관세부과 조치들이 시행된 달에서 증가하여 5개월간 지속된 이후 관세부과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관세부과로 인해 단기적으로 브라질의 대중 수출액이 급증한 배경에는 대두(Soybean)를 둘러싼 미국, 중국, 브라질 사이의 상호의존적인 관계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크다. 2016년과 2017년 사이 미국과 브라질의 대두 수출량은 전 세계 대두 수출량의 83%를 차지하였고, 동 기간 동안 미국의 전체 대두 수출량의 61%와 브라질의 전체 대두 수출량의 77%가 중국으로 수출되었다.¹⁰⁵⁾ 그러므로 미국산 대두에 대한 관세부과로 중국은 미국산 대두를 브라질산 대두 수입으로 대체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브라질의 대중 수출에서 양(+)의 대체효과가 음(-)의 소득효과보다 컸음을 암시한다. 다만 이러한 경향은 단기간에만 나타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브라질의 대중 수출액은 관세부과 이전 수준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비추어볼 때 소득효과로 인한 수출 감소가 대체효과를 상쇄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브라질의 결과와는 대조적으로 아르헨티나, 칠레, 멕시코에서는 미·중 관세부과가 이들 국가들의 대미·대중 수출액에 전반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며, 그 영향이 관찰되었더라도 그것이 지속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관세부과로 야기된 양(+)의 대체효과와 음(-)의 소득효과가 서로 상쇄되어 총 효과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었을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 자체가 이들 국가에서 유의미하지 않았을 개연성도 있다. Event Study의 결과를 야기한 채널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분석, 즉 관세부과 조치로 인한 중남미 국가들 내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유무, 그리고 그것의 크기를 비교하는 연구는 향후 연구주제로 남겨두기로 하겠다.

105) Gale, Valdes, and Ash(2019).

한편 Event Study를 이용한 동 분석에는 몇 가지 한계점이 있어 여기서 도출한 결과가 강력한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향후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강건성 검정(Robustness Test)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 번째 한계점은 추정결과에서 이미 설명한 것처럼 Event Study의 통계적 필요조건인 관세부과 이전 수출액의 유의미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아야 함을 만족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동 분석은 코로나19 확산 이전까지만의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장기적인 영향을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동 분석에서 활용하는 데이터는 월별, HS코드 품목별 총액 데이터(Aggregate Data)이기 때문에 관세부과의 효과가 어느 품목에 집중되어 나타났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¹⁰⁶⁾

3. 미·중 통상갈등이 중남미 주요국의 후생에 미친 영향

본 절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상호 관세가 중남미 주요국 후생에 미친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앞선 분석이 미중 관세로 인한 중남미 국가들의 수출변화에 대한 것이었다면 본 분석은 후생이라는 좀 더 거시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췄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한 국가의 후생은 실질소득과 동일한 의미를 지니며 넓은 의미에서 한 국가의 부(富)로 해석할 수 있다.

분석에 사용될 Caliendo and Parro(2015) 모형은 후생 변화를 교역조건(Terms of Trade)과 교역량(Volume of Trade) 변화에 의한 부분으로 분해하여 다른 모형에 비해 좀 더 직관적인 해석을 가능케 한다.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미·중 상호 관세는 무역대체효과를 발생시켜 미·중 양국이 제3국으로부터 사들이는 수입 역시 영향을 받게 된다. 즉 관세는 제

106) 이러한 한계는 기업단위(firm level)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으나 데이터 수집의 어려움이라는 또 다른 한계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3국 제품에 대한 수요와 가격을 변화시키고 이에 따른 제3국의 교역조건 변화 역시 수반한다. 수출 가격이 수입 가격에 비해 더 상승할 경우 교역조건이 개선이 나타나고 해당 국가의 실질소득, 즉 후생은 증가한다. 관세로 인한 교역량의 변화 역시 후생을 변화시키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수입품이 국내재에 비해 더 낮은 가격을 갖는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다시 말해 교역량 증가에 따른 수입의 증가는 국내 최종재 및 중간재 소비자들이 직면하게 되는 가격 수준을 낮추고 후생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본 절은 다국가(Multi-Country), 다산업(Multil-Industry)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미·중 관세가 중남미 주요국의 후생 및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수량화(Quantify)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미·중 통상갈등이 중남미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가늠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중남미 지역에서 분석 대상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등 중남미에서 가장 큰 경제규모를 지니고 있는 6개국이다.

가. 모형 및 데이터

본 연구에 사용된 분석 모형은 Caliendo and Parro(2015)를 이용하여 미·중 상호 관세가 글로벌 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김종덕 외(2019)에 중남미 국가들이 추가된 확장판이다. 김종덕 외(2019)가 19개국, 34개 산업을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는 반면 본 연구는 23개국, 34개 산업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앞서 언급한 중남미의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외에 한국, 미국, 중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일본, 러시아, 스페인, 터키, 영국, 베트남, 그리고 잔여국(Rest of World)이 분석 대상국으로 포함된다. 잔여국을 제외한 22개국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에 이른다.

산업 구분은 국제산업분류(ISIC ver.4)를 이용하여 총 34개로 분류하였으며 이 중 18개 산업은 교역 가능한 제품을, 나머지 16개 산업은 교역 불가능한 서비스 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상정하였다. 이는 김종덕 외(2019)와 동일한 분류 방법으로 자세한 구분은 [표 4-12]에 나타나 있다.

표 4-12. 산업분류

산업분류	설명	국제 표준산업 분류 4차 개정
1 농림어업	농업, 어업, 임업	01-03
2 광업	채굴, 채석	05-08
3 식료품	식료 및 담배	10-12
4 면직물	면직물, 가죽 제품, 신발 등	13-15
5 목재	원목 및 목재품	16
6 제지	펄프, 종이, 종이 제품 등	17-18
7 석유/에너지	석유, 원자력 에너지 등	19
8 화학	화학, 제약 등	20-21
9 플라스틱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22
10 미네랄	비금속 미네랄	23
11 기초금속	기초금속	24
12 금속 제품	가공된 금속 제품(기계, 장비, 설비 제외)	25
13 컴퓨터	컴퓨터 및 부품, 반도체, 유무선 전화기, 가전제품 등	26
14 전자·전기 장비	전기모터, 배터리, 전선, 케이블 등	27
15 기계	엔진, 터빈(자동차, 비행기 엔진 제외), 펌프, 보일러, 농기계 등	28
16 자동차	자동차, 트레일러 및 부품	29
17 기타 운송	선박, 기차, 비행기	30
18 기타 제조업	가구 등 기타 제조업	31-33
19 전기·가스·수도 공급	전기·가스·수도 공급	35-39
20 건설	건설	41-43
21 도·소매	도·소매	45-47
22 운송 및 저장	육·해·공 운송, 저장 및 우편 서비스	49-53
23 숙박 및 요식업	숙박 및 요식업	55-56
24 출판 및 방송	출판 및 방송	58-60
25 텔레커뮤니케이션	텔레커뮤니케이션	61
26 IT 및 정보서비스	IT 및 데이터 프로세싱, 웹포털 등 정보서비스	62-63
27 금융서비스	금융 및 보험서비스	64-66
28 부동산서비스	부동산서비스	68
29 기타 비즈니스서비스	기타 비즈니스서비스	69-82
30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84
31 교육	교육	85
32 보건 및 사회사업	보건 및 사회사업	86-88
33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예술, 엔터테인먼트, 레크리에이션 등	90-96
34 개인/가계 서비스	개인 요리사, 정원사, 운전자 및 개인 필요에 의한 생산 활동 등	97-98

주: 1-18은 교역 가능한 제품, 19-34는 교역 불가능한 제품임.

자료: 김종덕 외(2019), p. 41.

모형과 관련한 자세한 설명은 Caliendo and Parro(2015) 혹은 김종덕 외 (2019)를 참고하면 되므로 생략하고 주된 특징에 대해서만 소개한다. 본 모형은 23개국 34개 산업으로 구성된 일반균형 모형이며 각 산업은 노동과 중간재를 생산요소로 이용한다.¹⁰⁷⁾ 또한 완전경쟁시장을 가정하며 노동의 국가 간 이동은 허용하지 않는다. 후생을 정의하는 국가의 명목소득은 노동소득과 관세수익, 그리고 무역수지에 의해 결정되며 실질소득은 각 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가격들로 구성된 가격 인덱스로 디플레이트(deflate)함으로써 도출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관세로 인한 후생의 변화는 교역조건과 교역량 변화에 의한 부분으로 나뉜다. 식 (2)는 모형에서 도출된 국가 n 의 후생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d \ln W_n = \frac{1}{I_n} \sum_{j=1}^J \sum_{i=1}^N (E_{ni}^j d \ln c_n^j - M_{ni}^j d \ln c_i^j) + \frac{1}{I_n} \sum_{j=1}^J \sum_{i=1}^N \tau_{ni}^j M_{ni}^j (d \ln M_{ni}^j - d \ln c_i^j) \quad (2)$$

W_n 은 국가 n 의 후생수준이며 따라서 $d \ln W_n$ 은 후생의 변화율을 의미한다. I_n 은 명목소득, E_{ni}^j 은 j 제품에 대한 n 의 대 i 수출액, M_{ni}^j 는 n 의 대 i 수입액, τ_{ni}^j 는 n 이 i 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의미한다. $d \ln c_n^j$ 는 n 에서 생산되는 j 제품의 가격 변화를 뜻하며 따라서 $d \ln c_n^j - d \ln c_i^j$ 는 n 과 i 사이의 교역조건 변화를 의미한다. 식 (2) 우변의 첫 번째 항은 관세로 인한 n 의 총교역조건 변화를, 두 번째 항은 실질 교역액 혹은 수입액의 변화를 나타낸다.

한편 본 모형은 Eaton and Kortum(2002) 형식의 리카르도(Ricardo) 모형이다. 생산자는 중간재를 구입함에 있어 전 세계를 통틀어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판매자로부터 제품을 구매한다. 또한 다른 국가로부터 중간재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와 운송비(trade cost) 등이 추가된다.

미·중 관세효과는 모형 시뮬레이션을 통한 반사실적(counterfactual) 분석에 의해 도출되며 모형의 파라미터(parameter)들은 분석 대상국들의 2016년

107) 34개 모든 산업에서 생산된 제품이 중간재로 투입된다.

무역 및 생산 데이터에 맞춰 캘리브레이트(Calibrate)된다. 캘리브레이션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양자 간(Bilateral) 수출입 데이터는 UN COMTRADE를, 양자 간 관세율은 WTO Tariff Download Facility를 이용하였다. 각 분석 대상국의 산업별 부가가치(Value-Added)와 총생산(Gross Output) 그리고 산업별 중간재 소비와 관련한 데이터는 OECD 투입산출표(Input-Output Table)를 활용하였다. 데이터와 관련한 좀 더 상세한 설명은 김종덕 외(2019)를 참고하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모형의 한계와 장점을 간략히 언급함으로써 본 소절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Caliendo and Parro(2015)는 자본축적 등 동태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는 전형적인 일반균형 무역모형이다. 따라서 미·중 통상갈등이 초래하는 불확실성과 이로 인한 금융, 투자 부분에 대한 영향은 고려하지 않는다. 즉 본 모형은 순수하게 무역 채널(Channel)에 의한 관세효과만을 살펴보고 있다. 미·중 관세가 글로벌 무역 흐름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로 인한 각국의 후생 변화에 그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비록 본 절의 분석결과가 미·중 통상갈등의 종합적 효과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은 한계로 작용하나, 가장 중요한 채널인 무역에 의한 효과를 ‘식별’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미·중 상호 관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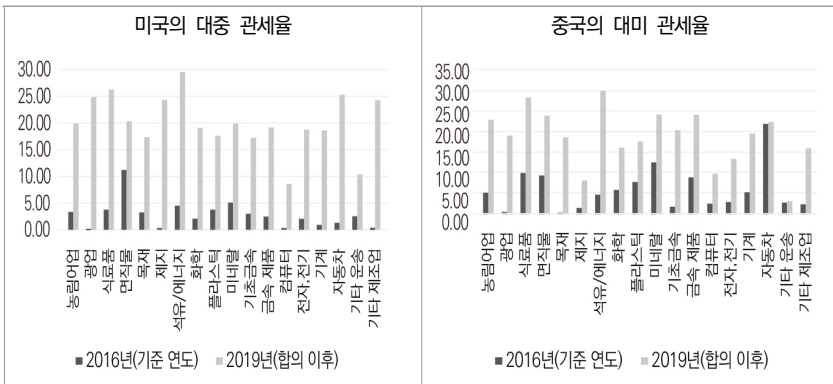
본 소절에서는 본격적인 결과 분석 이전에 미·중 통상갈등으로 인한 미·중 양국의 상호 관세율 변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관세율 변화는 트럼프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에서 미·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2019년 12월 13일) 이후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그림 4-15]는 기준 연도인 2016년 당시의 미국의 대중국 관세율과 중국의 대미국 관세율을 1단계 합의 이후 관세율과 비교한다. [그림 4-15]에 의하면 관세부과로 인해 미·중 양국의 상호 관세율이 2016년에 비해 전 산업에 걸쳐 대폭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대중국 (전체)평균 관

세울 역시 2016년 2.8%에서 2019년 21.4%로 크게 증가했으며 중국의 대미국 평균 관세율은 2016년 6.2%에서 2019년 19.0%까지 증가하였다.¹⁰⁸⁾

[그림 4-15]에 나타난 양국의 상호 관세율 변화가 모형 시뮬레이션 및 반사실적 분석에 충격으로 가해지며 이에 따른 중남미 주요국의 후생 변화는 다음 절에 제공된다.

그림 4-15. 미·중 통상갈등에 따른 품목별 관세율 비교

(단위: %)



주: 관세율은 2016년 품목별 수입액을 가중치로 적용한 가중치 평균임. 반덤핑과 상계관세 등은 포함하지 않음.
 자료: 김종덕 외(2019), p. 45.

다. 미·중 관세가 중남미 주요국의 후생에 미치는 영향

미·중 관세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모형을 기준 연도인 2016년 각국의 산업별 수출입, 생산, 중간재 소비 데이터에 맞춰 캘리브레이트하여 균형을 도출한다. 이렇게 도출된 2016년 균형에 관세 충격을 가해 반사실적 균형을 도출하고 식 (2)를 이용하여 각국의 후생 변화를 계산한다. 분석결과는 [표 4-13]에 나타나 있다.

108) 김종덕 외(2019), p. 45.

표 4-13. 미·중 관세가 중남미 주요국의 후생에 미치는 영향

(단위: %)

국가	총후생 변화	교역조건효과	교역량효과
아르헨티나	0.025	0.013	0.012
브라질	0.017	0.007	0.009
칠레	0.015	0.015	0.001
콜롬비아	0.016	0.005	0.011
멕시코	0.195	0.164	0.032
페루	0.018	0.019	0.000
미국	0.037	0.050	-0.013
중국	-0.260	-0.191	-0.069
한국	0.010	0.009	0.001

주: 반올림으로 인해 교역조건효과와 교역량효과와의 합이 총후생 변화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저자 계산.

분석결과에 의하면 미·중 관세는 전반적으로 중남미 주요국의 후생을 증대 시킴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멕시코를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약 0.01~0.02%의 후생 증대를 기록하며 그다지 큰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장 큰 효과가 나타난 멕시코는 약 0.2%의 후생 증가를 기록한다.

한편 통상갈등의 당사국인 미국과 중국은 상반된 후생 변화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0.04%가량의 후생 증대를 경험한 반면 중국은 -0.26%의 후생 손실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및 중국과 관련된 결과는 김중덕 외(2019)의 결과와 매우 유사하므로 보다 자세한 해석을 위해서는 해당 보고서를 참고 바란다.

그렇다면 미·중 관세가 어떠한 채널을 통해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 주요국들의 후생 증가에 기여한 것일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관세가 미국과 중국 상호 간의 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4-14]는 모형이 예측한 미·중 상호교역의 변화를 보여준다.

표 4-14. 미·중 관세의 양자간 무역효과

(단위: %)

구분	수입대상국: 미국	수입대상국: 중국	수입대상국: 기타
미국의 수입	-	-55.7	9.9
중국의 수입	-45.4	-	-6.9

자료: 저자 계산.

모형은 미·중 관세가 미국의 대중국 수입을 55.7%, 중국의 대미국 수입을 45.4% 감소시킬 것으로 예측한다. 하지만 상대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로부터의 수입은 미국의 경우 9.9% 증가하는 반면, 중국의 경우 6.9% 감소한다. 기타 국가들로부터 미국의 수입이 증가한 이유는 무역대체효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관세로 인한 대중국 수입 감소의 일정 부분을 다른 국가들로부터 대체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기타 국가들로부터 중국의 수입이 감소한 이유는 중국의 대미 무역구조에서 그 해답을 찾아볼 수 있다. 중국의 대미 무역구조와 관련한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중국이 세계 각국으로부터 중간재를 수입하고 이를 최종재로 가공하여 미국에 수출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의 대미 수출에서 최종소비재와 자본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70%에 이른다.¹⁰⁹⁾ 이러한 무역구조를 감안할 때 관세로 인한 중국의 대미 수출 저하는 기타국가들로부터의 (중간재)수입 역시 감소시켰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채널 외에 관세로 인한 중국의 후생, 즉 실질소득의 감소가 전반적인 수입 감소를 불러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무역대체효과는 중남미 국가의 수출에도 영향을 준다. 중남미를 포함한 기타 국가들로부터 미국의 수입 증가는 이들이 생산하는 제품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이에 따른 수출 가격 상승을 유도한다. 수출 가격 상승은 중남미 국가의 교역조건 개선에 기여하고 후생을 증가시킨다. 또한 중국의 대미 수출 저하로 인한 중국의 수출 가격 하락 역시 중남미 국가들에는 교역조건을 개선시

109) 양평섭, 임호열, 이효진(2016).

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표 4-13]에서 볼 수 있듯이 칠레, 멕시코, 페루 등의 후생 증대는 대부분 교역조건 효과에서 비롯됨을 알 수 있다.

특히 총수출에서 대미 수출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멕시코는 가장 큰 교역조건 개선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World Bank에 의하면 2016년 기준 멕시코의 총수출에서 대미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81%나 되고 무역대체로 인한 수출 증가 및 교역조건 개선 효과도 가장 크다(표 4-13). 이와 관련 모형이 예측한 바에 의하면 관세로 인한 멕시코의 총수출 및 대미 수출은 각각 4.1%와 8.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역량효과에 의한 후생 개선은 교역조건 효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미하지만 전반적 후생 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 소절에서는 관세로 인한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등 주요국의 산업별 수출변화를 살펴본다.

라. 미·중 관세가 중남미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

멕시코를 중심으로

본 모형에 구성하는 34개의 산업 중 18개의 산업은 교역 가능한 제품을 생산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이들 18개 제품에 대한 각국의 수출변화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 이를 분석함으로써 미·중 관세가 중남미 국가들의 산업에 미친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분석결과는 [표 4-15]에 제공된다.

표 4-15. 미·중 관세로 인한 산업별 수출변화

(단위: %)

산업/품목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농림어업	-2.15	-4.45	0.48	0.87	-3.51	0.75
광업	-0.47	-1.92	-0.14	-0.53	-10.03	-0.62
식료품	-0.02	-0.21	0.35	0.00	-0.63	-0.22
면직물	-1.41	16.24	0.38	6.59	14.18	10.11
목재	0.96	0.63	3.67	-0.68	2.39	-0.96
제지	-1.20	-4.76	-5.25	0.13	-2.65	-0.20
석유·에너지	0.10	16.74	0.54	-0.31	-26.94	4.43
화학	-0.10	1.02	0.03	0.02	-1.27	-0.07
플라스틱	0.05	0.62	1.05	0.46	1.18	0.26
미네랄	-0.18	1.04	0.02	1.24	1.07	0.57
기초금속	0.31	-0.20	-1.34	0.81	-0.25	0.67
금속 제품	-0.37	2.06	0.21	1.73	1.92	-0.04
컴퓨터	3.78	5.20	1.17	0.38	12.92	1.01
전자·전기 장비	-2.03	7.07	-0.75	-0.14	18.55	-1.07
기계	-0.10	0.60	-0.03	-0.15	1.54	-0.08
자동차	-0.12	0.30	0.16	-0.07	0.79	0.07
기타 운송	0.00	-0.39	0.01	0.01	0.41	0.02
기타 제조업	1.04	3.42	0.36	2.03	3.99	0.39
총수출	-0.20	0.04	-0.16	-0.08	4.10	-0.05

자료: 저자 계산.

멕시코를 제외한 국가들의 산업별 수출 증감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생략하도록 한다. 다만 이들의 최대 수출품인 광업 제품의 수출이 소폭 하락했다는 결과는 주목할 만하다.

멕시코의 경우 관세로 인해 약 4.1%가량의 총수출 증대를 누리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미·중 관세로 인해 중남미 국가 중 멕시코의 수출이 가장 큰 수혜를 입고 있음을 의미하며 앞선 후생효과와도 일맥상통한다. 수출품 중에는 면직물, 컴퓨터, 전자·전기장비 부분의 수출 증가가 눈에 띈다. 면직물은 약 14.2%, 컴퓨터는 12.9%, 전자·전기장비는 18.6%가량 수출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난다. 2016년을 기준으로 이들 품목이 멕시코의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

는 비중을 살펴보면, 면직물이 1.8%, 컴퓨터가 21.7%, 전자·전기장비가 11.4%이다.¹¹⁰⁾ 한편 멕시코의 최대 수출품인 자동차 및 부품의 수출은 약 0.8% 증가에 그친다.

뒷 장의 [표 4-16]은 미·중 관세로 인한 멕시코의 산업별 대미 수출 변화를 보여준다.¹¹¹⁾ 산업 전반에 걸친 수출변화 패턴은 대세계 수출을 보여주는 [표 4-15]와 유사하다. 그러나 대미 수출의 경우 컴퓨터와 전자·전기장비 수출의 증가폭이 더욱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관세로 인한 멕시코의 컴퓨터 제품과 전자·전기장비의 대미 수출은 각각 22.5%와 25.0%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전체 수출 증가폭인 21.7%와 11.4%를 뛰어 넘는다.

[표 4-16]의 분석결과를 미국의 대중 수입 감소의 일부분을 멕시코 제품이 대체하였으며 이러한 대체가 컴퓨터와 전자·전기장비 부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특히 중국의 주요 대미 수출품이 컴퓨터 제품과 전자·전기장비임을 상기해보면 무역대체로 인해 해당 부문에서 멕시코의 수출이 큰 수혜를 입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¹²⁾ 반대로 멕시코의 최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의 수출에 큰 변화가 없는 이유는 애초에 중국이 대규모 자동차 수출국이 아니었던 것에 기인한다. 다시 말해 중국산 자동차 및 부품의 대미 수출은 관세부과 이전에도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았고 이에 따른 무역대체효과도 크지 않았다는 것이다.¹¹³⁾

110) 본 수치는 UN COMTRADE가 제공하는 HS 6단위 품목의 수출을 UN의 concordance 표와 [표 4-12]를 이용하여 저자가 직접 통합하고 계산한 것이므로 다른 출처의 수치와 다를 수 있다(UN Trade Statistic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8. 10); UN Comtrade Database(검색일: 2020. 5. 31)).

111) 멕시코의 전체 대미 수출은 약 8.7% 증가하여 앞 절의 Event Study 분석결과와 그 방향성이 일치함을 알 수 있다.

112) 2016년 기준 컴퓨터와 전자전기 수출이 중국의 전체 대미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9.4%와 10.9%이다.

113) 2016년 기준으로 중국의 전체 대미 수출에서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수출 비중은 2.8%에 불과하다.

표 4-16. 미·중 관세로 인한 멕시코의 산업별 대미 수출변화

(단위: %)

산업/품목	증감률	산업/품목	증감률
농림어업	-2.88	미네랄	1.97
광업	-7.87	기초금속	1.00
식료품	-0.17	금속제품	4.05
면직물	19.34	컴퓨터	22.46
목재	3.12	전자·전기장비	24.93
제지	-0.01	기계	2.21
석유·에너지	-20.62	자동차	1.12
화학	0.11	기타운송	0.66
플라스틱	1.98	기타제조업	5.05

자료: 저자 계산.

한편 UNCTAD(2019)에 의하면 미·중 통상갈등이 지속될 경우 멕시코, 캐나다, EU 국가들이 가장 큰 이익을 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해당 보고서에 의하면 멕시코의 총수출은 5.9%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어 본 보고서와 유사한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Jesus Seade Kuri¹¹⁴⁾ 교수는 미·중 경쟁이 멕시코 경제에 가져다줄 긍정적인 영향으로 중국의 대미 수출 감소에 따른 (중국과 유사한 대미 수출 구조를 갖고 있는) 멕시코의 대미 수출 증대를 꾀고 있어 본 보고서의 분석결과와 일치하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¹¹⁵⁾ Expansion(2019) 역시 그동안 가격경쟁력에서 중국에 밀려 수출이 어려웠던 멕시코산 제품들이 미국의 대중 관세로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¹¹⁶⁾

114) Jesus Seade Kuri 교수는 USMCA 협상에 멕시코 측 대표로 참석한 바 있으며, 최근 WTO 사무총장직에 임후보하였으나 1차 라운드에서 탈락하였다.

115) verificado(2019. 5. 21), "La guerra comercial entre EUA y China Beneficia, pero tambien afecta a Mexico," <https://verificado.com.mx/la-guerra-comercial-entre-eua-y-china-beneficia-pero-tambien-afecta-a-mexico/>(검색일: 2020. 9. 5).

116) Expansion(2019. 8. 6), "La pelea Trump-China es una oportunidad(porahora) para Mexico," <https://expansion.mx/economia/2019/08/06/la-pelea-trump-china-es-una-oportunidad-para-mexico>(검색일: 2020. 9. 5).

마. 미·중 관세가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에 미치는 영향

미·중 관세가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표 4-17]에 나타나 있다. 분석결과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중 대페루 수출이 7.7%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폭을 나타내고 있고 칠레, 멕시코 등도 5%를 상회하는 증가율을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는 중남미 국가들의 실질소득 증가로 인한 전반적 수입 증가를 들 수 있다.

표 4-17. 미·중 관세로 인한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변화

(단위: %)

산업/품목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변화율	1.06	0.44	5.35	0.71	5.15	7.72

자료: 저자 계산.

분석의 초점을 멕시코로 옮겨 한국의 대멕시코 수출변화를 산업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자. 멕시코 외에 다른 국가들의 경우 산업별 수출 증감률이 대부분 -2~2%대 사이이므로 수치상 의미가 있는 분석을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분석결과는 [표 4-18]에 나와 있다.

표 4-18. 미·중 관세로 인한 한국의 대멕시코 수출변화

(단위: %)

산업/품목	증감률	산업/품목	증감률
농림어업	7.70	미네랄	3.28
광업	6.29	기초금속	5.78
식료품	2.93	금속 제품	5.77
면직물	4.68	컴퓨터	5.35
목재	8.74	전자·전기장비	7.29
제지	12.59	기계	1.67
석유·에너지	41.10	자동차	2.16
화학	2.59	기타 운송	1.45
플라스틱	2.94	기타 제조업	3.91

자료: 저자 계산.

분석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대멕시코 수출은 전 품목에 걸쳐 증가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 중 석유·에너지 부분의 수출이 41.1%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2016년 기준 석유·에너지 부분에서 한국의 대멕시코 수출이 한국의 전체 대멕시코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 밖에 금속제품, 컴퓨터, 전자·전기장비 등의 증가세가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멕시코의 대미 수출 증가에 따른 중간재 수요 증가가 일정 부분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으로 충당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 가능하다. 보통 한 산업이 동일 산업 제품을 중간재로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컴퓨터, 전자·전기 장비 부분에서 멕시코의 대미 수출 증가가 같은 부분에서 한국의 대멕시코 수출 증가로 이어지는 이유를 알 수 있다.

4. 소결

Event study를 통해 분석한 중남미 주요국의 대미·대중 수출액에 대한 영향은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거나, 유의하더라도 그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헨티나와 칠레는 대미·대중 수출액 모두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고, 멕시코의 경우 대미 수출액에는 유의한 영향이 없었던 반면, 대중 수출액은 양(+)의 효과를 보였으나 단기간에만 그 효과가 나타났다. 한편 브라질의 경우 관세부과 이후에 대중 수출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효과가 사라진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대미 수출액에 대해서는 양(+)의 효과를 보였지만 지속되지는 않았다.

중남미 국가들에 대한 후생수준과 산업별 수출량의 변화는 CGE 모형을 활용함으로써 분석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Event study의 실증분석의 한계를 보완하였다. CGE를 활용한 분석결과 미·중 관세가 무역채널을 통해 중남미 주요국 후

생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대상인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등 모든 국가가 미·중 관세로 인한 후생 증대를 경험할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증가폭은 0.01~0.2%대로 미미하였다.

멕시코의 후생은 약 0.2% 증가하여 중남미 국가들 중에는 가장 유의미한 변화를 보여준다. 이러한 이유로는 멕시코의 높은 대미 무역의존도가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미국이 대중국 수입을 대체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교역 파트너이자, 중국과 경합 관계에 있는 멕시코로부터의 수입을 늘리고 이에 따른 멕시코산 수요 및 수출 가격 상승이 멕시코의 교역조건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관세로 인한 멕시코의 품목별 수출변화 결과도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해준다. 멕시코의 수출에서 가장 증가세가 뚜렷한 품목은 컴퓨터, 전자·전기장비이며, 이는 멕시코의 주요 대미 수출품이자 중국과 경합 관계에 놓인 품목이기도 하다.

CGE 분석결과, 특히 멕시코에 대한 결과는 Event study의 실증분석 결과와 상충되는 것처럼 보인다. 즉 CGE를 통한 분석결과는 미·중 간 관세부과로 인해 멕시코의 대미 수출량이 증가하였고 이것이 미미하지만 후생수준의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하였다. 하지만 Event study의 경우 멕시코의 대미 수출액에 미·중 관세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 모형이 가지는 한계점들을 고려할 때 각각의 분석결과들이 서로의 결과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우선 Event study는 각 HS코드별로 관세가 부과된 이후 12개월 이내의 단기적 관점에서 월별 인과효과를 분석하고 있으므로 CGE 모형이 예측하는 결과가 나타나기에 기간이나 분석단위가 짧을 수 있다. 또 다른 가능성은 Event study에서 활용하고 있는 데이터가 수출량이 아닌 수출액이라는 점이다. 즉 Event study에서는 미·중 간 관세부과가 중남미 국가들의 수출량과 수출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하여 추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수출액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다는 것이 수출량의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제5장

K

PM

결론



본 연구는 중남미 지역에서 나타나는 미·중 간 갈등을 다각도에서 조사하고 분석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2장에서 미국과 중국의 대중남미 정책을 살펴보고, 3장에서 중남미 지역 내에서 나타나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 사례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였다. 4장에서는 미·중 간 대표적 갈등인 2018년의 통상갈등에 초점을 맞추어 양국간 보복관세 부과가 중남미 국가들의 대미국 및 대중국 수출과 후생 수준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의 대중남미 정책은 먼로주의 등장 이후 중남미 지역을 미국의 '뒷마당'으로 인식하면서 지역 패권국으로서의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역사적으로 역외 세력들의 중남미 진출은 미국의 대중남미 정책과 인식에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중남미 지역이 미국과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미국 안보에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2000년대 들어 활발해진 중국의 중남미 진출은 중남미 지역에서 미국의 견제를 야기하였다. 이전 정부와는 달리 트럼프 정부는 다양한 부문에서 중남미를 압박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하지만 중국이 중남미 지역을 일대일로에 편입시킨 이후 미국정부는 미주 성장 이니셔티브 출범으로 이에 대응하는 등 압박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였다.

미국의 대중남미 정책과는 달리 중국의 대중남미 정책은 구체적 내용이 부재하다. 이는 중국의 전체적인 대외전략 흐름 속에서 대중남미 정책이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중국의 대중남미 정책의 방향은 이 지역 국가들과 협력관계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이를 위해 소위 당근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2000년대부터 중국·중남미 간 무역량 급증과 중국의 대중남미 투자 확대에 나타났다.

이와 같은 중국·중남미 간 관계의 변화는 중남미 지역 내에서 미국의 견제를 야기하였다. 3장에서 사례 조사를 통해 파악한 중남미 지역 내 미·중 갈등은 주로 인프라 부문에서 나타나고, 중국이 진출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면서 갈등이 촉발된 경향이 있다. 또 하나는 미·중 갈등의 상황에서 해당 중남미 국가들의

입장은 당시 정권 성향에 좌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친미 성향의 우파 정부인지 친중 성향의 좌파 정부인지에 따라 미국의 압박에 대한 해당국의 의사결정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멕시코는 좌파 성향의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향성에서 벗어나 사안별로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이것의 근본적인 이유는 멕시코의 대미 의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4장에서 Event study를 통해 분석한 중남미 주요국의 대미·대중 수출액에 대한 영향은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거나, 유의하더라도 그 효과가 지속적이지는 않았다. 아르헨티나와 칠레에서는 미·중 통상갈등이 대미·대중 수출액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멕시코의 경우 대미 수출액에는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던 반면, 대중 수출액은 양(+)의 효과를 보였으나 그 효과는 일부 특정 기간에만 나타난 것으로 볼 때 일정한 추세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한편 브라질의 경우 미·중 간 관세부과 이후에 대중 수출이 큰 폭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효과가 점차 사라진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대미 수출액에 대해서는 일부 시점에서만 양(+)의 효과를 보여 의미 있는 추세가 관찰되지는 않았다.

CGE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미·중 관세부과가 무역채널을 통해 중남미 주요국 후생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인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등 모든 국가가 미·중 관세로 인한 후생 증대를 경험할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증가폭은 0.01~0.2%대에 그쳤다.

한편 3장에서 살펴본 중남미 내 미·중 갈등의 사례와 4장의 분석결과를 통해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미·중 간 갈등 상황에서 미국의 압박에 직면한 중남미 국가들이 중국을 관련 부문에서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 중국은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미국을 비난하고 있지만, 중남미 해당국에 대해 강경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며 반발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중국의 대중남미 정책 기조가 압박보다는 지원을 통한 관계 형성에 있기 때

문이라고 판단된다. 다른 이유로는 미국과 달리 중국은 중남미에 대한 소위 압박용 카드가 부재한 것에 그 원인이 있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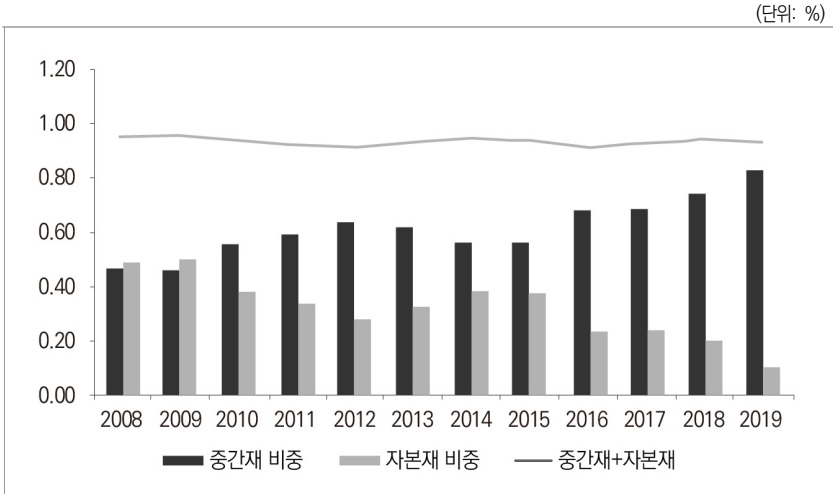
중남미 내 미·중 경쟁에서 중국이 취하고 있는 이러한 입장은 우리에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중남미 시장으로의 진출, 특히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보유한 인프라 부문의 진출 기회를 확대시키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3장에서 설명한 칠레 해저 광케이블 프로젝트를 둘러싼 미·중 간 갈등의 결과로 일본기업이 동 프로젝트를 수주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뒷받침하는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기회는 파나마, 칠레와 같이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높은 국가이면서 동시에 친미 성향의 우파 정부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중남미 내에서 미·중 경쟁이 심화될수록 이러한 국가들을 모니터링하면서 해당국들이 미·중 사이에서 어떠한 입장을 취하는지를 면밀히 살펴보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 관점에서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미·중 간 관세부과가 중남미 국가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는 멕시코에 진출하려는 한국기업에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 현 수준의 미·중 관세가 유지된다고 할 때 유망한 진출 분야는 컴퓨터 및 전자·전기장비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그 요점이다. 앞선 [표 4-18]의 분석결과는 해당 품목에 대한 멕시코의 한국제품 수요가 증가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특히 멕시코를 통해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목적이 있다면 그 이점은 더욱 명확해진다.

2016년 기준 멕시코의 전체 대한국 수입에서 컴퓨터 및 전자·전기장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5%와 12%이다. 컴퓨터 제품은 멕시코가 한국으로부터 가장 많이 수입하는 품목이며 전자·전기장비는 세 번째로 많이 수입하는 품목이다.¹¹⁷⁾ 한편 가공단계별로 한국의 대멕시코 수출을 살펴보면 중간재와 자본재가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1 참고). 즉 이상을 통해 우리는 한국에서 멕시코로 수출되는 컴퓨터 및 전자·전기장비의 대부분이 중간재 또는 자본재 용도임을 알 수 있다.

117) 2위 품목은 21%의 비중을 기록한 자동차 및 부품이다.

그림 5-1. 한국의 대멕시코 수출에서 중간재와 자본재의 비중



자료: 무역협회 K-Stat(검색일: 2020. 10. 5).

하지만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CGE를 활용한 분석은 미·중 관세의 무역채널만을 고려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멕시코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은 그 외의 요인들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미·중 통상갈등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에서 전반적인 불확실성 증대는 멕시코 등 중남미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더불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더욱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중남미 국가들의 상황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그러므로 중남미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경제 주체들에게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하나의 주요 참고사항이 될 뿐 전체적인 그림을 제시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국문자료]

- 김종덕, 윤여준, 권혁주, 정민철, 김유리, 황운중, 김경훈, 김원기. 2019. 『신보호무 역주의정책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연구보고서 19-1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한권. 2020. 「중국의 대중남미 정책」. KIEP 전문가 간담회 발표 자료, pp. 14~16. (9월 11일)
- 박병관. 2013. 「시진핑 지도부의 등장과 중국의 대외정책: '지속'과 '변화'의 측면을 중심으로」. 『전략연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손혜현. 2019. 『미국과 중국의 대중남미 정책의 변화』.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 신꽃비, 라미령, 권혁주. 2018. 「미·중 통상분쟁의 영향: 301조에 따른 상호 추가관세 부과를 중심으로」. KIEP 오늘의 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양평섭, 나수엽, 박민숙, 이한나, 조고운, 오윤미. 2018. 『중국의 대외개방정책 40년 평가와 전망』.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중국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8-67-0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양평섭, 임호열, 이효진. 2016. 「미국 신(新)행정부의 대중국 통상정책과 한·중 경제협에의 영향」. 오늘의 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오성주. 2019. 「美·中 갈등의 역사적 원인과 최근 중남미 정세 변화의 시사점」. POSRI 이슈리포트.
- 오수현. 2019. 「OECD DAC 개발재원 관련 논의에 따른 공여국 대응전략: 개발금융기관(DFIs)을 중심으로」. 『국제개발협력』, vol. 14, pp. 55~78.
- Smith, H, peter. 2010. 이성형, 홍옥현 공역. 2010. 『라틴아메리카 국제관계사』. 외교통상부·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영문자료]

- Amiti, Mary, Stephen J. Redding, and David E. Weinstein. 2019. "The Impact of the 2018 Tariffs on Prices and Welfar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 vol. 33, pp. 187-210.
- Caliendo, Lorenzo, and Fernando Parro. 2015. "Estimates of the Trade and Welfare Effects of NAFTA." *Review of Economic Studies*, Vol. 82, NO. 1, pp. 1-44.
- CEPAL. 2016. "Relaciones económicas entre América Latina y el Caribe y China: Oportunidades y Desafíos." LC/L.4241.
- _____. 2018. "Explorando nuevos espacios de cooperación entre América Latina y el Caribe y China," pp. 22-23.
- China-CELAC Forum. 2018. "Special Declaration of Santiago of the II Ministerial Meeting of the CELAC-China Forum on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9a. "The Trump Administration's 'Zero Tolerance' Immigration Enforcement Policy."
- _____. 2019b. "U.S. Strategy for Engagement in Central America: Policy Issues for Congress."
- _____. 2020a. "China's Engagement with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 _____. 2020b. "U.S Strategy for Engagement in Central America: An Overview."
- _____. 2020c. "Mexico: Background and U.S. Relations."
- _____. 2020d. "Supreme Court Grants Stay in MPP case."
-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2018. "Population Estimates Illegal alien population residing in the United States: January 2015."
- Eaton, Jonathan, and Samuel Kortum. 2002. "Technology, Geography, and Trade." *Econometrica*, Vol. 70, NO. 5, pp. 1741-1779.
- Gale, Fred, Constanza Valdes, and Mark Ash. 2019. "Interdependence of China, United States, and Brazil in Soybean Trad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 Global Development Center of Boston University. 2020. "China-Latin American Economic Bulletin, 2020 edition," pp. 6-7.

- Secretaria de Hacienda y Credito Publico. 2018. “Red Compartida Fraccion VI.”
- Thompson, Paul. 2016. “School district and housing price responses to fiscal stress labels: Evidence from Ohio.” *Journal of Urban Economics*, vol. 94, pp. 54-72.
- UNCTAD. 2019. “Key Statistics and Trends in Trade Policy 2018: Trade Tensions, Implications for Developing Countries.”
-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 2018. Ramos, *et al.* v. Nielsen, *et al.* No. 18-cv-01554.
-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2019. “Continuation of Documentation for Beneficiaries of Temporary Protected Status Designations for El Salvador, Haiti, Honduras, Nepal, Nicaragua, and Sudan.” *Federal Register*, vol. 84.

[온라인 자료]

- 나무위키. 덩샤오핑. <https://namu.wiki/w/%EB%8D%A9%EC%83%A4%EC%98%A4%ED%95%91>(검색일: 2020. 8. 3).
- _____. 시진핑. <https://namu.wiki/w/%EC%8B%9C%EC%A7%84%ED%95%91>(검색일: 2020. 8. 3).
- _____. 장쩌민. <https://namu.wiki/w/%EC%9E%A5%EC%A9%8C%EB%AF%BC>(검색일: 2020. 8. 3).
- _____. 후진타오. <https://namu.wiki/w/%ED%9B%84%EC%A7%84%ED%83%80%EC%98%A4>(검색일: 2020. 8. 3).
- 대한민국 외교부. 2019. 「파나마 주간 경제 동향」. (3월 25일). http://www.mofa.go.kr/www/brd/m_4049/view.do?seq=368304(검색일: 2020. 7. 28).
- 미국 국무부. https://www.state.gov/growth-in-the-americas/#nav__primary-nav(검색일: 2020. 7. 20).
-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 <https://www.dfc.gov/our-impact/all-active-projects>(검색일: 2020. 10. 5).
- _____. <https://www.dfc.gov/our-work/latin-america-and-the-caribbean>(검색일: 2020. 10. 5).
- 「中, 수교직전 파나마에 10억弗 항만투자...‘금전외교 논란」. 2017. 『연합뉴스』. (6월 14일). <https://www.yna.co.kr/view/AKR20170614109000089>(검색일:

2020. 7. 28).
- ambito. 2020. "Trump se quejó y Bolsonaro dejó la licitación de 5G para 2022." (January 14). <https://www.ambito.com/mundo/trump-se-quejo-y-bolsonaro-dejo-la-licitacion-5g-2022-n5076437>(검색일: 2020. 8. 10).
- CRÍTICA. 2019. "EEUU: China para Panamá es mucha espuma y poco chocolate." (August 30). <https://www.critica.com.pa/nacional/eeuu-china-para-panama-es-mucha-espuma-y-poco-chocolate-556762>(검색일: 2020. 7. 13).
- El Capital Financiero. 2019. "TLC con China deja de ser una prioridad para Panamá, pero no un objetivo." (October 29). <https://elcapitalfinanciero.com/tlc-con-china-deja-de-ser-una-prioridad-para-panama-pero-no-un-objetivo/>(검색일: 2020. 7. 28).
- El financiero. 2018. "Corredor del Istmo, ruta comercial que AMLO quiere trazar de la mano de China." (June 7). <https://www.elfinanciero.com.mx/financiamiento/corredor-del-istmo-ruta-comercial-que-amlo-quiere-trazar-de-la-mano-de-china>(검색일: 2020. 7. 20).
- _____. 2019. "Mientras en EU está en 'guerra', Huawei se abre camino en México." (May 9). <https://www.elfinanciero.com.mx/tech/mientras-en-eu-esta-en-guerra-huawei-se-abre-camino-en-mexico> (검색일: 2020. 7. 27).
- El Libero. 2019. "Chile, otro campo de batalla en la guerra comercial entre China y Estados Unidos." (August 5). <https://ellibero.cl/actualidad/chile-el-campo-de-batalla-en-la-guerra-comercial-entre-china-y-estados-unidos/>(검색일: 2020. 9. 8).
- El Mercurio. 2019. "Canciller chino expresa que cumbre APEC en Chile 'puede ser un gran éxito' para defender el libre comercio." (July 29). <http://cache-elastic.emol.com/2019/07/29/C/1R3KRUO8>(검색일: 2020. 9. 14).
- El Universal. 2019. "Amlo cierra la puerta a la inversión china." (May 3). <https://www.eluniversal.com.mx/columna/mario-maldonado/cartera/amlo-le-cierra-la-puerta-la-inversion-china>(검색일: 2020. 7. 22).
- E&N. 2017. "Los 19 acuerdos que firmaron Panamá y China." (November

- 20). <https://www.estrategiaynegocios.net/lasclavesdeldia/1127607-330/los-19-acuerdos-que-firmaron-panam%C3%A1-y-china> (검색일: 2020. 7. 28).
- Enrique Dussel Peters. 2020. “La nueva relación triangular entre Estados Unidos, China y América Latina – el caso de México.” <https://mx.boell.org/es/2020/01/10/la-nueva-relacion-triangular-entre-estados-unidos-china-y-america-latina-el-caso-de>(검색일: 2020. 2. 20).
- Expansion. 2019. “La pelea Trump-China es una oportunidad(porahora) para Mexico.” (August 6). <https://expansion.mx/economia/2019/08/06/la-pelea-trump-china-es-una-oportunidad-para-mexico> (검색일: 2020. 9. 5).
- Fierce Wireless. 2019. “AT&T may phase out Huawei equipment in network upgrades in Mexico.” (April 16). <https://www.fiercewireless.com/wireless/at-t-may-phase-out-huawei-equipment-network-upgrades-mexico>(검색일: 2020. 9. 22).
- Forbes. 2019. “México, ‘bastión’ de Huawei contra campaña de Estados Unidos.” (May 9). <https://www.forbes.com.mx/mexico-bastion-de-huawei-contra-campana-de-estados-unidos/>(검색일: 2020. 7. 31).
- Folha de S.Paulo. 2020. “Por ‘segurança nacional’, EUA já discutem crédito para 5G no Brasil, diz embaixador.” (June 11). <https://www1.folha.uol.com.br/mundo/2020/06/por-seguranca-nacional-eua-ja-discutem-credito-para-5g-no-brasil-diz-embaixador.shtml>(검색일: 2020. 8. 24).
- France24. 2019. “China niega un pago millonario de sobornos a Panamá para establecer relaciones diplomáticas.” (November 30). <https://www.france24.com/es/20191130-china-niega-un-pago-millonario-de-sobornos-a-panam%C3%A1-para-establecer-relaciones-diplom%C3%A1ticas>(검색일: 2020. 7. 22).
- Global Americans. 2018. “The evolution of Panama-PRC relations since recognition, and their strategic implications for the U.S. and the region.” (September 21). <https://theglobalamericans.org/2018/09/the-evolution-of-panama-prc-relations-since-recognition-and-their-strategic-implications-for-the-u-s-and-the-region/>(검색일: 2

020. 8. 19).
- Green Belt and Road Initiative Center. 2020. "Countries of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https://green-bri.org/countries-of-the-belt-and-road-initiative-bri>(검색일: 2020. 8. 6).
-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https://data.imf.org/>(검색일: 2020. 9. 22).
- Infobae. 2020. "Estación espacial en Neuquén: el Gobierno ratificó que seguirá adelante el polémico acuerdo con China." (February 17). <https://www.infobae.com/politica/2020/02/17/estacion-espacial-en-neuquen-el-gobierno-ratifico-que-seguira-adelante-el-pol-emico-acuerdo-con-china/>(검색일: 2020. 9. 8).
- La Estrella de Panamá. 2018. "Zhao: 'A China no le molesta si su sede está o no en Amador'." (September 23). <https://www.laestrella.com.pa/internacional/mundo/180923/le-zhao-china-molesta>(검색일: 2020. 8. 19).
- _____. 2020. "EE. UU. veta las relaciones entre Panamá y China." (February 27). <https://www.laestrella.com.pa/opinion/columnistas/200227/ee-uu-veta-relaciones-panama>(검색일: 2020. 8. 14).
- La Política Online. 2019. "Pese a las advertencias de EU la influencia de Huawei en la red mexicana crece." (April 17). <https://www.lapoliticaonline.com.mx/nota/121773-pese-a-las-advertencias-de-eu-la-influencia-de-huawei-en-la-red-mexicana-crece/>(검색일: 2020. 9. 22).
- La Razón. 2018. "Historia del Corredor Transistmico." (December 17). <https://www.razon.com.mx/opinion/historia-del-corredor-transistmico/>(검색일: 2020. 9. 25).
- LATERCERA. 2018. "La hoja de ruta del nuevo cable transoceánico que llegará a Chile." (July 30). <https://www.latercera.com/pulso/noticia/la-hoja-ruta-del-nuevo-cable-transoceanico-llegara-chile/261943/>(검색일: 2020. 9. 14).
- Ministerio de Relaciones Exteriores de Panamá. 2019. "Estudio revela que propuesta del presidente Varela para un tren Panama-Davides económica y socialmente rentable." (March 15). <https://mire.gob.pa/noticias/estudio-revela-que-propuesta-del-presidente-varela-para-un-tren-panama-david-es-economica-y-socialmente->

- rentable/(검색일: 2020. 7. 28).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6. "China's Policy Paper o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November 24). https://www.fmprc.gov.cn/mfa_eng/zxxx_662805/t1418254.shtml(검색일: 2020. 9. 22).
- Newsweek México*. 2019. "Corredor Transístmico: a recuperar el auge económico." (June 9). <https://newsweekspanol.com/2019/06/corredor-transistmico-auge-economico>(검색일: 2020. 7. 31).
- Nikkei Asian Review*. 2020. "Chile picks Japan's trans-Pacific cable route in snub to China." (July 29). <https://asia.nikkei.com/Politics/International-relations/US-China-tensions/Chile-picks-Japan-s-trans-Pacific-cable-route-in-snub-to-China>(검색일: 2020. 9. 14).
- NPR. 2020. "Federal court orders Trump administration to accept new DACA applications." (July 17). <https://www.npr.org/2020/07/17/892413311/federal-court-orders-trump-administration-to-accept-new-daca-applications>(검색일: 2020. 7. 20).
- _____. 2020. "Trump says upcoming immigration measure will include DACA." (July 10). <https://www.npr.org/2020/07/10/889950540/trump-says-upcoming-immigration-measure-will-include-daca> (검색일: 2020. 7. 20).
- Oxford Analytica. 2020. "IDB election will raise uncertainty in Latin America." (September 14). <https://dailybrief.oxan.com/Analysis/ES256228/-IDB-election-will-raise-uncertainty-in-Latin-America>(검색일: 2020. 10. 14).
- Panamá América. 2018. "Entregar Amador a China fue una propuesta de Juan Carlos Varela." (September 23). <https://www.panamaamerica.com.pa/politica/entregar-amador-china-fue-una-propuesta-de-juan-carlos-varela-1116847>(검색일: 2020. 8. 18).
- Perfil. 2016. "La "polémica" base china estará lista en marzo." (June 26). <https://www.perfil.com/noticias/ciencia/La-polemica-base-china-estara-lista-en-marzo-20160626-0008.phtml>(검색일: 2020. 9. 8).
- Reuters*. 2019. "Peru and U.S. close to signing deal to counter Chinese influence in region: diplomat." (December 6). <https://www.reuters.com/article/us-peru-usa/peru-and-u-s-close-to-signing-deal-to-counter-chinese-influence-in-region-diplomat-idUSKBN1Y92>

- GR(검색일: 2020. 9. 9).
- _____. 2020. "Brazil may face 'consequences' if it gives Huawei 5G access, says U.S. ambassador." (July 29). <https://www.reuters.com/article/us-huawei-tech-brazil-5g/brazil-may-face-consequences-if-it-gives-huawei-5g-access-says-u-s-ambassador-idUSKCN24U20X> (검색일: 2020. 8. 24).
- St. Louis Post-Dispatch. 2019. "Editorial: While America slept, China gained a stranglehold on the Panama Canal." (January 6). https://www.stltoday.com/opinion/editorial/editorial-while-america-slept-china-gained-a-stranglehold-on-the-panama-canal/article_30203f97-8324-55f0-b878-351e945c2e1c.html(검색일: 2020. 8. 18).
- The Central American Group. 2019. "The U.S. government launches the America Crece initiative." (December 17). <https://www.thecentralamericangroup.com/america-crece-initiative/>(검색일: 2020. 9. 9).
- The Diplomat*. 2016. "China Builds Space-Monitoring Base in the Americas." (May 24). <https://thediplomat.com/2016/05/china-builds-space-monitoring-base-in-the-americas/>(검색일: 2020. 9. 8).
- The New York Times*. 2018. "Trump embraces foreign aid to counter China's global influence." (October 14). https://www.nytimes.com/2018/10/14/world/asia/donald-trump-foreign-aid-bill.html?auth=login-email&emc=edit_nn_20181015&login=email&nl=morning-briefing&nid=1418504420181015&te=1(검색일: 2020. 9. 9).
- The Wall Street Journal*. 2019. "The U.S. Wants to Ban Huawei. But in Some Places, AT&T Relies On It." (April 16). <https://www.wsj.com/articles/the-u-s-wants-to-ban-huawei-at-t-mexico-relies-on-it-11555407001>(검색일: 2020. 9. 23).
- The Washington Post*. 2020. "Trump administration nominates American to head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breaking with tradition." (June 17). https://www.washingtonpost.com/national-security/trump-administration-nominates-american-to-head-inter-american-development-bank-breaking-with-tradition/2020/06/16/1159901c-b015-11ea-8758-bfd1d045525a_story.html(검색일: 2020. 7. 27).
- The Whitehouse. 2018. "Statement from the Press Secretary on H.R. 2105 /S.2463, the Better Utilization of Investments Leading to Develop

- ment(BUILD) Act of 2018.” (July 17)
- tvn Noticias. 2019. “EEUU sugiere 'análisis cuidadoso' ante proyecto de tren Panamá - Chiriquí.” (March 15). https://www.tvn-2.com/nacionales/EEUU-analisis-cuidadoso-Panama-Chiriqui_0_5259224083.html(검색일: 2020. 7. 28).
- _____. 2019. “Gobierno de Cortizo 'no contempla' el tren Panamá-David.” (September 6). https://www.tvn-2.com/nacionales/Gobierno-Cortizo-no-contempla-tren-Panama-David_0_5390460942.html(검색일: 2020. 11. 26).
- UN Comtrade(검색일: 2020. 5. 31).
- UN Comtrade Database. <https://comtrade.un.org/data/>(최종 검색일: 2020. 5. 31).
- UN Trade Statistics. <https://unstats.un.org/unsd/trade/classifications/correspondence-tables.asp>(검색일: 2020. 8. 10).
-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https://www.usaid.gov/>(검색일: 2020. 7. 20).
-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2020. “Number of Form I-821 D, Consideration of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Status, by Fiscal Year, Quarter, and Case Status: Aug.15, 2012-Mar.31, 2020.” https://www.uscis.gov/sites/default/files/document/data/DACA_performancedata_fy2020_qtr2.pdf(검색일: 2020. 8. 10).
- U.S Trade and Development Agency. <https://ustda.gov/>(검색일: 2020. 7. 20).
- verificado. 2019. “La guerra comercial entre EUA y China Beneficia, pero tambien afecta a Mexico.” (May 21). <https://verificado.com.mx/la-guerra-comercial-entre-eua-y-china-beneficia-pero-tambien-afecta-a-mexico/>(검색일: 2020. 9. 5).
- Wilson Center. 2019. “Stargazing: China’s Argentina complex raises sky-high fears” (April 5). <https://www.wilsoncenter.org/blog-post/stargazing-chinas-argentina-complex-raises-sky-high-fears>(검색일: 2020. 9. 16).
- World Bank. World Integrated Trade Solution. <https://wits.worldbank.org/>(검색일: 2020. 8. 24).

[법률자료]

「미국·멕시코 경제동반자법안」(2019년 1월 발의, 2020년 1월 15일 상원 통과).

[관련자료 목록]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 <https://www.dfc.gov/our-impact/all-active-projects>.
연원호, 정지현, 양평섭, 나수엽, 윤여준, 강구상. 2019. 「미·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와 향후 전망」. KIEP 오늘의 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20.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U.S. policy and Issues in the 116th Congress.”

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 y Geografía. 2020. “Reporte del registro
de la industria automotriz de vehículos ligeros(Cifras durante
diciembre de 2019).”

<http://www.chinacelacforum.org/eng/>.

An Effect of US–China Rivalry on Latin America and Its Implication

Sungwoo Hong, Yeo Joon Yoon, Jino Kim, Jeewoon Rim, and Jimin Nam

Conflict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have been appearing in various forms across many regions; it can be seen in trade, commerce, politics, and diplomacy. In addition, it is likely that the conflicts between the two countries intensify as the multilateralism would be threatened and protectionism would emerge in the post-COVID 19 era.

Latin America is not an exception to this issue of the US-China conflict. In terms of national security, the United States has only option to react sensitively to the growing influence of China in Latin America, considering the geographical proximit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Latin America. For this reason, varied conflict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occur in Latin America.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atterns of US-China rivalry that appeared in Latin America and analyzed the effects of this rivalry on Latin American countries in multifaceted ways. In Chapter 2, we examined how the US and Chinese foreign policies against Latin America have changed. Furthermore, we summarized specific

policies against Latin America that were implemented under the Trump administration. The fundamental goal of the US policy was to occupy a regional hegemony in Latin America by giving them incentive and pressure. In particular, the Trump administration tended to weigh on Latin America in many sectors such as immigration, infrastructure, and so on. By contrast, Chinese policies against Latin America aim at maintaining cooperative relations with Latin America in the absence of specifics.

In Chapter 3, we presented several examples of the US-China conflict that were observed in Latin America. This conflict was mostly prominent in the infrastructure sector, in which the United States was likely to press Latin America in order to exclude China from related projects.

In Chapter 4, we conducted an empirical analysis by focusing on the trade disput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that occurred in 2018. Specifically, we analyzed the impact of the retaliatory tariffs between the two countries on exports of major Latin America countries to United States and China. In addition, we complementarily examined the effect of the trade dispute on the welfare of the Latin American countries with the CGE (Computational General Equilibrium) model. As a result of the empirical analysis, Brazil's export to China have increased significantly since the imposition of the tariffs, and then the effect has disappeared over time. In contrast, there was no consistent pattern for countries other than Brazil. The impact of the US-China conflict on the welfare of the countries in Latin America was trivial.

The conflic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that occurs in Latin America could be an opportunity for Korean companies that seek to advance into Latin America. The companies may be given an unintended chance as Latin America is faced by US pressure to rule out China from infrastructure sector. Therefore, it would be important to monitor the political position of Latin American countries in terms of seeking opportunities to enter Latin America in the future.

<책임>

홍성우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 학사 및 석사
뉴욕주립대학교 버팔로 경제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미주팀 부연구위원
(現, E-mail: swhong@kiep.go.kr)

저서 및 논문

Defined Contribution Funded Social Security and Labor Supply: Focus on Mexican Social Security Reform in 1997(2020) 외

<공동>

윤여준

연세대학교 경제학 학사·석사
영국 University of Warwick 경제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미주팀장
(現, E-mail: yoonyj@kiep.go.kr)

저서 및 논문

『신호무역주의정책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공저, 2019)
Trump Tariff and Firm Relief: Winners and Losers from Steel Tariff Exclusion Request(공저, 2020) 외

김진오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학(중남미지역학 전공) 석사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관계학과 박사과정 수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미주팀 선임연구원
(現, E-mail: jokim@kiep.go.kr)

저서 및 논문

『개발협력과 기후변화 대응의 통합적 접근방안: 페루 사례를 중심으로』(공저, 2019)
『신흥국 정부조달시장 개방실태 분석과 중소기업에 대한 시사점』(공저, 2019) 외

임지운

美 버지니아 주립대학교(UVA) 국제관계학 학사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국제통상경영 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미주팀 전문연구원
(現, E-mail: jwrim@kiep.go.kr)

저서 및 논문

「캐나다 총선 결과와 전망」(공저, 2019)
「2020년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확정 및 주요 공약」(공저, 2020) 외

남지민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한서과 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미주팀 연구원
現 외교부 라틴아메리카협력센터 연구원
(現, E-mail: jmnam20@mofa.go.kr)

저서 및 논문

「멕시코의 에너지정책 논쟁 및 시사점」(공저, 2020) 외

KIEP 세계지역전략연구 발간자료 목록

- 2020년

20-01 미·중 경쟁이 중남미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홍성우·윤여준·김진오·임지운·남지민
- 2019년

19-01 인도 산업클러스터 경쟁력 분석과 시사점:
마하라슈트라 주를 중심으로 / 류한별·윤지현·송영철

19-02 모로코의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과 한국의 협력방안 /
정재욱·유광호·김상훈

19-03 신남방지역 디지털경제 협력방안 /
김정곤·이재호·김도연·신민이·김제국

19-04 브라질과 멕시코 환경시장 진출방안 연구 /
정경원·하상섭·장수환·장유운

19-05 한국과 메콩지역의 중장기 상생전략: 지역협력체를 중심으로 /
김태운·안동환·지성태·윤태연·Phumsith Mahasuweerachai·
이용은·김범석·김나리

19-06 EU의 對아프리카 특혜관세제도 현황과 정책 시사점 /
정재욱·정민지

19-07 동남아 사회주의 국가의 여성연맹 연구를 통한 북한 여성 관련
개발협력 사업에의 시사점: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여성연맹 사례를
중심으로 / 장은하·김은경·윤지소·김정수·박윤정·장영은

19-08 라틴아메리카 에너지정책의 변화와 협력방안:
안데스 국가를 중심으로 / 김영석·권기수·강정원·김유경

19-09 한국의 아세안투자 특성과 시사점:
해외 자회사 활동과 모기업 자료를 연계한 분석 /
문진영·한형민·류한별·박나연·윤지현·김미림·오윤아

19-10 한-베트남 농업분야 중장기 협력전략 수립 연구 /
허장·전형진·김상현·이효정·이병훈·이대섭·이수환·최정만

19-11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의 출범과 한국의 협력방안 /
이재훈·김경하·김은경·서상현

- 19-12 베트남 유아교사교육자 연수 실태와 수요 분석 및
연수 프로그램 개발안 연구 /
문무경·구자연·김혜진·Nguyen Thi My Trinh·
Nguyen Thi Lan Phuong
- 19-13 한-인도 항공·우주와 4차 산업 협력 연구 /
김봉훈·박정웅·유나래·권혁민
- 19-14 국제 에너지시장 변화와 한·중동 에너지 협력 다각화 방향 /
정재욱·손성현·장윤희·유광호·정준환·이소영·이승문
- 19-15 한국의 르완다 농업분야 ODA 종합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
박영호·정민지·문수현·김예진·최영출

KIEP 발간자료회원제 안내

- 본 연구원에서는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있는 전문가, 기업 및 일반에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발간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를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신속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종류 및 연회비

회원종류	배포자료	연간회비		
		기관회원	개인회원	연구자회원*
S	외부배포 발간물 일체	30만원	20만원	10만원
		8만원		4만원
A	East Asian Economic Review	8만원		4만원

* 연구자 회원: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풀 회원

■ 가입방법

우편 또는 FAX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송부 (수시접수)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조정실 기획성과팀
연회비 납부 문의전화: 044) 414-1179 FAX: 044) 414-1144
E-mail: sgh@kiep.go.kr

■ 회원특전 및 유효기간

- S기관회원의 특전: 본 연구원 해외사무소(美 KEI) 발간자료 등 제공
- 자료가 출판되는 즉시 우편으로 회원에게 보급됩니다.
-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기간에 가격인상과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연회원기간은 加入月로부터 다음해 加入月까지입니다.

KIEP 발간자료회원제 가입신청서

기관명 (성명)	(한글)	(한문)
	(영문: 약호 포함)	
대표자		
발간물 수령주소	우편번호	
담당자 연락처	전화 FAX	E-mail :
회원소개 (간략히)		
사업자 등록번호	종목	

회원분류 (해당란에 ✓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S	A
기 관 회 원 <input type="checkbox"/>	발간물일체	계간지
개 인 회 원 <input type="checkbox"/>		
연 구 자 회 원 <input type="checkbox"/>		

* 회원번호

* 갱신통보사항

(* 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특기사항



An Effect of US-China Rivalry on Latin America and Its Implication

Sungwoo Hong, Yeo Joon Yoon, Jino Kim, Jeewoon Rim, and Jimin Nam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중 간 갈등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남미 지역에서 일어나는 미·중 갈등의 양상을 조사하고, 2018년 양국간 통상갈등에 초점을 맞추어 중남미 주요국의 대미·대중 수출, 그리고 후생수준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분석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ISBN 978-89-322-9016-4
978-89-322-9000-3(세트)

정가 7,000원